

**Articles**

A Critical Review on the Relocation of the Center of Gojoseon / Kim, Byung Gi

On the Location of the Joseon-hyun in Nangrang-gun / Lee, Deok Il

A Recognition on the *Ilbonseogi* and *Samguksagi* by Kim Hyungu / Hwang, Soon Jong

A Comparison of Suematsu Yasukazu and Kim Hyungu Regarding Imna / Jung, Ahm

Lee Byungdo's Personal Record and Historical Plight / Kim, Sam Woong

역사와 융합

역사와 융합

제1호 2017. 12. 30

제  
1  
호

연구논문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 김병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 이덕일

김현구가 바라본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 황순종

스에마쓰와 김현구의 임나 위치비정에 관한 소고 / 정암

이병도의 행적과 그의 역사관 / 김삼웅

서 평

한국 고대사 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 이도상

윤내현, 『한국 고대사 신론』, 만권당, 2017

바른역사학술원



ISSN 2586-2774

# 역사와 융합

제1호 2017. 12. 30

바른역사학술원

## 차 례

### [연구논문]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 김병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 이덕일

김현구가 바라본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 황순종

스에마쓰와 김현구의 임나 위치비정에 관한 소고 / 정암

이병도의 행적과 그의 역사관 / 김삼웅

### [서 평]

한국 고대사 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 이도상

윤내현, 『한국 고대사 신론』, 만권당, 2017

---

##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 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 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

『역사와융합』 제 1집(2017. 12)

## 고조선 중심지이동설 비판

김 병 기(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 차 례 -

1. 머리말
2. 고조선의 위치 문제
3. 중심지이동설의 비판
4. 맺음말

### 【국문초록】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살피는 것은 고조선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대동강중심설, 2) 요하(遼東)중심설, 3) 중심지이동설이 그것이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사의 시작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대동강중심설을 강조하였고, 이는 한국고대사학계의 다수의 주장으로 정착되었다. 요동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익, 박지원 등 조선실학자들과 신채호, 정인보 등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중심지이동설은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의 세력에 밀려 점차 한반도,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논리이다.

종래의 대동강중심설이 1차 사료가 연구되고, 고고학적 발굴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문으로서의 근거를 잃게 되자 그 변형논리로 주류학계에서는 중심지이동설을 착안하게 되었다. 이들은 ‘애하 하구(愛河 河口)의 기와조각 명문(名紋)’, ‘연진장성(燕秦長城)’ 등의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다. 따라서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의 논리인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명목상의 변형 논리일 뿐인 것이다.

(주제어) 고조선, 대동강중심설, 요동중심설, 중심지이동설, 연진장성

## 1. 머리말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일제 식민사학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바라보면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식민사학이라고 비판 받아 온 한국 고대사학계는 ‘낙랑군=대동강유역’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위치비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에서 출발한다. 한사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한사군 설치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사군 설치 당시의 시각이란 서기전 1세기경에 기록된 『사기』, 1세기경의 『한서』, 3세기 후반 『삼국지』같은 중국 고대 사서의 기록을 직접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료에 한사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가 1차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고대사학계에는 두 가지 병폐가 있다. 하나는 스승의 견해에 이견을 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에 쓴 1차 사료를 통해 사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한국사를 비하하기 위한 시각으로 바라본 고대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낙랑군은 한사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사군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세웠기 때문에 고조선의 중심지 또한 한사군의 중심지와 같다는 것이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조선을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던 조선총독부의 도상(圖上)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민사학계에서는 이미 폐기 처분했어야 할 조선총독부의 ‘낙랑군=대동강설’을 지금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절이 아닌 해방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랐다. 학계는 도제적인 방식으로 억압한다고 해도 북한과 만주일대는 물론 난하, 갈석 동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조선의 표지유물이랄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고인돌, 적석총 등 관련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무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리지린을 비롯해서 국내의 윤내현, 이덕일 같은 역사학자들이 중국의 1차 사료를 바탕으로 고조선과 한사군의 강역이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지금의 요서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이른바 대동강중심설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온 새로운 변형이론이 바로 ‘중심지이동설’이었다.

그러나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에서 주장했던 식민사학의 현대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변형이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더 큰 문제는 ‘중심지이동설’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한 ‘애하 하구 출토 기와 명문’이니 ‘연·진 장성설’ 같은 것은 동북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국학자들의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더니 지금은 중국 동북공

정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1차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핵심논거가 모두 무너진 ‘대동강중심설’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중심지이동설’이란 변형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본고는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논의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살피는 것은 고조선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동강유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는 대동강중심설과 만주의 요녕성(요동·요하) 일대가 중심지였다는 요동중심설, 초기에는 요동지역에 있다가 후기에는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하여 멸망했다는 중심지이동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고조선 강역’이라고 표현해야 할 문제를 ‘중심지’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 강역을 한반도 북부로 한정되었던 일제 식민사학의 논리가 도저히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었지만 일단 중심지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 2.1 대동강중심설

대동강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대동강유역의 평양일대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식민사학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고대사학계 다수에서 주장했었는데 최근에는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에서 적극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대동강중심설은 이른바 ‘기자동래설’에서 시작한다. ‘기자동래설’은 전한

(前漢, 서기전 108~서기 8) 때 편찬된 『상서대전』에 처음 나타나는데, 은(殷)나라 사람 기자가 은나라 멸망 후 주(周)나라 무왕을 섬길 수 없어 ‘조선’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이다. 기자가 온 조선이 기자조선이라는 것으로, 고려 중기부터 평양에 기자의 사당이 세워지면서 한국사 내로 들어왔는데, 조선후기 사대주의의 유학자들이 소중화(小中華) 사상으로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기도 했다.

일연도 『삼국유사』에서 “단군왕검은 당고(唐高)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sup>1)</sup>라고 말했다. 일연은 ‘단군조선’의 도읍지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이후 정확한 구별 없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한서』 ‘조선 열전’은 한나라 초기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패수<sup>2)</sup>라고 기록했는데, 이 패수를 대동강으로 오인하면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유역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수’를 한백검은 청천강으로, 정약용은 압록강으로 비정한 것처럼 패수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었다. 정약용은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북부였지만 후에 영토를 확장하여 요서지방을 점령하고 연나라와 국경을 접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약용의 이러한 견해는 만주에 있던 고조선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중심지이동설과는 역방향인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치윤은 『해동역사』에서, 한진서는 『해동역사속(續)』에서 고조선의 도읍지는 평양이지만 그 강역은 요서지방을 훨씬 넘어선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처럼 실학자들에 의해 고조선의 강역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했다.

북위사람 역도원(酈道元)이 『수경주(水經注)』에서 ‘패수’에 관해 주석을 잘못 단 것도 대동강중심설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수경(水經)』 원문은 “패수는 낙랑

1) 『삼국유사』 권1 ‘기이제일, 고조선’ 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高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2) 『한서』 권95. ‘西南夷兩粵朝鮮傳’ 朝鮮王滿. 燕人. 自始燕時. 嘗略屬真番. 朝鮮. 爲置吏築障.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涘水爲界. 屬燕. 이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패수는 일찍부터 중국과 조선의 국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기』 권115. ‘조선열전’)

군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임패현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sup>3)</sup>” 라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역도원은 장수왕이 재위 15년(427) 천도한 평양을 고조선 왕협성으로 보고,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역도원이 북위를 방문한 고구려 사신에게 이에 대해 질문하자 고구려 사신은 “성(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대답했고<sup>4)</sup>, 역도원은 이를 패수가 『수경(水經)』 원문과는 달리 서쪽으로 흐른다고 단정 짓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래서 역도원은 패수에 대해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고 한 『수경』 원문은 잘못된 것이며, 패수는 (고구려 사신들의 말대로) 서쪽으로 흐른다고 주석하였다. 역도원은 서기 전 2세기 경 한나라 때의 패수를 서기 5~6세기 이후의 대동강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에 불과하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중심설을 한국사의 시작을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더욱 체계화시켰다. 일제는 1910년대부터 평양일대에서 중국계 유적과 유물을 발굴했다면서 이를 무조건 ‘낙랑 유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사편수회의 이병도 등은 일본인 스승들의 이런 주장을 무조건 신봉하면서 ‘실증’이란 미명 하에 더욱 체계화시켜 나갔다. 해방 후에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들이 한국 사학계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대동강중심설’은 최근까지도 통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동강중심설은 문헌사료는 물론 고고학 사료에 의해서도 반박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에 인용된 『위략』은,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파견해 조선의 서쪽지역을 침공하여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에 조선이 비로소 약해졌다.”<sup>5)</sup>”고 말하고 있다. 연나라

에게 서쪽 2천여 리를 빼앗기고도 만번한을 연나라와 새로운 국경으로 삼았다면 고조선의 영역은 평안도 대동강일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성호(星湖) 이익(李瀾) 같은 실학자들이 이를 부인했던 것이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천지문, 조선사군(朝鮮四郡)’에서 동천왕 때 고구려를 침략한 위(魏)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현도에서 나와서 낙랑으로 물러갔다는 기록을 근거 삼아 현도·낙랑 두 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낙랑이 평양이면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평양으로 퇴각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로 역시 ‘낙랑군=평양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의 북경 부근에서 대군을 출발시킨 수양제의 좌군 제12군은 낙랑을 거쳐 평양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낙랑이 대동강 유역의 평양이라면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고조선의 대동강중심설은 문헌학적이나 고고학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견해<sup>6)</sup>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장악한 식민사학자들이 최근까지 고조선 왕검성은 평양이라는 대동강중심설을 주장해왔다.

## 2.2 요동중심설

고조선의 도읍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이 요동중심설이다. 조선 초기 권람은 『응제시주(應製詩註)』에서 낙랑을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자의 건국지는 중국 산둥성 청주(靑州)로 비정하고,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으로 보았다. 또한 조선 중기 홍여하(洪汝河)는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에서 진번을 지금의 요녕성 요양(遼陽)에 비정하고, 패수도 한반도가 아닌 만주 요하(遼河)로 비정했다. 그 외에 조선 후기 이익, 박지원, 이규경 같은 실학자들도 요

3) 『수경』 14권, ‘패수’ 泚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瀨縣 東入于海

4) 역도원, 『수경주』 권14, ‘패수’ 余訪蕃使 言城在泚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5) 『삼국지』 권30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魏略曰 …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界. 朝鮮遂弱.

6) 평양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봉니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196~214쪽 참조) 그리고 봉니나 명문기와 등의 연대도 한사군 설치 연대보다 훨씬 후대인 후한 또는 서진시기가 되어 이를 한사군의 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윤내현, 『한국 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 331~337쪽 참조)

동중심설에 동조했는데, 이는 유학 이데올로기를 넘어 중국 고대사료를 직접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신채호를 비롯하여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로 이어진다. 그들의 고대사 연구는 단군조선과 부여를 우리 역사의 주류로 삼는 새로운 한국사 체계를 세우는 한편, 만주대륙에서 활동했던 동이족의 역사를 강조하고, 고조선의 중심은 물론 한사군의 위치도 한반도 밖에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고조선의 강역이 요동, 요서는 물론 중국사서에 등장하는 상곡, 어양, 우북평과 산동일대까지 미쳤다고 보았다.<sup>7)</sup> 또한 만변한을 해성·개평일대로<sup>8)</sup>, 왕검성을 험독으로 보아 요동의 개평 동북으로<sup>9)</sup>, 패수를 해성부근의 현우락으로 비정했으며<sup>10)</sup> 낙랑군을 고구려 남쪽에 있던 낙랑국과 구별하여 요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중국사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국고대사의 체계를 한 단계 높였다. 정인보 역시 패수를 해성부근으로 비정했고<sup>11)</sup>, 한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진번은 대릉하부근<sup>12)</sup>, 현도는 우북평<sup>13)</sup>, 낙랑은 요동의 험독<sup>14)</sup>으로 비정했다.

그러나 중국 고대사료에 근거를 둔 민족사학자들의 이런 역사인식은 해방 후 식민사학자들이 학계를 장악하면서 최근까지 사장되어 왔다. 다만 북한에서는 리지린의 『고조선연구(1963)』에서 진개에게 공격당한 이후의 고조선의 강역을 대릉하까지로 비정한 것처럼 대동강중심설을 극복했었다. 국내에서는 단국대학교 교수 윤내현이 『한국고대사신문(1986)』과 『고조선연구(1994)』 같은 저서에서

7)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상, 1972, 97쪽.

8) 위의 책, 101쪽.

9) 위의 책, 103쪽.

10) 위의 책, 103쪽.

11) 정인보, 『조선사연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담원정인보전집』3, 1983, 94쪽.

12) 위의 책, 154쪽.

13) 위의 책, 159~160쪽.

14) 위의 책, 163쪽.

방대한 1차사료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강역이 방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에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이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2009)』에서 다시 한번 고조선의 강역이 광대했음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학자 유 엠 부쥬도 『고조선(이항재/이병두 역, 1990)』에서 고조선의 강역이 방대했다고 바라보았다. 러시아인의 시각으로도 중국 고대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고조선의 중심이 대동강유역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동중심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차이가 있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 북한의 리지린은 대릉하로 보고 있다.<sup>15)</sup> 리지린은 만일 패수가 압록강 또는 대동강이라면 위만이 패수를 건너 진(秦)의 고공지(故空地)인 상하장(上下鄣)에 거주했다는 압록강 이남에서 연(燕)나라, 진(秦)나라 및 전한(前漢)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sup>16)</sup> 또한 윤내현은 패수를 하북성 난하라고 주장했다.

## 2.3 중심지이동설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낀 식민사학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변형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모두 ‘대동강중심설’에 귀착되고 있어서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위장논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고조선의 강역이 한반도는 물론 만주와 요서지역까지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고대 중국의 1차 문헌사료나 고고학 유물을 근거로 밝혀졌다. 러시아 학자 유 엠 부쥬, 북한학자 리지린, 한국의 윤내현 등이 제시한 고조선의 강역도가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중국의 고대

15) 리지린, 『고조선연구』(영인본), 열사람, 1989, 88쪽.

16) 더구나 후한시기 고구려에는 많은 한인 망명객과 전쟁포로들이 유입되는데 고구려는 전쟁포로들을 바로 평양에 유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일대에서 후한 시기 중국계 유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헌사료는 물론 고조선의 표지유물인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지석묘, 적석총, 복식 등의 분포도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이 한반도 평양일대의 소국이 아니라 만주의 요서지역까지 이어지는 제국이었다고 밝혀냈다. 그러자 이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중심지이동설’이다.

중심지이동설의 요체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함에 따라 점차 한반도 서북부지역, 즉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논리이다. 결국 대동강유역에 있던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망했으므로 한사군은 대동강 유역에 있게 된다는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에 불과한 주장이다.

이동설은 먼저 천관우가 『고조선사·삼한사 연구(1989)』에서 주장했는데 기자동래설에 착안한 견해이다.<sup>17)</sup> 은나라 사람 기자가 주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세력과 이동했는데 처음 정착지가 난하 하류의 고죽국 근처라는 것이고, 기자가 죽은 후에는 그를 따랐던 나머지 세력들이 이동을 계속하여 평양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의 후손들이 평양에 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관우는 “나의 견해로는 적어도 만기(晩期) 기자조선(서기전 4세기 이후)–위만조선–낙랑군은 그 중심지가 대동강 하류가 아니고서는 고대사 전체의 체계의 설명이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18)</sup>”라고 강변하고 있다. 귀납적 사실의 총합으로서 낸 연역적 결론이 아니라 대동강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갖다붙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동설은 또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다. 김정배, 김정학, 이형구 등의 견해가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이들 논리에 대한 검토는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문헌연구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중심지이동설은 단국대 서영수<sup>19)</sup>, 서울대 노태돈<sup>20)</sup>, 한국교원대 송호정<sup>21)</sup>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고대사학계의 중심이론이 되었다.<sup>22)</sup>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지이동설은 1차 사료를 근거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 근거를 토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이리저리 나열한 후 결론은 ‘평양설=대동강중심설’로 귀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심지이동설의 가장 큰 쟁점은 고조선 멸망 당시의 도읍지가 현재의 평양인가 아닌가 하는 점인데, 결국 ‘중심설’이라는 한징어 자체가 고조선의 영역은 오늘날 요하 동쪽인 요동까지 이어진다는 말장난 끝에 그 중심지는 평양이고, 그곳이 바로 한사군 낙랑군의 치소(治所)라는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결국 조선총독부에서 체계화한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이자 변형 논리에 불과하다.

### 3. 중심지이동설의 비판

주목할 것은 ‘중심지이동설’이 고조선 강역이 광대했다는 1차사료가 속속 발표되고, 만주지역에서 고조선 관련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동강중심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변형논리라는 점이다. 즉 중심지이동설은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의 현대판 변형이론에 불과하다. 만주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도읍지가 후기에는 한반도의 평양지역으로 이동해서 멸망했으니 한사군 설치지역은 결국 대동강유역이라는 ‘대동강중심설’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중심지 이동설의 논리를 살펴보자.

19)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일조각, 1988.

20)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21)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22) 본 고에서도 주로 이들 세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17)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78쪽.

18)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 연구』, 85쪽 주, 49).

### 3.1 대동강중심지설의 논리와 한계

노태돈의 고조선 중심지이동설은 대동강중심설의 한계에 대해 식민사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노태돈 자신이 스스로 밝힌대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계속 보고됨에 따라”<sup>23)</sup> 고조선이 한반도 서북부지역, 즉 평양에 있었다는 설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식민사학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제시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일대로 전제한다거나,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를 한반도 내부인 압록강으로 보고, 요동군을 현재의 요하 동쪽으로 보는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서영수는 노태돈보다 조금 복잡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항상 같다. 서영수는 고조선의 위치를 “대동강중심설로 보는 것은 비단 일본의 관학자들의 독창적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견해가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오늘날 학계의 통설로 인정된 것이다.”<sup>24)</sup>라고 일제가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주장된 것이었다는 식으로 식민사학 추종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요동중심설 또한 이미 조선시대부터 논의되어 오던 문제이지 1920년대의 민족주의사학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설혹 서영수의 주장대로 고려 시기 때 주장되었다고 해도 기자 생존 시기보다 무려 2천년도 더 지난 시기에 등장한 이론이면 엄밀한 사료비판을 해야 함에도 서영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면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1차사료적 근거 없는 비난만 가해왔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감정적 논쟁을 지양’

하자고 제안한다. 서영수의 논문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의 ‘머리말’에서는 이러한 속내들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이나 만주지역에서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계속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서는 고조선의 위치나 강역의 문제가 보다 확실하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오히려 고조선사는 과거보다 더욱 혼미해 질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지양하고, 남겨진 자료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sup>25)</sup>

서영수는 위의 머리말에서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 더욱 혼미해 질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당사자들이 바로 일제 식민학자들이자 이병도이고 그 자신들이었음은 은폐하고 오히려 타인이 그런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지양하고”라는 말했는데, 그간 자신들과 견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학계에 있던 학자들에게까지 ‘재야(在野)’라고 비하했던 행태에 대해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간 ‘엄밀한 사료비판에 의한 검증’을 거부했던 것이 누구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서영수가 같은 대학교 교수였던 윤내현에 대해서 비판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서영수의 태도를 살펴보자. 그는 윤내현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도출한 사료해석에 비약이 심한 것으로 보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윤내현)는 리지린의 난하=요수설을 따르는 동시에 패수, 열수를 모두 난하로 본 까닭에 『사기』의 기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23) 노태돈, 앞의 논문, 3쪽.

24) 서영수, 앞의 논문, 19~20쪽.

25) 서영수, 위의 논문, 20쪽.

비판하고, ‘그는 연장(燕將) 진개(秦開)가 서쪽으로 2천리를 쳐서 경계로 삼았다는 만변한도 진개의 출발지점에 가까운 난하 근처에 두었다. 『위략』과 『엄철론』의 표현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비판하고, ‘그의 역사 지리 연구가 대체로 중국의 동방 주군(州郡)이 서쪽으로 이치된 이후에 기록된 후대의 주석 자료와 원사료를 구별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도 비판했다.<sup>26)</sup>

그러나 ‘엄밀한 사료비판’은 팽개치고 ‘남겨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고조선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한 것은 서영수 자신이었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으로 아무런 1차사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윤내현을 비난한 것도 서영수 자신이었다. 서영수가 주장하는 요동의 위치, 패수의 위치, 낙랑군의 성격, 양평의 위치 등은 모두 1차사료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남겨진 자료의 자의적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서영수고, 노태돈이고, 송호정이고 그 공통된 특징은 1차사료를 통한 근거제시는 없고 일방적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노태돈과 서영수가 만든 중심지이동설이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고학으로 이를 포장해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송호정의 논리이다. 송호정은 고조선에 관한 중국의 문헌사료인 『사기』 「조선열전」, 『삼국지』 「오환선비동이 전」에서 인용한 『위략』과 『관자』, 『산해경』, 『전국책』 등을 장황하게 열거한 다음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실체가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하였고,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적·유물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다.”<sup>27)</sup>라고 주장했다. 과거 같이 자신들이 학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 관련 없는 문헌사료를 나열해 놓고 ‘고조선은 평양일대에 있었던 소국(小國)이었다’라고 썼겠지만

이제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고고학으로 도망간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정확하게 ‘고조선중심지 이동설’로 귀결된다. 송호정은 “이 주장(중심지이동설-필자)은 종래의 평양중심설과 요동중심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위략』 등 문헌 사료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요녕식 동검 등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28)</sup>고 서로 띄워주고 있지만 아무런 1차사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송호정은 “고조선의 초기 단계를 가리키는 단군조선과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지배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건국신화이지 실재한 역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단군을 부인함으로써 한국사의 시작을 부정했던 조선총독부의 주장과 복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고조선사 전공자라는 학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고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선총독부와 같은 것이다.

나아가 송호정은 “기원전 7~6세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선진문헌에는 연과 세력을 다투는 군소종족으로 산용(山戎)을 중심으로 영지(令支)·고죽(孤竹)·도하(屠何) 등이 보인다. 이 종족들은 기원전 8~7세기를 전후한 춘추시대 초·중기에는 세력이 상당히 강성하여 ‘연을 병들게 하거나, 산용이 연을 넘어 제나라를 정벌하자 제(齊)의 희공(釐公)이 교외에서 맞아 싸웠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고조선이라고 설명해야 할 부분에 산용, 동호 등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다.

26) 위의 논문, 32~34쪽 참조.

27) 송호정, 앞의 논문, 28쪽.

28)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1쪽.

### 3.2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노태돈은 그의 논문에서 먼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 거론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역도원의 『수경주』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A)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을 나와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sup>29)</sup>

B) 서한 무제 원봉 2년(서기전 109)에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를 파견하여 우거를 토벌하였는데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흘렀다면 위만이나, 양복, 순체가 패수를 건넌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읍치(도읍)였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사신을 방문하여 물어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고구려 도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강은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로서 서한의 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패수가 서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서』 「지리지」에 말하기를 패수는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한나라가 일어났으나 조선이 멸기 때문에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근래에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들은 것과 옛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수경』의 기록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수경』이 잘못 고증한 듯하다.<sup>30)</sup>

한반도에는 『수경』에서 말하는 대로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는 큰 강이

29) 『수경』 ‘패수’ 涇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涇縣，東入於海。

30) 역도원, 『수경주』 ‘패수’ 漢武帝元封二年，遣樓船將軍楊仆、左將軍荀彘討右渠，破渠於涇水，遂滅之。若涇水東流，無渡涇之理。其地今高句麗之國治。餘訪番使，言城在涇水之陽，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涇水西至增地縣入海。又漢興，以朝鮮為遠，循遼東故塞，至涇水為界。考之今古，於事差謬，蓋《經》誤證也。

없다. 낙랑군을 현재의 대동강 일대로 비정하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에<sup>31)</sup>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걸렸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원 사료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식민사학의 습성대로 이병도는 『수경』 원저자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동(東)’은 ‘서(西)’의 오류라고 했다.<sup>32)</sup> 옛날 같으면 이런 방식이 통했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노태돈은 “(A) 기사의 올바른지 여부와 패수가 어느 강이냐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두고<sup>33)</sup>” 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음대로 원 사료를 곡해하기는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병도처럼 『수경』 원문을 버리고 『수경주』로 돌아간다. 노태돈은 역도원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을 위만조선의 왕험성으로 착각했다는 단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수경주』의 잘못된 주석을 근거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 된다.’고 확증하였다. 노태돈은 “5세기말 6세기초에 북위를 방문하였던 고구려 사신의 견해로 볼 때,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 된다. 이때의 패수는 대동강을 가르킨다는 데에 대해선 이론(異論)이 없다.<sup>34)</sup>”라고 식민사학 특유의 우기기를 동원한다. 그 자신이 패수는 압록강이라고 비정해놓고도 ‘패수=대동강’이라고 또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론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으니 그 자신이 패수를 압록강으로 비정

31) 일찍이 이병도는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에 자리한 토성을 위만조선의 왕험성이라 하고, 그곳을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설은 1913년 일인학자 세키노(關野貞)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세키노는 ‘망명·포로한인’들의 수용소 혹은 거주지로 보이는 토성을 위만조선의 왕험성으로 꾸밀 때의 광경을 자신이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즉 “대정2년(1913) 9월 23일 대동강변의 토성을 답사하였다. 과연 토축의 성벽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漢式의 瓦片 십 수개를 채집하였다. 30일, 우리는 평안남도 내무부장 篠田治策씨와 함께 평양세관의 小汽船을 타고 대동강을 流下하여 신발건의 토성을 보고, 다수의 한식 외당을 채집하였다. 이 지점이 낙랑군시대의 고분 산포지역의 중심점에 위치한 것.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勝地인것. 漢 대의 양식을 가진 다수의 기와 파편과 벽돌조각을 얻은 것 등의 事로써 이곳이 한 대 낙랑군의 치소였다고 推想하고 의외의 발견에 크게 기뻐하였다. (『낙랑군시대의 유적』《고적조사 특별보고서》 제4호, 1927년 3월 조선총독부 발행, 문정창, 『한국고대사연구 평』, 백문당, 1976, 48~49쪽에서 재인용)

32) 이병도, 『패수고』, 『청구학총』 제13호, 131쪽.

33) 노태돈, 앞의 논문, 6쪽.

34) 위의 논문, 6쪽.

한 것은 ‘이론’ 축에도 못 든다는 말인가? 이른바 ‘고조선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 3.3 고고학 출토 유물

#### 3.3.1 애하(愛河) 하구 출토의 기와편 명문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문제

1976년 압록강의 지류인 애하 하구의 삼각주 상의 유적에서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이라고 쓴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한(漢) 대의 것으로 비정한다는데, 노태돈은 이 기와편에 대해서 “이 명문의 ‘안평(安平)’은 지명이고 ‘낙미양(樂未央)’은 한(漢) 대에 흔히 쓰였던 길상구(吉祥句)이다. 이 와당이 출토된 지점은 곧 한 대의 요동군 서안평현의 유지임을 말해준다.<sup>35)</sup>”라고 주장했다. 서(西)자는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안평’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안평과 같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나마 그것도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학자 조신(曹汛)의 글<sup>36)</sup>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노태돈의 결론은 “이렇듯 한 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동 지역에 있었고, 그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지역에 있었다면,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해진다.<sup>37)</sup>”라고 단정 짓고 있다. 앞부분은 ‘있었다면’이라고 조건부로 말해놓고는 결론은 ‘분명해진다’라고 결론짓는 자기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두가 말했듯이 여기에 보이는 안평(安平)은 지명이 아니라 길상구(吉祥句) 류의 하나이다.<sup>38)</sup> 미양(未央)이라는 말은 아직 정상에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장락(長樂)이나 안락(安樂)과 같은 길상구인 것이다.

안평을 서안평현이라고 확대해석해서 서안평을 단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병도의 자기마음대로 위치비정을 따른 것이다. 『요사』 「지리지」에서 지금의 내몽골 파림좌기인 요나라 상경 임황부를 한나라 때 요동 서안평이라고 쓴 것<sup>39)</sup>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서안평을 찾으려면 ‘안평’자가 나온 와당의 출토지 서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지으니 그 논리의 공색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 3.3.2 평양 토성동 일대의 봉니 문제

평양일대에서 출토된 봉니는 주류사학자들이 평양일대를 낙랑군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노태돈 역시 봉니에 대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서의 도착 지점이 아니라 발송처인 군치(郡治)에서 봉니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봉니가 문서의 발송 뿐 아니라 보관에도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한 대의 다른 군치에서도 그 군의 태수의 봉니가 출토된 예를 지적한 견해는 의미를 지닌다.<sup>40)</sup>”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른바 ‘낙랑 봉니’가 출토된 지역이 곧 낙랑군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일찍이 정인보는 평양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봉니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조목조목 밝혔으며,<sup>41)</sup> 또 윤내현은 봉니나 명문기와 등의 연대도 한사군 설치 연대보다 훨씬 후대인 후한 또는 서진시기 것으로서 이를 한사군의 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sup>42)</sup> 또한 북한 지역에서 해방 전 봉니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곳과 다른 여러 지역을 집중 발굴했지만 단 한 점의 봉니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요녕성 금서시 연산구의 옛 성터에서 ‘임둔태수장’이 수습된 것도 무

35) 노태돈, 앞의 논문, 8쪽.

36) 曹汛, 「愛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1980년 6기.

37) 노태돈, 앞의 논문, 8쪽.

38) 李秉斗, 「요동 · 현도군의 위치」, 백산학회편, 『고조선 · 부여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5, 197쪽 참조.

39) 『요사』 「지리지, 상경도」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西安平之地 新莽曰北安平. 서안평은 현재 내몽골 파림좌기 부근이며 미천왕이 서쪽의 현도, 낙랑을 공격할 때 지나던 루트가 된다.

40) 노태돈, 앞의 논문, 10~11쪽.

41) 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196~214쪽,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에서 재인용.

4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 일지사, 1986, 331~337쪽.

시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를 계승한 식민사학계는 임둔군을 현재의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녕성 서쪽에서 임둔태수장이 나온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3.4 연·진 장성의 동단(東端)문제

일체의 문헌사료가 부족하고 고고학 사료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자 근래에는 이른바 ‘연·진 장성’이란 허황된 논리에 기대고 있다. 노태돈은 연·진 장성의 동단에 대해서 요동설, 낙랑군 수성현설, 요서설 등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sup>43)</sup>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노태돈의 논문을 살펴보자.

요령성지역의 장성 유지는 두 개의 줄기를 이루며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북쪽 성벽의 유지는 화덕현 동쪽에서 영금하 북안을 거쳐 적봉, 오한기, 고륜의 남쪽 등을 거쳐 부신현 동쪽에 이르며, 남쪽 성벽은 객나심기와 적봉 남부를 거쳐 노합하를 넘어 건평현 북부와 오한기 남부를 지나 북표현에 이른다. 능선을 따라 전개되어 있는 긴 성지의 자취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리고 장성의 자취가 이어지는 군데군데에 요새가 존재하였고 그곳에서 연, 진, 한 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sup>44)</sup>

마치 두 줄기 뻗어있는 연·진 장성의 실물을 대하듯이 묘사하고 있는 위의 글은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는 주류사학자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

두르는 단골 메뉴이다. 그런데 “능선을 따라 전개되어 있는 긴 성지의 자취”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군데군데 존재하는 요새”를 무슨 근거로 연·진 장성의 요새로 단정 짓는지 그 근거로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국학자들의 논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이유도 밝혀주기 바란다. 노태돈은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원거리에 걸쳐서 축조된 장성의 유지로 보아야만 한다.<sup>45)</sup>”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사기』에서 전하는 연·진 장성의 동단이 오늘날 요하선에 이르렀음은 실물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연·진대의 장성이 요서의 갈석산에 이른다는 설과 그것을 전제로 한 낙랑군 및 고조선의 중심지의 위치에 대한 비정은 부정된다<sup>46)</sup>”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식민사학에는 불리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지극히 유리한 『사기』 「하본기」 주석의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된다<sup>47)</sup>”는 1차사료를 부인하면서 ‘연·진 장성이 갈석산에 이른다’라는 윤내현의 설<sup>48)</sup>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내현은 몽염이 축조한 진나라 만리장성이 갈석까지 이르렀으며, ‘진 장성의 동단이 원래의 연 장성이었다’라는 내용을 『진서』 「지리지」, 『사기』 「몽염열전」, 『사기』 「진시황본기」, 『사기』 「흉노열전」, 『후한서』 「원소유표열전」과 그 주석 등의 1차 사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sup>49)</sup> 노태돈은 이런 1차 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허황된 ‘연·진 장성’을 근거로 모두 부정하고 있는 비학문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실물유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중심지이동설’을 유지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43)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1  
劉謙, 1982 「遼東長城考查」, 《遼寧大學學報》 82-5  
遼寧省長城學會, 1996 「遼寧長城」, 瀋陽

44) 노태돈, 앞의 논문, 12쪽.

45) 위의 논문, 12쪽.

46) 위의 논문, 12~13쪽.

47) 『史記』 「夏本紀」: 太康地理志云「樂浪遼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48) 윤내현, 앞의 책, 312~314쪽 참조.

49)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222~231쪽 참조.

수행하는 중국의 어용학자들이 고안한 ‘연·진 장성’에 목을 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진 장성은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의 어용학자들이 고안한 이론일 뿐 아무런 실체도 없다.

만약 연·진 장성이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로 쌓았던 것일까? 명나라 때 산해관까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중국의 동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서 방향으로 두 줄기 쌓았다는 연·진 장성의 남쪽지역은 발해로 흐르는 요하, 대릉하 등 이른바 구하(九河)라고 불리는 물줄기가 연속되는 늪지대이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퇴각하면서 고전하던 최대의 늪지가 이곳인데, 과연 이런 지역을 지키기 위해 동·서 방향으로 원거리의 장성을 쌓았다는 말인가? 습지를 지키기 위해 원거리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는 것인가? 백 번 양보하여 연·진 장성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막대한 비용과 이를 지킬 수많은 군사는 어떻게 유지시켰는가? 한마디로 허황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구려는 모본왕 2년(서기 49) 북평·어양·상곡과 태원을 공격하였고<sup>50)</sup>, 태조왕 3년(서기 55)에는 요서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는<sup>51)</sup> 기사가 나온다. 성을 쌓은 것은 고구려였다.

노태돈은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진서』 「지리지」와 두우(杜佑)의 『통전』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진 장성이 수성현에 미친다는 기록은 『태강지리지』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진(秦)의 세력이 한반도의 서북부 깊숙이 뻗었던 것이 된다.<sup>52)</sup>”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진 장성의 축조 목적에서 볼 때 …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까지 진이 장성을 축조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sup>53)</sup>”라고 횡설수설했다. 수성현은 지금의 하북성

창려현 일대에 있었는데 진 장성이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진(秦)의 세력이 한반도의 서북부 깊숙이 뻗었던 것’이 되는가? 그래놓고는 왜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까지 진이 장성을 축조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라고 횡설수설하나? 결론은 조선총독부와 이병도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을 추종하다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은 연·진 장성의 유적에 대해 더욱 확고한 주장을 펼친다.

특히 연·진 장성의 위치는 요녕성 북부일대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끝으로 되어 있는 양평(襄平)은 현재의 요하 이동의 요양(遼陽)으로 비정되고 현재 장성 유적 또한 요하일대까지 나온다고 한다. 현장답사 결과 연·진 장성은 요서지역에서 그치고, 요하 일대는 보루나 초소 형태의 시설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sup>54)</sup>

송호정은 ‘연·진 장성’의 실체를 파악하면 고조선의 강역을 부인할 수 있으리라는 떨리는 가슴으로 현장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요녕성 북부일대’ 어디에 ‘연·진 장성’의 ‘뚜렷한 흔적’이 있는지 구체적 지명을 좀 가르쳐주기 바란다. 또한 요하 일대의 어떤 ‘보루’나 ‘초소’가 있으며, 설혹 있다한들 그것들을 무슨 근거로 2천년도 훨씬 전의 ‘연·진 장성’으로 확인했는지 그 근거도 좀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자문해보기 바란다.

50) 『삼국사기』권제14, ‘모본왕본기’ 二年 春 遣將襲漢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蔡彤{蔡彤} 以恩信待之 乃復和親

51) 『삼국사기』권제 15, ‘태조대왕본기’ 三年 春二月 築遼西十城 以備漢兵

52) 노태돈, 앞의 논문, 14쪽.

53) 위의 논문, 15쪽.

54) 송호정, 앞의 논문, 52쪽.

### 3.5 위치 비정 문제

#### 3.5.1 왕검성의 위치

일제강점기 이래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을 현재의 평양일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병도를 거쳐 현재 한국 사학계의 중추를 이루는 식민사학계에서 하나뿐인 정설이라고 강변해왔다. 노태돈은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sup>55)</sup>”라는 비학문적 희망사항을 피력한 후 “왕검성은 대동강 북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sup>56)</sup> 주장하고 있다.

고조선의 도읍지로 알려진 왕험성은 이병도의 스승인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가 패수를 대동강으로 전제하고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동의 토성을 조선현의 치소라고 비정한 데서 시작되지만<sup>57)</sup> 식민사학의 대부분의 논리들이 그렇듯이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다. 이 경우 고고학이 전가의 보도로 악용된다. 대동강 남안에서 ‘한식와편(漢式瓦片)과 벽돌 그리고 고분’ 등을 발견했다면서 이 지역을 낙랑군의 치소라고 주장한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사기』 「조선열전」에서 ‘연나라 사람 위만이 동쪽으로 새외(塞外)를 나와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읍했다<sup>58)</sup>’라는 문헌 기록에 꿩맞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대동강 남안으로 비정한 것이다.

서영수 또한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기』의 왕험성(王險城)은 패수 이동 진고공지(秦故空地) 이남에 있었던 위만조선의 도읍지로,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조선현이 분명하다.<sup>59)</sup>”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 서영수는 패수는 요동에 위치했다면서도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이나 난하 동쪽에서 찾는 북한의 리지린이나 윤내현의 견해는 비판하면서<sup>60)</sup> 평양이 왕험성이라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21세기에 조선총독부의 결론에 맞추려니 앞뒤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송호정도, “평양부근에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61)</sup>”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라면서 조선총독부의 결론을 그대로 반복한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으로 미리 전제하고 입을 맞춰가는 것이다.

#### 3.5.2 패수의 위치

노태돈은 패수는 난하설, 대릉하설, 압록강설, 청천강설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가운데 윤내현의 난하설과 이지린의 대릉하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sup>62)</sup> 앞에서 살펴본대로 ‘연·진장성이 오늘날의 요하에 이르렀다’는 허황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연·진의 요동군은 요하 동쪽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펼치는 주장이다. ‘연·진 장성’이 근거가 없다면 노태돈의 모든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태돈은 스승인 이병도가 주장하는 ‘패수가 청천강’이라는 설을 고고학적 출토 유물을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패수를 양평과 청천강 사이의 강이라면서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비정했다.<sup>63)</sup> 『한서』 지리지 ‘현도군 서개마현’의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합류하고 염

55) 노태돈, 앞의 논문, 22쪽.

56) 위의 논문, 23쪽.

57)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第 21 篇 第 2 号

58) 『사기』 권 115 ‘조선열전’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 為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為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為界, 屬燕。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 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59) 서영수, 앞의 논문, 45쪽.

60) 위의 논문, 31~34쪽.

61) 송호정, 앞의 논문, 53쪽.

62) 노태돈, 앞의 논문, 26쪽.

63) 위의 논문, 29쪽.

난수는 서남으로 흘러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sup>64)</sup>”는 기사 가운데 염난수를 혼강(渾江)으로, 마자수(馬訾水)를 압록강으로 자의적으로 비정하면서도 마자수가 흐르는 방향이 서북(西北)이 아닌 서남(西南)의 착오라고 식민사학 특유의 1차사료 방향바꾸기를 동원한다<sup>65)</sup>. 마자수를 현 압록강으로 비정하려면 압록강이 서남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논리라고 하기에다 낮부끄러운 삼류소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사학계의 논리와 폐단이란 이런 것이다.

한편 서영수는 고조선이 한반도로 이동하기 전에는 그 서쪽 강역이 대릉하(大凌河)유역이었다면서<sup>66)</sup> 전향적으로 보는 척 흉내를 냈다. 서영수의 경우 고조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사료를 열거하고 있다.

조선왕 만(滿-위만)은 옛날 연(燕)나라 사람이다.

(A) 연나라의 전성기에 처음으로 진번,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장새(鄣塞)를 쌓았다.

(B) 진(秦)이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의 외요(外徼)에 소속시켰는데,

(C) 한(漢)이 건국하여서는 그곳(요동외요)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고새(故塞)를 수리하고 패수(溟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아 연(漢의 侯國)에 부속시켰다.

(D) 연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갈 때에 만도 망명하였는데, 동쪽으로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空地)에 있는 상하장(上下鄣)에 살면서 점차 진번(眞番)과 조선(朝鮮) 오랑개 및 연·제(燕·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

고 …

(E) 고조선의 준왕을 쳐서 왕이 되었으며, 왕험(王險)에 도읍을 정하였다.

(F) … 진번(眞番), 임둔(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였다.<sup>67)</sup>

즉 “사료 (A)에서 연이 복속시켰다는 조선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라 고조선 영토의 일부이며, 이로부터 거꾸로 추정하면 서기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서쪽으로 대릉하유역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늘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대동강중심설’로 내려진다.

송호정도 노태돈처럼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았는데<sup>68)</sup>, 노태돈처럼 ‘안평낙미양(安平樂未央)’ 명문 와당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sup>69)</sup>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인 학자의 논문이 이른바 ‘중심지이동설’을 주장하는 한국인 학자들에게는 복음이었다. 송호정은 “『사기』 「조선열전」에는 고조선과 경계로 된 패수가 이전에는 청천강(淸川江)이었는데 한대(漢代)에 와서 요동고새(遼東故塞)와 그 옆에 있는 압록강(鴨綠江)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70)</sup>”라고 패수의 위치가 청천강과 압록강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 자신의 근거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3.5.3 만번한(滿潘汗)의 위치

노태돈은 그의 논문에서 『위략』에 의하면 ‘고조선은 연나라에게 그 서쪽 영토 2천여리를 상실하고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기록을 소개하면서 만번한을

64) 『한서』지리지 ‘현도군 서개마현 馬訾水西北入鹽難水西南至西安平入海

65) 노태돈, 앞의 논문, 30쪽 주, 68).

66) 서영수, 앞의 논문, 42쪽.

67) 『사기』권115. ‘조선열전’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秦滅燕, 屬遼東外徼.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溟水爲界, 屬燕.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王之, 都王險. … 眞番, 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68) 송호정, 앞의 논문, 55쪽.

69) 위의 논문, 53쪽.

70) 위의 논문, 56쪽.

『한서』 「지리지」에 의거하여 요동군 속현인 문현(汶縣)과 번한현(潘汗縣)으로 비정하고 있다.<sup>71)</sup> 노태돈은 “한대의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가 청천강이었고, 연(燕)과 후기 고조선의 경계도 청천강이었으니 자연 만번한 즉 문·번한 두 현의 위치도 청천강유역 언저리에서 일단 찾아야 될 것 같다.”<sup>72)</sup>고 주장하고 있다. 요동군을 한반도 내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 더 한 망설이다. 그러면서도 결론 부분은 모호하다. 노태돈의 논리를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요동지역 중 어느 곳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는가를 살핌에 있어서, 서기전 3세기 초 고조선과의 첫 충돌에서 연군(燕軍)의 진출선(進出線)인 만번한은 문·번한의 두 현을 연칭(聯稱)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개평현과 해성현 서남쪽을 포괄하는 지역이 그것이었다. 이 만번한 지역은 고조선의 중심부이었거나 중심지의 동쪽 외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즉 서기전 4세기 이전의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개평현과 해성현 서남쪽을 포괄한 지역 어느 곳이었다고 여겨진다.<sup>73)</sup>

만주의 개평현과 해성현 일대에 있던 만번한이 고조선의 국경이었다가 청천강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인데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의 출토 유물의 특성에 따른 견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의 어떤 점 때문에 청천강으로 이동했다고 보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자신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논리일 뿐인데.

서영수의 경우 앞에 제시된 사료를 통해 요동과 만번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료 (D)의 ‘진고공지(秦故空地)’를 단순히 진과 고조선의 완충지대가 아

니라 진의 요동외요(遼東外徼)에서 관할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그런데 서영수는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한 후 연의 동쪽 경계인 요동의 만번한에 있었다는 천산산맥을 넘어 1백여 리의 고조선 영토<sup>74)</sup>까지 잠식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다고 주장했다.<sup>75)</sup> 진나라가 지금의 압록강유역까지 진출했다는 1차적 문헌사료는 당연히 없다. 아마 전 세계 역사학계에서 단 하나의 1차사료도 없이 이렇게 자국에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지금은 물론 유사 이래 없었을 것이다. 서영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영수는 후대의 요동군치가 되는 양평(襄平)의 위치를 오늘날 요하의 동쪽에 있는 요동군의 군치(郡治)로 이해하고 있다.<sup>76)</sup>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의 장성이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에 이르렀다고 말했고,<sup>77)</sup> 『사기』 「몽염열전」에서는 장성이 임조(臨洮)에서 요동(遼東)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sup>78)</sup> 즉 장성의 동쪽 끝을 요동 또는 양평이라고 한 것인데 이 두 곳은 같은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고대의 요동과 현재의 요동이 다르다는 전제를 무시하고 오늘날의 요동으로 마음대로 비정하고, “만약 이 요동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이면, 자연 낙랑군은 그 동쪽인 한반도의 서북부가 된다.”<sup>79)</sup>라고 낙랑군을 평양으로 비정했다. “만약 이 요동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이 아니라면, 자연 낙랑군이 그 동쪽인 한반도의 서북부가 된다는 것은 모두 헛소리가 된다”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74) 여기서 '1백여 리의 고조선 영토'란 고조선의 준왕이 망명해온 위만에게 1백리의 땅을 봉해 주고 고조선의 서쪽 국경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연을 멸한 진나라는 그 땅을 차지하여 고조선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75) 서영수, 앞의 논문, 42쪽.

76) '요동'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오늘날의 요하 동쪽만을 말하는데 요동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말은 시대마다 다른 지역을 의미하였다. (유·엠 부짚/이항재, 이병두 역, 『고조선』, 소나무, 1990, 140쪽) 또한 자연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요동'과 행정구역상의 개념인 '요동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7) 『사기』권 110 '흉노열전'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78) 『사기』권 88 '몽염열전' 築長城 …起臨洮至遼東

79)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50쪽.

71) 노태돈, 앞의 논문, 49쪽.

72) 위의 논문, 49쪽.

73) 위의 논문, 55쪽.

그러면 고대 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양평의 위치는 어느 곳인가? 양평은 요동군에 속한 현이었는데 옛 양평성(襄平城)은 당(唐) 시기의 평주(平州) 노룡현(盧龍縣) 서남쪽에 있었다.<sup>80)</sup>

당 시기의 평주 노룡현은 난하와 그 지류인 청룡하가 만나는 지점 동쪽에 있는 현재의 노룡과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장성의 동쪽 끝으로 기록된 ‘요동’ ‘양평’은 같은 지점이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81)</sup>

또한 이곳이 진의 2세 황제가 대신들을 보내 진시황의 공적을 새기고 오게 했다는 갈석산 부근인데, 사마천은 갈석산을 갔던 사실을 ‘요동에 갔다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갈석산이 진나라 때 요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sup>82)</sup>

송호정의 경우 만변한의 위치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만변한의 위치가 청천강변 박천이라는 이병도의 설과 요동으로 보는 두 가지 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론은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동반도의 천산산맥(千山山脈) 일대까지를 연 장성의 동쪽 경계로 제멋대로 설정해놓고는 요동지역의 장성을 관리하던 중심지를 지금의 요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학자의 연 장성론을 실재사실로<sup>83)</sup> 보고 하위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80) 『후한서』권74하, ‘원소유표열전’ 襄平縣 屬遼東郡 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

81) 李秉斗, 「요동 · · 현도군의 위치」, 201쪽 참조.

82) 『사기』권6, ‘진시황본기’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成功盛德焉: 皇帝曰: 「金石刻盡始皇帝所為也, 今襲號而金石刻辭不稱始皇帝, 其於久遠也如後嗣為之者, 不稱成功盛德。」丞相臣斯、臣去疾、御史大夫臣德昧死言: 「臣請具刻詔書刻石, 因明白矣。臣昧死請。」制曰: 「可。」遂至遼東而還。

83) 馮永謙·何溥濤 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長城學會, 1996 『遼寧長城』, 瀋陽

그러면서도 송호정은 『위략』에 나오는 ‘진개에 빼앗긴 고조선의 땅 2천리’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후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으로부터 낙랑(대동강 유역)까지의 거리가 약 1,400여 리가 된다는 것 때문이다. 고조선이 (요하 동쪽의) 요동으로부터 2천리를 빼앗겼다면 연나라 진개는 대동강에 있었다는 낙랑을 지나 남쪽으로 600여리나 더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이처럼 모든 논리가 파탄나도 결론은 늘 ‘대동강중심지설’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송호정은 “『위략』의 수치는 고조선의 역사지리 문제를 고찰하는데 믿음직한 논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sup>84)</sup>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다르면 원 사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식민사학의 특기이기 때문이다. 송호정은 고조선의 서쪽 땅 2천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리개념이 아닌 ‘매우 넓다는 의미로 보고 싶다’면서<sup>85)</sup>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기원전 4~3세기 중국으로부터 철기문화가 전래되면서 요동지역도 연(燕)의 문화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조선은 이 시기 언젠가 천산산맥 이남의 압록강과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sup>86)</sup>면서 대동강중심설을 주장하고 있다. 압록강이면 압록강이고, 청천강이면 청천강이지 ‘압록강과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이라니 두 강이 동서로 흐르지 않고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송호정은 “한국식동검 등 조선 독자의 청동기가 출토하는 청천강 이남지역이 고조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sup>87)</sup>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조선식동검이라고도 불리는 비파형동검 출토지는 산용이나 동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동강중심설을 주장하기 위해 ‘산용’, ‘동호’, ‘비파형동검’, ‘한국식동검’ 등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지이동설이란 것

84) 송호정, 앞의 논문, 50쪽.

85) 위의 논문, 50쪽, 주, 93) 참조.

86) 위의 논문, 57쪽.

87) 위의 논문, 55쪽.

은 이처럼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기(詐欺)학설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 4. 맺음말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고조선의 실재를 밝히는 것만큼 중요하다. 고조선이 한반도 서북지역이 아닌 요동지역에 있다는 주장은 조선 초·중기부터 권람, 홍여하 등으로 부터 제기되었다. 이들은 고조선의 실재는 물론 그 위치를 요동지역이라고 보았다. 요동중심설은 조선 후기 이익, 박지원, 이규경 등 실학자들이 다시 주장했고 신채호, 최남선, 안재홍, 정인보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시 유 엠 부쥘, 리지린, 윤내현, 이덕일 등에 의해 1차적 문헌 사료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한편 대동강중심설은 고조선의 도읍지가 대동강유역의 평양일대라는 견해인데, 이른바 ‘기자동래설’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 시기 사대주의가 심화되고 소중화(小中華) 사상까지 생겨나면서 기자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단군이나 고조선의 실재까지 의심하지는 않았다. 대동강중심설은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그들의 한국인 제자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는데, 한국사의 시작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눈리가 깊숙이 개재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노골적으로 단군의 실재를 부정하고 한사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동강중심설은 1차사료가 연구되고 고고학적 발굴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문으로서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그러자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중심설의 변형 논리로 중심지이동설을 착안해냈다. 중심지이동설은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는 만주지역이지만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고조선 침략으로 기원전 4~3세기에는 한반도

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으로 대동강중심설이 확장만 다시 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 후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평양에 한사군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1차 사료적 근거는 전무하다.

중심지이동설을 살펴보면, 모두 식민사학의 대동강중심설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되었던 논리들을 미리 전제하고 주장하는 변형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를 오인한 『수경주(水經注)』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문헌사료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애하 하구의 기와편 명문’ ‘연·진 장성’ 따위의 고고학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들의 근거라는 것이 모두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학자들의 그것을 추종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1차사료적 근거가 없다 보니 거꾸로 ‘위치가 분명하다’, ‘축조된 장성의 유지로 보아야 한다’, ‘실물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역시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순리이다’라는 따위의 비학문적인 논리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사료적 근거가 없는 ‘중심지이동설’은 허황된 것임은 물론 조선총독부의 ‘대동강중심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서 하루빨리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기』 「하본기」, 「조선열전」, 「홍노열전」, 「진시황본기」

『삼국사기』 「모본왕본기」, 「태조대왕본기」

『삼국유사』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수경』

『수경주』

『요사』 「지리지」

『한서』

『한서』 「지리지」

『후한서』 「원소유표열전」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리지린, 『고조선연구』(영인본), 열사람, 1989.

문정창, 『한국고대사연구 평』, 백문당, 1976.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일조각, 1988.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 상, 197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 일지사, 1986.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문』, 일지사, 1986.

이병도, 『패수고』, 『청구학총』 제13호.

李秉斗, 『요동 현도군의 위치』, 백산학회편, 『고조선 · 부여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9.

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1947.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담원정인보전집』 3),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천관우, 『고조선사 · 삼한사 연구』, 일조각, 1989.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第 21篇 第2号  
遼寧省長城學會, 『遼寧長城』, 瀋陽, 1996.

劉謙, 『遼東長城考查』, 『遼寧大學學報』 82-5, 1982.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1, 1982.

曹汎, 『靚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

馮永謙 · 何溥滢 編著,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1986.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n the Relocation of the Center of Gojoseon

Kim, Byung-Gi

Making a study of the exact Gojoseon(古朝鮮) central area is a clue that will help us to grasp the facts of Old Choson. This classifies into three large groups; 1) A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大同江). 2) A theory of a central place based on Liaodong (遼東, East of Liao River). 3) A theory of movement of Gojoseon central area.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ans emphasized a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to insist that the Korean history originated from the Chinese colony, which took root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academic circles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The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Liaodong regards as the advocacy that the seat of Gojoseon government was located on Liaodong. This theory was claimed by the scholars of realistic school of Chosŏn such as Lee ik, Park jiwon, and the historians such as Shin chaeho, Jung inbo who was tinged with nationalism.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which is insisted in recent years, the central area in the early years was in Liaodon, but the areae was mov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asin of the Taedong River in the later days. The former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was investigated in the first historical records, and the archaeology excavation has been discovered so that the main-stream of academic circles takes notice of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as a transformational theory. They use archaeological materials of ‘writing tiles of Aeha River(爨河)’, ‘Yonjin great-walls(燕秦長城)’ as a foundation. This way of thinking is closely followed in the opinion of the scholars who are carrying out ‘Tongbuk Poject(東北工程) of China.

Thus, the theory of movement of central area is merely a transformational logic in name only to maintain the theory of a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which is enforced by the Chosŏn government-general(朝鮮總督府).

**Key Words** : Gojoseon, A theory of central area based on Taedong River, A theory of central area based on Liaodong(East of Liao River), A theory of movement of Gojoseon area, Yon chin great-walls

『역사와 융합』 제 1집(2017. 12)

## 낙랑군(樂浪郡) 조선현(朝鮮縣)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평양설 및 대동강설 비판—

이 덕 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차례 —

1. 머리말
2. 조선현의 위치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견해
3. 패수의 위치와 해방 후의 견해들
4. 낙랑군 조선현을 평양으로 보게 된 과정
5. 중국 사료가 말하는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6. 맺음말

### 【국문초록】

한사군 중에서도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다. 낙랑군 조선현을 어디로 비정하는가에 따라서 한국 고대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낙랑군 조선현을 지금의 평양일대라고 비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및 조선의 일부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 후기의 다른 유학자들은 낙랑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역사학을 전공한 독립운동가들에게 계승되었다.

이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은 낙랑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쓰여진 당대의 역사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낙랑군 조선현을 현재의 평양으

로 보게 된 것은 12세기 경 고려 후기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은나라 사람 기자가 주나라 무왕을 피해 간 곳을 지금의 평양으로 여긴데서 비롯되었다. 기자는 서기 전 12세기 사람이니 사후 2400여년 후에 평양에 온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섰고, 그 자리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인 현재의 통설이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는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선 것은 낙랑군 조선현이고, 위만 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선 것은 요동군 협독현이라고 군(郡) 자체가 다르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여러 고대 사료들은 낙랑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낙랑군 조선현은 명·청 때의 영평부, 즉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북쪽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 70리에 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북쪽에 있었고, 그 북쪽에 장성이 있었다.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평양에 있지 않았다.

(주제어) 낙랑군, 조선현, 조선총독부, 기자, 평양, 노룡현

## 1. 머리말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고, 현재까지도 한·중·일 사이의 역사현안이기도 하다. 낙랑군의 위치에 따라서 동북아 고대사의 강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랑군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랑군의 치소(治所)였다는 조선현(朝鮮縣)의 위치이다. 위만 조선의 수도 왕협성에 세운 것을 조선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현의 위치를 찾으면 낙랑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한사군(漢四郡)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두 종류의 관점이 있어왔다. 하나

는 한반도 내, 특히 평양 일대에서 찾는 견해로서 고려 중기 이후 사대주의 유학자들과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확정지은 견해였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한국 사학계의 통설(通說)이다. 다른 하나는 낙랑군 조선현이 현재의 만주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조선 후기 일부 유학자들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가자들의 견해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역사강역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요한 근거가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의 강역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폭발성을 갖게 된다. 한국은 해방 후 조선총독부 사관, 즉 일제 식민사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는 설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한사군의 핵심인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당대의 1차사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조선현의 위치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견해

전술한대로 한국 사학계는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土城洞) 토성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게재하고 있었다.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험성(王險城)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패수(溟水)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왕험성 및 조선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列水)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고조선조’)」<sup>1)</sup>

대한민국 정부의 국고(國庫)로 운영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위 문장은 두 가지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험성(王險城)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것이다. 종래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자리에 낙랑군 조선현을 설치했다고 보았는데, 이 둘을 분리해서 왕험성은 ‘대동강 북안’,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안’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위만 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과연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라고 특정할만한 문헌사료나 고고학적 사료가 뒷받침되고 있을까?

1) 이는 2009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라는 항목으로 실렸던 ‘고조선조’의 내용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내렸다.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 수사관(修史官)<sup>2)</sup>이자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병도는 1976년 간행한 신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研究)』의 「낙랑군고(樂浪郡考)」에서 이렇게 말했다.

“낙랑군은……그 수부(首府:首縣)의 이름이 조선현(朝鮮縣)인만큼 지금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종래에 별로 이론(異論)이 없었다. 또 낙랑군이 한사군 중의 중추적인 구실(役割)을 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sup>3)</sup>

낙랑군 조선현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내린 결론인가 하는 점이다. 이병도는 ‘조선현이 지금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종래 별로 이론(異論)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병도는 자신의 견해를 서술할 때 ‘이론이 없다’ 같은 비학문적 방식을 자주 선택하는데, 이 문장은 아마도 고려 중기 이후 사대주의 유학자들의 견해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사대주의 유학자들은 낙랑군 조선현을 평양이라고 보았지 ‘대동강 유역’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병도도 같은 글에서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治所:首府)로 그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던만큼 중요한 현이거니와, 흔히 이 현명(縣名)으로 보아 위씨조선의 수부인 왕험성(王險城), 즉 지금의 평양이라는 설이 유행되었다”<sup>4)</sup>라고 썼다.

그런데 조선 후기 김정선(金景善:1788~1853)은 순조 32년(1832)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쓴 사행록(使行錄) 『연원직지(燕輶直指)』에서 왕험성을 현재의 평양이 아니라고 서술했다.

2) 이는 이병도 자신이 부친의 묘지명에 조선총독부 수사관이라고 새긴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3) 李丙燾,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초판, 여기서는 중판(2001년) 133쪽. 앞으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중판을 텍스트로 사용할 것이다.

4)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40쪽.

『당서(唐書:구당서)』를 상고하니, “안시성(安市城)은 평양성과 500리 거리인데, 봉황성을 또한 왕검성(王儉城)이라 일컫는다”고 말했다. 『지지(地誌)』에도 “봉황성을 평양이라 칭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또 『지지(地誌)』에, “옛 안시성은 개평현(蓋平縣) 동북쪽 70리에 있다. 개평현에서 동쪽으로 수암하(秀岩河)까지가 300리이고, 수암하에서 동쪽으로 200리가 봉황성이 된다”고 했다. 만약 여기(봉황성)가 옛 평양이라 한다면, 『당서』에서 500리라고 칭한 것과 서로 맞는다.(김경선, 『봉황성기』『연원지』)<sup>5)</sup>

조선후기 인물인 김경선은 평양성을 현재의 평양이 아니라 현재의 요녕성(遼寧省) 봉황시(鳳凰市)에 있는 봉황성(鳳凰城)이라고 보았고, 여기를 왕검성으로 보았던 것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조선사연구(朝鮮史研究)』 上에서 “왕검성(王儉城)인 조선현이 지금 평양과 원래 무관(無關)<sup>6)</sup>하다고 서술했다. 조선 양명학의 전통을 이은 이견방(李建芳)을 사사한 정인보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그러나 이병도는 이런 견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낙랑군 조선현=대동강 유역설=현재의 평양설’을 일반화 시켰다. 그러면서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평양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력한 문헌과 더욱이 일제 초기 이래 발굴·발견된 많은 유

5) “按唐書，安市城距平壤五百里，鳳凰城亦稱王儉城。地誌又以鳳凰城稱平壤，未知此何以名焉。又地志，古安市城在蓋平縣東北七十里，自蓋平東至秀岩河三百里，自秀巖河東至二百里爲鳳凰城。若以此爲平壤，則與唐書所稱五百里相合。”(金景善, 『燕輶直指』, 『鳳凰城記』)

6)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鷹園 鄭寅普全集』,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177쪽. 이 책은 2012년 우리역사재단에서 문성재(文盛哉) 역주의 『오천년간 조선의 얼, 조선사연구』 上, 이란 제목으로 보다 읽기 쉽게 재출간되었다.

물·유적으로 인하여 조선현 평양(故王險城)설은 부인되고 말았다.(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sup>7)</sup>

그간 별로 이론이 없었던 ‘조선현=현재의 평양설’은 부인되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병도는 ‘다른 유력한 문헌’과 ‘일제 초기 이래 발굴·발견된 많은 유물·유적’을 들었다. 이병도는 ‘조선현=평양설’을 부인하고, 이설과 양립하고 있던 ‘조선현=요동설’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북쪽의 평양이 아니라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병도는 뒤이어 이렇게 단정했다.

“과연 일제초기로부터 일인(日人) 조사단에 의해서 대동강 남안인(대동면) 토성리(土城里) 일대가 낙랑군치(樂浪郡治)인 동시에 조선현치(朝鮮縣治)임이 그 유적·유물을 통하여 판명되었다……낙랑의 유적과 유물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이 대동면(大同面) 토성리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집중된 감이 있다. 이로써보다도 이 일대가 낙랑군치(樂浪郡治)인 조선현의 소재지였던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sup>8)</sup>

일제 초기 일본인 조사단, 즉 조선총독부 조사단이 대동강 남안의 토성리 일대를 낙랑군치, 즉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라고 비정했는데, 이병도는 “판명되었다”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토성동 토성을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유적·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성의 흔적과 와당과 벽돌 몇 편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왜 지금의 평양을 위만조선의 수도라고 보던 견해를 세분해서 대동강 북안의 평양과 대동강 남안의

7)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40쪽.

8) 위의 책, 140~142쪽.

토성동으로 나누어보았을까? 그 해답은 이병도의 스승인 이나바 이와기치(稻葉 岩吉)에게 있다. 조선총독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조선사(朝鮮史)』 35권을 편수(編修)했던 이나바 이와기치는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에서 위만조선과 한(漢)의 경계였던 패수(溟水)의 위치에 대해 “패수란 지금의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sup>9)</sup>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기』 「조선 열전」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 동쪽으로 새외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읍했다’<sup>10)</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만이 남쪽으로 패수를 건넌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건넌다는 사실은 둘째치고라도 이른바 실증주의에 의한 문헌비판을 하다 보니 왕험성이 패수 건너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다보니 대동강 북쪽에 있는 평양을 위만 조선의 수도인 왕험성으로 비정하기 곤란했다. 그래서 대동강 남쪽에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를 찾기 시작했고 토성동에서 토성 흔적과 와당과 벽돌 몇 편이 나오자 조선현 치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라는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다보니 고고학을 끌어들이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쿄제대 공대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등장하는데 그가 1915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서 대동강 남쪽 토성리를 낙랑군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조선고적도보』는 ‘낙랑군 치지(治址)’란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의 토성동(土城洞)은 대동강 좌안(左岸)에 있는데,

9) 이나바 이와기치는 고조선과 한의 국경이었던 패수를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대동강(大同江)이란 용어는 중국 25사 중에서 『명사(明史)』 「조선열전」과 이성량(李成梁)·여송(如松) 등 부자열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두 임진왜란(1592~1597)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서기 전 2세기 이전의 지명비정을 하면서 16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나바의 논리는 패수가 대동강이란 전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논리는 무너지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10) “滿亡命，聚黨千餘人，魁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溟水，居秦故空地，上下鄣，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史記』朝鮮列傳」

사방 45정(町)의 지역에 흙으로 쌓은 성벽을 두른 유적의 자취가 뚜렷하다. 그 안팎에서 한나라 때 와당(瓦當)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양을 갖고 있는 기와 및 한·위(漢魏)시대에 속하는 벽돌을 다수 발견했다. 또 그 부근에 낙랑군 시대의 고분군(古墳群)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아마도 낙랑군치(樂浪郡治)의 유적일 것이다(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sup>11)</sup>

세키노 타다시는 ‘아마도’라는 부사를 사용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키노 타다시는 『조선고적도보』의 ‘낙랑군치’라는 소제목에 ‘낙랑군치(?)’라고 의문부호를 달아 놓았다. 또한 당시에도 토성동은 ‘토성이 협소한 구릉에 얽혀 있어 있기 때문에 천험(天險)이 없으므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방수(防守)가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을 ‘낙랑군치’, 즉 ‘낙랑군 조선현’ 자리로 결정했다. 대동강을 패수로 보고 『사기』 「조선열전」의 ‘연나라 사람 위만이 동쪽으로 새외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읍했다’는 구절에 꿰어 맞춘 위치비정이었다.

### 3. 패수의 위치와 해방 후의 견해들

그런데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을 낙랑군 치소라고 비정하는 논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일제강점기 때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나 식민사학의 대부분의 논리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 그를 바탕으로 수립된 하위논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낙랑군 조선현을 대동강 남안에서 찾는 것은 물

11)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說第1冊』, 1915, 2쪽.

론 북안의 평양에서 찾는 것도 모두 헛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일찍이 이를 예견했던 인물이 앞서 인용한 조선 후기 김정선이었다.

“오호라! 후세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사군(漢四郡)의 땅을 망령되게 파악해서 모두 압록강 안에 국한시켜 억지로 사실에 끌어 맞춰서 구구하게 분배했다. 이에 패수(溟水)를 다시 그 중에서 찾으니 혹은 압록강을 패수라고 지목하고, 혹은 청천강(淸川江)을 패수라고 지목하고, 혹은 대동강을 패수라고 지목했으니 이것은 전쟁도 하지 않고 (고)조선의 옛 강토를 저절로 줄여들게 한 것이다.(김정선, 『봉황성기』연원직지)”<sup>12)</sup>

김정선의 이 말이 절묘한 것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후 한국 식민사학계의 동향까지 정확하게 예견했기 때문이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패수고(溟水考)』에서 “패수의 이름은 『사기(史記)』 『조선열전』에 한나라 초기 고조선의 북쪽 경계로 기록되었고, 또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낙랑군 속현(屬縣)의 이름으로 기재되었다. 전자는 통상 압록강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3)</sup>라고 패수로 보았다. 서울대학교의 노태돈이나 교원대학교의 송호정도 마찬가지로 압록강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를 그대로 추종해서 압록강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병도는 패수를 청천강이라고 보고 있다. 단국대학교 교수 서영수는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의 성격』에서 패수를 요동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패수의 위치를 요동으로 보았으면 평양을 왕험성으로 보았던 견해는 부정되어야 하지만 서영수는 이미 평양을 왕험성으로 단정 짓고 하위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결론은 과거와 같았다.

12) “嗟乎，後世不詳地界，則妄把漢四郡地，盡局之於鴨綠江內，牽合事實，區區分排，乃復覓溟水於其中，或指鴨綠江爲溟水，或指淸川江爲溟水，或指大同江爲溟水，是朝鮮舊疆，不戰自蹙矣”(金景善, 『燕輶直指』 鳳凰城記)

13) 津田左右吉, 『溟水考』, 『朝鮮歷史地理(1913)』, 『津田左右吉全集(1964)』, 제11권, 岩波書店, 11쪽.

그래서 서영수는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이나 난하 동쪽에서 찾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오늘날 요하가 고대의 요수와 일치하는 것이 입증된 까닭에 이러한 견해는 성립할 수 없으며, 『사기』의 왕험성은 오늘날의 평양임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낙랑군치는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으로 보고 있다.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고 있는 노태돈이나 송호정도 마찬가지고,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고 있는 이병도도 마찬가지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을 낙랑군치, 즉 낙랑군 조선현 자리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당초 조선총독부에서 대동강 북안의 평양이 왕험성이라는 기존 유학자들의 견해를 굳이 나누어 대동강 남안의 토성리로 비정한 것은 대동강을 패수로 보고 『사기』 『조선열전』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수를 요동, 압록강, 청천강 등으로 달리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랑군치, 즉 낙랑군 조선현은 그대로 토성동 토성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이는 패수가 대동강이라는 조선총독부의 전제는 무너졌지만, 낙랑군치를 토성동 토성으로 비정한 조선총독부의 견해 자체가 새로운 ‘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치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척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표출했지만 결론은 이병도가 “이 일대(대동면 토성리)가 낙랑군치(樂浪郡治)인 조선현의 소재지였던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sup>14)</sup> 라고 말한 것처럼 조선총독부에서 교시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왕험성 및 조선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洌水)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말했는데, 열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한 것은 이병도로서 이 역시 어떤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비정한 것이 아니라 패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하다보니 열수를 대동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예나 지금이나 식민사학의 위치비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런 종류들이다.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의 낙랑군(樂浪郡)조를 보면

14) 李丙燾, 앞의 책, 142쪽.

전한(前漢) 때는 25개였던 낙랑군 속현이 후한 때는 18개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한서』 「군국지」의 낙랑군 속현 중에 열구(列口)현이 있는데, 열구현에 대한 주석에, “곽박(郭璞)은 『산해경』에 주석하기를 ‘열(列)은 강이름이다. 열수(列水)는 요동(遼東)에 있다’고 말했다”<sup>15)</sup>고 설명하고 있다. 동진(東晉) 때의 저명한 훈고학자(訓詁學者)인 곽박(郭璞: 276~324년)은 식민사학에서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살았던 학자이다. 『진서(晉書)』 「곽박 열전」은 곽박이 하동(河東) 문희(聞喜: 현재의 산서성) 사람으로서 그 부친 곽원(郭瑗)은 건평태수(建平太守)를 역임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곽박에 대해서는 “경전에 대한 학술을 좋아했고, 박학했으며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sup>16)</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살았던 곽박이 “열수는 요동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병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동강이라고 주장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를 따라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패수가 요동에 있거나, 압록강이거나 청천강이라면 낙랑군 조선현은 과거 사대주의 유학자들의 공상처럼 지금의 평양에 있어도 ‘패수를 건너 동쪽으로 왔다’는 위만의 행적과 어긋나지 않건만 조선총독부에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이라고 교시를 내리니 그저 이를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단국대학교 교수 서영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찍부터 낙랑군의 치소로 알려져 왔던 토성리 유적 대부분이 위만조선의 왕도였던 대동강 북안의 왕검성(王儉城)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동강 남안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낙랑군이 고구려를 비롯한 예맥사회의 압력에 쫓겨 군현의 중심지를 방어에 보다 유리한 대동강 남안으로 옮겼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17)</sup>

15) 『後漢書』 「郡國志」, 『幽州 樂浪郡』 列口縣 註釋 ‘郭璞注山海經曰.’ 列, 水名. 列水在遼東”

16) “郭璞字景純, 河東聞喜人也. 父瑗, 尚書都令史. 時尚書杜預有所增損, 瑗多駁正之, 以公方著稱. 終於建平太守. 璞好經術, 博學有高才.” 『晉書』 「郭璞 列傳」

17) 서영수, 『對外關係史에서 본 樂浪郡』, 『史學志』 제31집(1998. 12), 17쪽.

서영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이른바 실증주의 서술 전통을 이어받아 ‘주지의 사실’ 같은 비학문적 용어를 남발한다. 또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처럼 앞뒤 모순되는 이야기를 마구 뒤섞어 놓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패수를 요동으로 비정해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조선총독부의 교시대로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안’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영수는 언제부터 토성리유적이 낙랑군의 치소로 알려져 왔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일찍부터’라는 말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토성리유적을 낙랑군의 치소로 특정한 것은 도쿄제대 공대의 세키노 타다시였다. 서영수는 세키노 타다시 이전에 ‘일찍’ 토성리를 낙랑군의 치소로 본 학자가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서영수는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낙랑군이 군현의 중심지를 대동강 남안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설치 당시의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안이 아니라는 뜻인가? ‘낙랑군 조선현=대동강 남안’이란 식민사학계의 기존 통설을 고집하려고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마구 뒤섞어 놓은 것이다. 서영수는 이 논문 앞부분에서 한군현의 소재지를 요동과 요서 지역으로 보는 북한학 리지린<sup>18)</sup>과 윤내현<sup>19)</sup>의 견해를 비판하고는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와 이를 계승한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성립되기 힘들다”<sup>20)</sup>라고 비판했다. 한군현 요동, 요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제시는 없고, ‘주지하다시피’ ‘대동강 유역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성립되기 힘들다’는 일방적 주장뿐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서영수 자신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한국사 시민강좌』 2, 1988)과 서울대학교 노태돈의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한국사론』 23, 1990), 서강대학교 이종욱의 「고조선사연구(일조각, 1993)」를 적어 놓았다. 서영수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학자라

18) 리지린, 『고조선사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3.

19)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

20) 서영수, 『對外關係史에서 본 樂浪郡』, 『史學志』 제31집(1998. 12), 10쪽.

면 “북한의 리지린과 단국대학교의 윤내현 등은 이런 근거로 요서, 요동설 등을 주장했고, 자신과 노태돈, 이종욱은 이런 근거로 대동강 유역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써야 한다. 그러나 쓰다 소키치, 이나바 이와기치, 이병도, 서영수, 노태돈, 송호정 등은 이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비학문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서영수가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이란 근거로 든 노태돈의 견해를 살펴보자.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평양 일대에는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현의 치소(治所)는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土城洞) 지역으로 보인다. 토성의 규모가 번성하였던 군(郡)의 수부(首府)가 있었던 곳으로는 작음을 들어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시 낙랑군의 지배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는 일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노태돈도 서영수처럼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1차사료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순리이다’,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비학문적 희망사항으로 일관하고 있다.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으면 그 유적이 낙랑군의 것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다. 더구나 서기전 3세기는 낙랑군 시대가 아니라 고조선 시대다. 노태돈이 조선현의 치소를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지역”으로 보는 것 또한 조선총독부의 견해를 추종한 것일 뿐 아무런 1차 사료적 근거가 없다.

노태돈의 제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송호정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송호정은 그간 식민사학에서 기정사실로 만들었던 ‘한사군 한반도설’이 일체의 문헌사료

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이 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었던 과거와는는 달리 이제 식민사학을 대체하는 축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학문적 외형’을 일정 정도 띄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송호정은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실체가 언제부터 역사상에 등장하였고,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22)</sup>라고 한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처럼 이들의 논리와 계보를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들이 어디로 도망갈지 잘 알고 있다. 문헌사료적 근거가 없을 때 이들이 도망가는 곳은 ‘유물 자체는 말이 없는 고고학’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때 이들의 교주였던 이병도가 고고학을 근거로 삼는 행태를 크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이병도는 1975년 5월 『서울평론』에서 이기백과 나눈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한 가지 고대사 연구에서 주의할 일이 있어요. 선사시대는 고고·인류학이 주가 되겠지만 역사시대의 역사는 원래 문헌을 주로 하는 것이고 고고학·인류학·언어학 등은 보조과학인데 요즘은 역사시대에 있어서도 으레 고고학이 앞장서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고고학이 주체인지 문헌이 주체인지 모를 지경이야.

가령 주종관계로 따진다면 사학은 문헌을 주로 하고 고고학·인류학·언어학은 종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고대의 유물이란 항시 굴러다니는 것이어서 꼭 그 유물이 어디에서 출토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실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역사는 역시 문헌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고고·인류·언어학 등을 보조과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하여 둡니다.”<sup>23)</sup>

22)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28쪽.

23) 여기서는 진단학회, 『역사가의 유행』, 일조각, 1991년, 230~231쪽에서 재인용.

21)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22~23쪽.

이병도가 고고학에 의존하는 학문경향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 것은 서울대학교 교수 김원룡이 풍납토성을 발굴해보니 백제가 서기전 1세기에 건국되었다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맞다고 한때 주장했던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김원룡은 이후 이병도와 그 제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고 식민사학의 전사로 전향했지만 지금도 한강 유역이나 낙동강 유역에서는 서기전 1세기에 신라와 백제가 건국되었다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맞다는 발굴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식민사학계는 “한사군=한반도설” 자체가 일체의 문헌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현실에 조용해야 했다. 그래서 “말하는 문헌사료”를 버리고 “말이 없는 고고학”으로 일제히 도망가는 중이다. 최근 식민사학계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낙랑목간이 발굴되었다”라고 발표하자 북한이 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평양이 낙랑군이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고 있다. 이병도는 마치 자신의 후학들이 이럴 것을 미리 안 것처럼 “고대의 유물이란 항시 굴러다니는 것이어서 꼭 그 유물이 어디에서 출토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실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라고 간파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식민사학은 고고학에 기대야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송호정도 고고학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비파형동검 출토지역인 현재의 요서지역까지 고조선의 강역으로 보는 당연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와 달리 현재의 중국학계나 한국학계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요서(遼西)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동호족(東胡族)이나 산융족(山戎族)이 남긴 문화로 보고 있다”<sup>24)</sup>라고 말했다. 송호정이 말하는 ‘중국학계’란 두 말할 것도 없이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인 학자군을 뜻한다. 송호정이 말하는 ‘한국학계의 대다수 연구자들’이란 서영수나 노태돈, 송호정 자신을 뜻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대표하는 한국학계가 동북공정의 견해가 같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중국 공북공정과 한국

24) 송호정, 앞의 논문, 30쪽.

식민사학은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 내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중국 요서 지역, 즉 요녕성 서부 및 내몽골 지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고조선식 동검) 출토지역을 ‘산융’, ‘동호’ 등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비록 팩트에는 어긋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고조선식 동검(비파형 동검)의 출토지역을 산융, 동호의 강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영수·노태돈·송호정 등은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송호정은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요서(遼西)·요동(遼東), 한반도의 평양 일대 가운데 고조선의 문화와 중국 한(漢)의 문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평양일대이다. 그렇다면 평양 부근에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평양 일대에 기원전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sup>25)</sup>

앞에서 노태돈이 말한 것과 똑같이 ‘순리’,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 등을 근거로 평양 일대를 고조선 왕검성이고 낙랑군 설치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서영수·노태돈처럼 일체의 1차사료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25) 위의 논문, 53쪽.

#### 4. 낙랑군 조선현을 평양으로 보게 된 과정

그럼 낙랑군 조선현은 언제, 어떤 근거로 평양일대로 비정되었을까? 낙랑군 조선현을 현재의 평양으로 보는 시각은 고려 중·후기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사』 「지리지」 북계(北界)조에 종합적인 인식이 등장하는 데 이는 조선 초기 작성된 것이다.

“〔평양은〕 본래 3조선<sup>26)</sup>의 옛 도읍이다. 당(唐) 요(堯) 무진(戊辰)년에 신인이 단목수 아래 내려오니 국인들이 임금으로 삼았는데, 평양에 도읍하고 호를 단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조선(前朝鮮)이다. 주(周)나라 무왕이 상(商)나라를 정벌하고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는데, 이것이 후조선(後朝鮮)이다. 41대 준왕 때에 이르러 연(燕)나라 사람 위만이 있어서 망명자들을 천여 명을 모아 와서 준왕의 땅을 탈취하고 왕험성(王險城: 험(險)은 다른 본에는 검(儉)으로 되어 있는데, 곧 평양이다)에 도읍했으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 그 손자 우거 때에 (한나라의) 조칙을 즐겨 받지 않자 한 무제가 원봉 2년 장수를 보내 토벌하고 사군으로 삼았는데, 왕험성은 낙랑군이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국내성에서 도읍지를 (평양으로) 옮겼고, 보장왕 27년에 신라 문무왕이 당과 함께 공격해서 멸망시키니 비로소 그 땅이 신라에 들어갔다(『고려사』, 권 58, 「지리지」 3, 북계)<sup>27)</sup>”

조선 초기 작성된 『고려사』 「지리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조선, 즉 단군·기

26) 단군·기자·위만조선을 말한다.

27) “本三朝鮮舊都。唐堯戊辰歲，神人降于檀木之下，國人立爲君，都平壤，號檀君，是爲前朝鮮。周武王克商，封箕子于朝鮮，是爲後朝鮮。逮四十一代孫準時，有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來奪準地，都于王險城【險一作儉，即平壤】，是爲衛滿朝鮮。其孫右渠，不肯奉詔。漢武帝元封二年，遣將討之，定爲四郡，以王險爲樂浪郡。高句麗長壽王十五年，自國內城，徙都之。寶藏王二十七年，新羅文武王，與唐夾攻，滅之，地遂入於新羅。”(『고려사』, 권 58, 「지리지」 3, 북계)

자·위만조선의 수도를 시기 구분 없이 평양으로 고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 중기 이후 이런 시각이 등장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위(北魏)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이다. 역도원은 고구려 장수왕이 재위 15년(427) 천도한 평양성을 만주에 있던 고조선의 왕험성으로 착각해서 패수(溍水)의 흐름과 그 위치에 대해서 그릇된 주석을 달았는데, 이것이 고구려 수도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에게 ‘고조선 왕험성=고구려 평양성’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또 하나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다. 은(殷)나라 사람 기자(箕子)가 동쪽 조선으로 와서 조선의 제후가 되었다는 것이 기자동래설인데, 이 논리가 언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지를 살펴보면 ‘평양=낙랑군설’의 뿌리를 알 수 있다. 기자가 우리 역사에 처음 문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 「예지(禮志)」 숙종 7년(1102) 10월조이다.

“10월 임자 초하루에 예부에서 주청하기를 ‘우리나라가 교화되고 예의를 알게 된 것은 기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에 기자가 실려 있지 않으니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다.”<sup>28)</sup>

기자는 서기 전 12세기 경의 인물인데 1102년까지도 고려에 기자의 무덤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기자 사후 2천3백여년 후에 기자가 느닷없이 평양에 데뷔한 것이었다. 『고려사』 「예지(禮志)」에 따르면 고려에서 지금의 평양에 기자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한 때는 이때보다도 200여년 후인 충숙왕 12년(1325) 10월로서<sup>29)</sup> 14세기 중엽이다. 그후 유학자들이 사대주의에 경도되어서 기자가 와서 교화를 펼친 곳이 평양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이런 사대주의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28) 「十月壬子朔，禮部奏，『我國教化禮義，自箕子始，而不載祀典，乞求其墳塋，立祠以祭。』從之。」(『고려사』, 「예지(禮志)」, 숙종 7년 조)

29) 忠肅王十二年十月，令平壤府，立箕子祠以祭。」(『고려사』, 「예지(禮志)」, 충숙왕 12년조)

되었다. 『고려사』 「악지(樂志)」 속악 조는 지금의 평양을 뜻하는 ‘서경(西京)’을 설명하면서, “서경은 고조선이니, 곧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sup>3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동강(大同江)’이란 곡에 대한 설명에서는 “주 무왕이 은나라 태사 기자를 조선에 봉해서 팔조법금을 펼치게 했다……대동강을 황하에 비교했다”<sup>31)</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고려 후기까지도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지용수 열전」에는 “본국은 요(堯:하)나라와 같은 시기에 건국되어서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하사 받은 땅은 서쪽으로 요하까지 이르러 대대로 강역으로 지켜왔습니다”<sup>32)</sup>라는 말이 나온다. 지용수는 공민왕 때의 무장인데, 기자 수봉지를 요하까지 찾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들의 집권이 대세가 되면서 14세기 들어서 기자의 사당을 세우고, 서경(西京:평양), 대동강(大同江) 지역을 기자와 연결시키는 이데올로기 조작 작업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기자동래설’은 이처럼 기자 사후 2천3백여년 후인 12세기에 유학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처음 등장했다가 유학자들이 차차 권력을 장악하는 14세기부터 확산되는 것으로서 『고려사』의 기자 관련 기록들은 모두 후대에 유학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사기(史記)』 「송미자(宋微子) 세가」의 주석에는 “두예(杜預)가 말하기를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고 했다”<sup>33)</sup>는 구절이 있다. 두예(杜預:222~285)는 3세기 중엽의 서진(西晉) 학자이고 양국 몽현은 지금 하남성 상구(商丘) 근처이다. 기자가 속했던 은(殷)나라가 곧 상(商)나라이니 상나라 언덕이란 뜻의 하남성 상구(商丘)에 기자의 무덤이 있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 북위(北魏)의 역도원(酈道元)은 『수경주(水經注)』 권23에 변수(汜水)조에 대한 주

석에서 역시 두예의 말을 인용했는데, 보다 자세하다. 역도원은 “두예가 말하기를 ‘양국 몽현 북쪽에 박벌성(薄伐城)이 있는데 성 안에 성탕(成湯)의 무덤이 있고, 그 서쪽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sup>34)</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변수(汜水)조에 대한 설명이니 변수가 어디인지 알면 기자의 무덤이 어딘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 46은 하남성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 부근에 있는 변수(汜水)를 변수(汜水)라고 보고 있다. 하남성 상구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는 두예의 설명과 하남성 개봉시의 변수가 흐르는 곳에 박벌성이 있다는 것이니 두 서술이 일관성이 있다. 평양에 기자의 무덤이 생긴 것은 14세기 이후이다.

## 5. 중국 사료가 말하는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 고대 사서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 사서는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등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한(漢)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와 낙랑군·대방군이 존재했던 때의 역사서인 『후한서』, 『삼국지』, 『진서(晉書)』 등이 중요하다. 또 하나 중국의 역사지리지 등이 중요하다. 중국은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등의 일통지를 비롯해서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등 많은 역사지리지 등을 편찬했는데, 이는 각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지리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는 물론 역사지리지들도 북경에서 서쪽 지역으로 가면 흔재된 역사지리지식을 보이고 있다. 당나라 때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요동(遼東)에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고구려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발해를 비롯한

30) “西京. 古朝鮮即箕子所封之地” 『고려사』 「악지(樂志)」, 서경(西京)

31) “周武王, 封殷太師箕子于朝鮮, 施八條之教, 以興禮俗, 朝野無事, 人民懽悅, 以大同江, 比黃河” 『고려사』 「악지(樂志)」, 대동강(大同江)

32) “本國與堯並立, 周武王封箕子于朝鮮, 而賜之履, 西至于遼河, 世守疆域”, 『고려사』 권140, 「지용수 열전」

33) “杜預云, ‘梁國蒙縣有箕子冢’ 『史記』 「宋微子世家」, 주석「索隱」

34) “杜預曰, ‘梁國蒙縣北有薄伐城, 城中有成湯冢, 其西有箕子冢’ 『水經注』 23권, 汜水, 주석

국가와 여러 동이족 민족들이 계속 살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관념적으로 고구려 지역을 요동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혼선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고대 사료에 나오는 요동군을 현재의 요동으로 보고 거리비정을 하면 뒤죽박죽이 되고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고대 요동은 현재의 북경 부근을 뜻했다.

『한서』 「지리지(地理志)」가 체계적인 역사지리서인데, 현재의 북경 부근인 유주(幽州) 산하의 여덟 개 군에 낙랑군이 속해 있다. 유주(幽州) 산하의 여덟 개 군은 대군(代郡), 상곡군(上谷郡), 어양군(漁陽郡), 우북평군(右北平郡), 요서군(遼西郡), 요동군(遼東郡), 현토군(玄菟郡), 낙랑군(樂浪郡)이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는 기자 조선의 도읍지에 세웠다는 조선현은 낙랑군 소속으로, 위만 조선의 도읍지에 세웠다는 험독현은 요동군 소속으로 분리해서 서술하고 있다. 낙랑군 조선현이고, 요동군 험독현이다. 그 동안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험독현 = 조선현’으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는 그 위치를 ‘평양’이라고 견강부회했던 것이다.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의 첫 번째 현으로 조선현(朝鮮縣)을 실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낙랑군, 한 무제 원봉 3년에 열었다. 왕망(王莽)은 낙선(樂鮮)군 이라고 불렀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 호수는 6만2,812호이고, 인구는 40만6,748명이다. 운장(雲韓)이 있고, 25개 속현이 있다. 조선현(주석; 응소(應郡)는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말했다.)<sup>35)</sup>

낙랑군 조선현에 ‘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곳’이라는 주석을 단 응소(應郡: ?~196년)는 현재의 하남성 출신인데, 한나라 헌제(獻帝) 때 태산(泰山)태수를 역임했고 어릴 때부터 박학했으며, 『한서집해(漢書集解)』 등의 저서를 남겼

35) “樂浪郡，武帝元封三年開。莽曰樂鮮，屬幽州。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有雲韓，縣二十五，朝鮮。應劭曰，‘武王封箕子於朝鮮’”(『漢書』 「地理志」樂浪郡)

다.<sup>36)</sup> 그의 주석은 낙랑군이 존재했을 때의 인식이니 한나라 사람들의 역사지리 지식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 때의 학자들은 낙랑군 조선현을 주(周) 무왕이 기자(箕子)를 봉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기자(箕子)는 서기 전 12세기 경의 인물로서 앞서 인용했듯이 『사기(史記)』 「송미자(宋微子)世家」의 주석에는 “두예(杜預)가 말하기를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고 했다”<sup>37)</sup>는 구절이 있는데, 기자 사화가 사실이라면 기자의 수봉지는 하남성에서 크게 먼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나라 때 설치한 낙랑군은 왕망의 신(新)나라 때 낙선군으로 바뀌었다가 후한(後漢) 때 다시 낙랑군으로 환원되었고, 조조의 위(魏)나라 때는 공손씨 일가가 고대 요동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공손씨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사마씨의 진(晉)나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낙랑군을 평주(平州)에 소속시켰는데, 평주 소속의 군들은 창려군, 요동국,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의 다섯이었다. 『진서(晉書)』 「지리지」 평주(平州) 낙랑군 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낙랑군은 한나라에서 설치했다. (현재 진나라에서:괄호는 필자)관할하는 현은 여섯 현이며, 호수는 3천7백이다. 조선현은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한 지역이다. 둔유(屯有)현. 혼이(渾彌)현. 수성(遂城)현은 진(秦)나라 때 쌓은 장성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누방(鑊方)현. 사망(駟望)현(『진서』 「지리지」, 평주 낙랑군)<sup>38)</sup>

진나라 수성현이 진(秦)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말이다. 수성현의 위치를 찾으면 낙랑군의 위치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자연히 알 수 있다. 수나라는

36) 黃惠賢 主編，『二十五史人名大辭典』，中州古籍出版社，上冊，1994년，94쪽.

37) “杜預云，‘梁國蒙縣有箕子冢’ 『史記』 「宋微子世家」，주석 「索隱」

38) “樂浪郡漢置，統縣六，戶三千七百。朝鮮周封箕子地。屯有。渾彌。遂城秦築長城之所起。鑊方。駟望”(『晉書』 「地理志」平州 樂浪郡)

통일 후 낙랑군 수성현을 기주(冀州) 상곡군(上谷郡)에 통합시켰는데, 상곡군은 현재의 북경 일대에 있던 군이었다. 『수서』 「지리지」 상곡군 수성현 조를 보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준다.

“수성현: 옛날의 무수(武遂)인데, 후위(後魏)에서 남영주(南營州)를 설치하고, 영주에 준해서 5군 11현을 설치했다. 그중 용성(龍城)현, 광흥(廣興)현, 정황(定荒)현은 창려군(昌黎郡)에 속하게 했다. 석성(石城)현, 광도(廣都)현은 건덕군(建德郡)에 속하게 했다. 양평(襄平)현, 신창(新昌)현은 요동군에 속하게 했다. 영락(永樂)현은 낙랑군(樂浪郡)에 속하게 했다. 부평(富平)현, 대방(帶方)현, 영안(永安)현은 영구군(營丘郡)에 속하게 했다. 후제(後齊)에서는 오직 창려 한 군만 남겨서 영락, 신창 두 현을 거느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생략시켰다. 수(隋) 개황(開皇) 원년(元年:581)에 주(州)를 이전했다가 3년에 군을 폐했다가 18년에 수성(遂城)으로 개칭했다. 용산(龍山)이 있다. (『수서(隋書)』 「지리지」 상곡군(上谷郡) 수성현)<sup>39)</sup>

수나라 때의 수성현 지역이 후위(後魏) 때는 창려군, 건덕군, 요동군, 낙랑군, 영구군의 5군 11현을 설치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서』는 수성현을 비롯해서 6개 현을 거느리고 있는 상곡군의 인구를 3만8,700호라고 말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에 대해서 “호수는 6만2,812호이고, 인구는 40만6,748명<sup>40)</sup>”이라고 말했는데, 『수서』 「지리지」는 낙랑군을 포함해서 11개 현을 거느리고 있던 수성현과 6개 현의 호수를 모두 3만8,700호<sup>41)</sup>라고 하고 있으니 절반 가

39) “遂城 舊曰武遂。後魏置南營州。准營州置 五郡十一縣：龍城、廣興、定荒屬昌黎郡；石城、廣都屬建德郡；襄平、新昌屬遼東郡；永樂屬樂浪郡；富平、帶方、永安屬營丘郡。後齊唯留昌黎一郡，領永樂、新昌二縣，餘並省。開皇元年州移，三年郡廢，十八年改為遂城。有龍山” (『隋書』 「地理志」 上谷郡 遂城縣)

40) “樂浪郡，武帝元封三年開。莽曰樂鮮，屬幽州。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漢書』 「地理志」 樂浪郡)

41) “樂浪郡漢置。統縣六，戶三千七百” (『晉書』 「地理志」 平州 樂浪郡)

까이 축소된 것이다. 고구려가 그만큼 서쪽으로 고조선의 옛 강역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수성현은 지금의 창려현으로서 그 북쪽에 고대 한(漢)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이 었다는 갈석산이 있고, 또 그 북쪽에는 장성 유적도 있다. 그런데 『북사(北史)』 「배구(裴矩) 열전」에는 배구가 “고려는 본래 고죽국(孤竹國)으로서 주(周)나라에서 기자를 봉한 지역입니다<sup>42)</sup>”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내용은 『구당서』 및 『신당서』 「배구 열전」에도 모두 나오는데, 고죽국은 현재 기자가 소속되었던 은(殷:상)나라의 제후국으로서 백이(伯夷) · 숙제(叔齊)의 고사로 유명하다. 고죽국의 수도 자리로 두 군데가 거론되는 데 하나는 하북성 노룡현(盧龍縣)으로서 창려시 북쪽에 있다. 또 하나는 『한서』 「지리지」 요서군 영지현(令支縣)조에 “고죽성(孤竹城)이 있다. 왕망은 영씨정(令氏亭)이라고 불렀다<sup>43)</sup>”는 기록처럼 한나라 때 요서군 영지현 지역이다. 모두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하북성 일대를 뜻한다.

중국 학계는 고조선, 고구려의 강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역사 왜곡의 강도가 될 한 편이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죽국의 서쪽 경계를 현재의 하북성 당산(唐山)시, 동쪽은 발해(渤海)라고 보고 있다. 당산시는 전국 때는 연(燕)나라 강역이었고, 진·한(秦漢)과 남북조 때는 우북평군과 요서군에 속해 있었는데 유주(幽州) 관할이었다. 수나라 때는 현재의 당산시 동쪽이 북평군(北平郡)에 속해 있었다.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죽을 때까지 은거했던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 현재의 하남성 낙양(洛陽)시 동쪽 30 km 정도의 언사(偃師)의 수양산(首陽山)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까지도 하북성 일대의 옛 고죽국 지역은 고구려의 강역이었다는 뜻이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광대한 지역을 요동군으로 편입시키면서 광

42) 矩因奏曰，‘高麗地本孤竹國，周代以之封箕子’ (『北史』 「裴矩列傳」)

43) “令支：有孤竹 城莽曰令氏亭” (『漢書』 「地理志」 遼西郡)

범위하게 역사지리가 왜곡되기 시작한다. 이후에도 만주, 내몽골 지역은 옛 고조선, 고구려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도상으로는 중국이 지배한 것으로 표기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하북성 일대역에 있던 지명들을 현재의 요동으로 옮겨 표기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중국 학계는 금나라에서 설치한 함평부(咸平府)를 현재의 요녕성 심양 북서쪽 철령(鐵嶺)시 산하의 현급(縣級)시인 개원(開原)으로 비정하면서, 원나라 때 개원로(開元路)를 다스린 곳으로 보고 있다. 『원사』는 요양등처 행중서성(遼陽等處行中書省) 산하의 함평부(咸平府)조에 이 지역을 넣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자.

“함평부(咸平府)는 옛 조선 땅으로서 기자(箕子)를 봉했던 지역인데, 한(漢)나라 때는 낙랑군에 속했다가 그 후 고구려가 그 땅을 침략했다.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안동도호를 설치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발해 대씨(大氏: 대조영과 그 후예)가 계속 거주했다. 요(遼)나라에서 발해를 평정했지만 그 땅은 험애(險隘)한 곳이 많아서 성을 건립해서 유민(流民)들을 거주하게 하고 함주(咸州) 안동군(安東軍)이라 불렀는데, 다스리는 현은 함평(咸平)이었다. 금나라에서 함평부(咸平府)로 승격시키고 평곽(平郭), 안동(安東), 신흥(新興), 경운(慶雲), 청안(淸安), 귀인(歸仁)의 여섯 현을 거느리게 했는데, 병란(兵亂)으로 다 폐지되었다. 원나라 초에 이로 인해서 개원로(開元路)에 소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나누어서 요동선위사(遼東宣慰司)에 소속시켰다. 『원사』 「지리지」 요양등처 행중서성 함평부(咸平府)<sup>44)</sup>

『원사』는 현재의 요녕성 심양시 부근의 함평부를 기자가 책봉되었던 곳으로 보

44) “咸平府。古朝鮮地。箕子所封。漢屬樂浪郡。後高麗侵有其地。唐滅高麗。置安東都護以統之。繼為渤海大氏所據。遼平渤海。以其地多險隘。建城以居流民。號咸州安東軍。領縣曰咸平。金升咸平府。領平郭。安東。新興。慶雲。淸安。歸仁六縣。兵亂皆廢。元初因之。隸開元路。後復割出。隸遼東宣慰司” 『元史』 「地理志 遼陽等處行中書省 咸平府」

고 있는 것이다. 평양보다는 사실에 가깝지만 고대 요동의 위치와 당나라 이후의 요동의 위치를 혼동해서 생긴 인식이다. 청나라 고조우(顧祖禹)가 편찬한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는 원 이름이 『21사(史) 방여기요(方輿紀要)』로서 중국 역대 지리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역사지리서다. 다른 책들이 단편적인 역사 지리지식을 서술했다면 『독사방여기요』는 『사기』부터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까지 21사의 지리지를 포괄해서 서술했다는 특징이 있다.<sup>45)</sup> 고조우는 강희(康熙) 연간에 서건학(徐乾學)의 초청으로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편찬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순치(順治) 16년(1659) 『독사방여기요』를 편찬하기 시작해서 강희 31년(1692)까지 36년에 걸쳐 130권짜리 역사지리서를 완성한 것이다.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지리서라고 볼 수 있다. 『독사방여기요』 17권 북직(北直) 8의 영평부(永平府)조에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나온다. 『독사방여기요』에서 말하는 영평부는 현재의 하북성 노룡(盧龍)현 일대로서 갈석산이 있는 창려현 북쪽이다.

「영평부는 동쪽으로 산해관(山海關)까지 180리이고, 남쪽으로 해안까지 160리이고, 서쪽으로 순천부(順天府) 계주(薊州)까지 3백리이고, 북쪽으로 도림구(桃林口)까지 60리이고, 동북쪽으로 폐영주(廢營州)까지 690리이다. (영평)부에서 경사(京師:북경)까지는 550리이고, 남경까지는 3,150리이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46)</sup>

45) 중국 사서는 시대에 따라 정사의 범주가 달라졌는데, 송나라 때는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晉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구당서, 신당서의 17사를 정사로 꼽았다.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국자감(國子監)에서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를 더 추가해 정사로 삼은 것이 21사다. 고염무는 『일지록(日知錄)』 감본21사(監本二十一史)에서 “송나라 때는 17사에 그쳤지만 지금은 송, 요, 금, 원나라의 네 역사를 합해서 21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46) “府東至山海關一百八十裏，南至海岸百六十裏，西至順天府薊州三百裏，北至桃林口六十裏，東北至廢營州六百九十裏。自府治至京師五百五十裏，至南京三千一百五十裏” 『讀史方輿紀要』 卷17, 北直八, 永平府

그 다음이 영평부에 대한 역사적 지명 변천 사례이다.

「옛날에는 기주(冀州)지역이었다. 우(虞:순임금) 때는 나누어서 영주(營州) 땅으로 삼았다. 하(夏)나라는 이로 인해 기주 땅이었고, 상(商:은)나라 때는 고죽국이었다. 주(周)나라 때 유주(幽州)에 속하게 했고, 춘추 때는 산융(山戎), 비자(肥子) 두 나라 땅이었다. 전국(戰國) 때는 연(燕)나라에 속했다가 진(秦)나라는 우북평, 요서(遼西) 두 군(郡) 땅이었다. 한나라 때는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우북평군의 군치(郡治)는 평강도(平岡道)인데, 지금 계주(薊州) 북쪽 경계이고, 요서군의 군치는 차려현(且慮縣)인데, 지금 영평부의 동쪽 경계에 있었다. 후한(後漢)에서도 역시 요서군 등의 땅이었고, 진(晉)나라 때도 요서군이였다. (『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47)</sup>

현재의 하북성 노룡(盧龍) 지역이 과거에는 기주, 영주, 유주, 우북평, 요서지역이었다는 뜻이다. 현재 식민사학 및 중국 동북공정에서 현재의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면서 요양시 서쪽을 요서군으로 비정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수서』 「지리지」 상곡군 수성현 조에서 “양평(襄平)현, 신창(新昌)현은 요동군에 속하게 했다.”는 구절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독사방여기요』는 현재의 노룡현이 한때 신창현으로서 영평부에 속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신창성(新昌城)은 곧 지금 영평부를 다스리는 치소이다. 한나라에서 신창현을 설치하고 요동군에 소속시켰다. 후한에서도 그를 따랐고, 진(晉)나라는 요동국(遼東國)에 소속시켰는데, 지금 요동 해주위(海州衛) 지경이었다(『독사방

47) “古冀州地。有虞時分為營州地。夏仍為冀州地。商時為孤竹國。周屬幽州。春秋時為山戎、肥子二國地。戰國屬燕。秦為右北平、遼西二郡地。漢因之(漢志)：右北平郡治平岡道。在今薊州北境。遼西郡治且慮縣。在今府東境。後漢亦為遼西等郡地。晉為遼西郡”(『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여기요』권 17 영평부)」<sup>48)</sup>

한, 후한, 진(晉)나라 때는 이 지역이 요동군이 되었다가 요동국이 되기도 했다는 뜻이다. 이 지역은 역사 상황에 따라서 요동, 요서, 우북평 등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창에 대한 설명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조선성이 등장한다.

“후위(後魏)에서 잠시 이 지역을 북평군에 소속시켰고, 후제(後齊)에서는 군치(郡治)로 삼았다. 수나라에서 노룡현으로 개칭했다. 또 조선성(朝鮮城)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이다. 지금은 조선 경내에 있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49)</sup>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성에 대해서 ‘한나라 낙랑군 속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곧 낙랑군 조선현을 뜻하는 것이다.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조선 경내에 있다”는 말은 고조우도 낙랑군 조선현이 조선 경내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대 역사 사료를 보면 조선경내가 아니라 영평부, 즉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내용대로 서술한 것이다. 신창에 대한 설명을 계속 보자.

“북위의 탁발도 연화(延和) 초에 조선 백성을 비여(肥如)로 옮기고 조선현을 설치하고, 북평군의 치소를 겸하게 했다. 고제(高齊) 때 군의 치소를 신창으로

48) “新昌城即今府治。漢置新昌縣。屬遼東郡。後漢因之。晉屬遼東國。在今遼東海州衛境”(『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49) “後魏僑置於此。屬北平郡。後齊為郡治。隋改曰盧龍縣。又朝鮮城。在府北四十裏。漢樂浪郡屬縣也。在今朝鮮境內”(『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옳기고 조선현을 병합시켰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50)</sup>

북위 태무제 탁발도의 연호인 연화는 432년부터 435년까지이다. 이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옛 조선백성들을 비여로 옳기고 조선현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비여도 한국 고대사의 위치비정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한서』 「지리지」에는 요서군에 속한 속현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서』 「지리지」는 비여에 대해 “현수(玄水)가 동쪽으로 흘러 유수(濡水)로 들어간다. 유수는 남쪽으로 흘러서 해양(海陽)으로 들어간다. 또 노수(盧水)가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서 현수로 들어간다. 왕망은 비이(肥而)라고 했다<sup>51)</sup>”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海陽)이 어디일까? 『한서』 「지리지」에는 역시 요서군에 속한 14개 현 중의 하나로 해양현을 들고 있는데, 해양현에 대해서는 “용선수(龍鮮水)가 동쪽으로 흘러서 봉대수(封大水)로 들어간다. 봉대수와 수허수(綏虛水)는 모두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염관(鹽官)이 있다<sup>52)</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양현은 전한 때 해양후국(海陽侯國)을 설치하기도 했던 지역인데, 요서군에 속했다가 북제(北齊) 때 비여현으로 통합되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하북성 난현(灤縣) 서남쪽으로 비정하고 있다.

『진서』 「지리지」를 보면 진나라 때는 요서군에 양락(陽樂), 비여(肥如), 해양(海陽)의 3개 현이 있는데, 호수는 2천8백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이 비여현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의 하북성 노룡에서 조금 서북쪽 천안(遷安)시 동쪽의 만군산(萬軍山) 일대로 비정한다. 지금의 사하(沙河)인 노수(盧水)와 지금의 청룡하(靑龍河)인 현수(玄水)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노룡현에는 고

50) “後魏主熹延和初。徙朝鮮民於肥如。置朝鮮縣。並置北平郡治此。高齊移郡治新昌。並朝鮮縣入焉”(『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51) “肥如: 玄水東入濡水。濡水南入海陽。又有盧水, 南入玄。莽曰肥而”(『漢書』 「地理志」 遼西郡 肥如縣)

52) “海陽: 龍鮮水東入封大水。封大水。綏虛水皆南入海。有鹽官”(『漢書』 「地理志」 遼西郡 海陽縣)

53) 『진서(晉書)』 「지리지」 상(上), 유주(幽州) 요서군(遼西郡)조. 여기에서는 선비족 모용씨와 부견 등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죽국의 왕자였던 백이, 숙제의 비석이 있는데, 만군산 일대도 옛날 고죽국 지역이었다.

『독사방여기요』의 영평부 조는 요서군, 요동군, 낙랑군이 서로 지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후한서』 「군국지」 및 『진서』 「지리지」도 이 군들이 서로 인접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이 옛 신창현으로서 한나라 때는 요동군에 속해 있었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40리 떨어진 조선성은 한나라 때 낙랑군에 속해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요동군과 낙랑군 사이의 최단거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10여km가 채 안 되는 거리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노룡현, 즉 청나라 때의 영평부는 요동군 소속이었고, 그 북쪽 40리의 조선현은 낙랑군 소속이었다. 『독사방여기요』 영평부 조는 산하의 영지성(令支城)에 대해서 영평부 동북쪽에 있다면서 “한나라 때는 영지현을 설치하고 요서군에 소속시켰다<sup>54)</sup>”고 말하고 있다. 요서군도 이 부군에 붙어 있었다는 뜻이다. 이 부군에 요서성(遼西城)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이는 명확해진다.

“요서성은 영평부 치소 동쪽에 있다. 두우(杜佑: 당나라 사람)는 노룡현 동쪽에 요서고성(遼西故城)이 있는데, 한나라 요서군의 치소였다가 후에 폐지되었다. 상고해보니 한나라는 요서군을 설치하고 차려(且慮)에 치소를 두었는데, 후한에서 양락(陽樂)으로 옮겨 다스리게 했고, 진(晉)도 이를 따랐다. 이는 대개 후한 및 진(晉)에서 다스리던 군치였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55)</sup>

요서성은 노룡현 서쪽에 있었다. 한나라 때는 차려현에 치소를 두었다가 후한

54) “令支城在府東北。春秋時山戎屬國也。《齊語》: 桓公北伐山戎。弗利。令支。斬孤竹。《史記》: 齊桓公曰。我北伐山戎。離支。孤竹。離支。即令支之訛也。漢置令支縣。屬遼西郡”(『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55) “遼西城在府治東。杜佑曰。盧龍縣東有遼西故城。漢郡治此。後廢。按漢置遼西郡。治且慮。後漢移治陽樂。晉因之。此蓋後漢及晉所置郡也”(『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에서 양락현으로 옮겨졌고, 진(晉)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는 뜻이다. 고죽성(孤竹城)에 대한 설명은 연·진(燕秦)장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준다.

「고죽성은 영평부 서쪽 15리에 있다. 『세기(世紀: 제왕세기)』에는 탕왕(湯王) 18년에 묵태씨(墨胎氏)를 고죽국에 봉했다고 한다. 그 후 9세 후손인 고죽군(孤竹君)에게 백이, 숙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양보하고 도망갔다. 『관자』에 제(齊) 환공(桓公)이 북쪽 고죽국을 정벌하는데 비이(卑耳)계곡에 이르렀다고 했다. 『사기』에 제 환공이 북쪽 산융을 정벌하는 길에 고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를 말한다. 『한서』 「지리지」 주석에 영지현에 고죽성이 있다고 했다. 『괄리지』에 고죽고성(孤竹古城)은 노룡현 남쪽 20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옛 자취를 찾아 고증하기는 불가하다. 성은 혹 후대 사람들이 쌓은 것인데, 옛 이름을 덮어씌운 것이라 한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56)</sup>

과연 한나라 때도 이 지역을 고죽국으로 보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지역에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을 기자를 봉한 곳이라고 보았던 근거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죽성을 기자와 연결시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독사방여기요』의 영평부 조에는 만리장성에 대한 설명도 있다.

「장성(長城)이 영평부 북쪽 70리에 있다. 유소(劉昭)는 비여현에 장성이 있는데, 혹 연·진(燕秦)에서 쌓았다는 장성이 즉 이 지역이라고 말했다. 곽조경(郭造卿)이 말하기를 옛 장성은 우북평, 요서, 요동의 여러 새외(塞外)에 있는데, 만약 이 부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장성은 국초(國初)의 옛 터와 비슷

56) 「孤竹城城西十五裏。《世紀》：湯十有八祀，封墨胎氏孤竹國。後九葉孤竹君二子：伯夷、叔齊，以讓國逃去。《管子》：齊桓公北征孤竹，至卑耳之溪。《史記》：齊桓公北伐山戎，至於孤竹，是也。《漢誌》註令支縣有孤竹城。《括地誌》：孤竹古城在盧龍城南十二裏，今故跡已不可考，城或後人所築，而冠以古名雲」(『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한 것으로, 『일통지』가 진 장성으로 잘못 본 것이다(『독사방여기요』권 17 영평부)<sup>57)</sup>

『독사방여기요』는 영평부 북쪽 70리에 있는 장성에 대해 두 가지 설을 제시했다. 하나는 이것이 연·진(燕秦)장성이라는 후한서 지리지의 저자 유소(劉昭)의 설이다. 다른 하나는 명나라 초의 옛 터를 연·진장성으로 잘못 본 것이라는 곽조경(郭造卿)의 설이다. 유소는 『후한서』에 주석을 단 인물로 남조 양(梁:502~557)나라 때 학자이니 6세기 경의 인물이고, 곽조경은 명나라 가정 14년(1535) 진사에 급제해 형부주사(刑部主事)를 역임한 곽만정(郭萬程)의 아들이니 16세기 후의 인물이다. 앞 시대 인물의 지리지식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6세기 경에 『후한서』에 주석을 단 인물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독사방여기요』의 영평부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면 한나라 낙랑군, 요동군, 요서군의 위치를 대략 비정할 수 있다.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인 영평부는 옛 신창으로 요동군 소속이고, 그 북쪽 40리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고, 노룡현 서쪽에 요서군의 치소가 있었다.<sup>58)</sup>

한나라는 한반도 서북부의 평양에 있었다는 왕험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왕험성은 평양 일대에 있지 않았다. 그 당시 한나라 사람들에게는 한반도에 대한 지리 지식 자체가 없었다. 한나라는 고조선 서쪽에 있던 위만 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일대에 낙랑·현도·임둔·진번군을 설치했지만 상징적 승리일 뿐 영토 확장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임둔·진번군을 곧 철폐한 것으로도 이는 명확

57) 「長城，在府北七十裏。劉昭曰：肥如縣有長城，或以為燕、秦所築之長城，即此地也。郭造卿曰：古長城在右北平，遼西、遼東諸塞外，不應若此之近。此長城似國初故址。《一統誌》誤以為秦長城也」(『讀史方輿紀要』卷17, 北直八, 永平府)

58) 『독사방여기요』는 현도군은 현재의 심양 서쪽 요양(遼陽)시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식민사학이 비정하는 강원도 북부나 압록강 중류설보다는 전향적이지만 고우조 시대 때는 요하(遼河)의 위치 비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도군도 낙랑군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해진다. 또한 한나라 요동군, 요서군, 낙랑군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앞으로 한국 고대사 및 중국 고대사에 대한 역사지리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낙랑군 조선현은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 일대에 있었다. 옛 위만 조선의 수도인 왕협성에 세운 낙랑군 조선현이 현재의 대동강 남쪽의 토성동이라는 설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선전에 불과하다. 북위의 역도원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위만조선의 왕협성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오류가 생겨났다. 여기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대신 관념적으로 요동으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요동에 대한 역사 지리지식이 더 크게 왜곡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기자동래설을 신봉해 평양을 기자가 다스렸던 지역으로 둔갑시킨 것도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으로 오인하게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기존의 견해들은 ‘기자조선=위만조선’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서 평양과 대동강 유역을 기자와 위만의 도읍지로 인식했지만 『한서』 지리지는 기자 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것이 낙랑군 조선현이고, 위만 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것이 요동군 협독현이라고 분리해서 기술하고 있다. 『독사방여기요』는 낙랑군 조선현을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인 영평부 일대라고 서술하고 있고, 그 북쪽에 장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뿐만 아니라 소위 연·진 장성의 소재까지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보다 자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려사』 「지리지」3, 『예지(禮志)』, 『악지(樂志)』, 『지용수 열전』  
金景善, 『燕轅直指』, 『鳳凰城記』

『史記』 「朝鮮列傳」

『後漢書』 「郡國志」

『晉書』 「郭璞 列傳」

『晉書』 「地理志」

『隋書』 「地理志」

『漢書』 「地理志」

『北史』 「裴矩列傳」

『元史』 「地理志」

『讀史方輿紀要』 卷17

『史記』 「宋微子世家」

『水經注』 23권, 泅水

『漢書』 「地理志」

이병도, 『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담원 정인보전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서영수, 「대외관계사에서 본 낙랑군」, 『사학지』 제31집, 1998.

리지린, 『고조선사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3.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진단학회, 『역사가의 유향』, 일조각, 1991.

黃惠賢 主編, 『二十五史人名大辭典』, 中州古籍出版社, 上册, 1994.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說第1冊』, 1915.

津田左右吉, 『涇水考』, 『朝鮮歷史地理(1913)』, 『津田左右吉全集(1964)』 제11권, 岩波書店

[Abstract]

## On the Location of Joseon-hyoun in Nangrang-gun

Lee, Deok-II

The location of Nakrang-gun(樂浪郡), one of four Han colonial districts,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because the early Korean histor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true location of Joseon-hyoun(朝鮮縣) which was belonged to Nakrang-gun. China asserts that Joseon-hyoun was located near modern Pyoungyang of North Korea based on the writings of several toadfish confucianists of Joseon dynasty and the scenario which had been made by the vice-regal offic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force. Meanwhile other confucianists of late Joseon dynasty claimed that Nakrang-gun was a part of ancient Yodong(遼東). This view was succeeded by Korean patriots who were also historia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 truth of these two claims regarding the location of Joseon-hyoun should be resolved by history books written in the period when Nakrang-gun was existed. Modern Pyoungyang area was considered to be the location of Joseon-hyoun of Nakrang-gun since the 12th century in Koryo dynasty by toadish confucianists. They regarded modern Pyoungyang as the place where Gija(箕子) of Eun(殷) dynasty had settled down to keep away from the king Mu(武) of Ju(周) dynasty. This recognition indicates that Gija was considered to arrive at Pyoungyang in 2400 years later since he had left his homeland in the BC 12th century. The common view among Korean historians maintains that the capital of Gija Joseon was replaced with the capital of Wiman(衛滿) Joseon. However,

the geographical details of Hanseo(漢書) states that capitals of Gija and Wiman Joseon are two different places: the capital of Gija Joseon was located at Joseon-hyoun of Nakrang-gun and the capital of Wiman Joseon was located at Heomdog(險瀆)-hyoun of Yodong-gun.

Chinese history books state with consistency that Nakrang-gun was located in ancient Yodong area. These books specified further that the Youngpyoung(永平)-bu of Myoung(明) and Cheong(淸) dynasty, Norong(盧龍)-hyoun in modern China, was the Joseon-hyoun of Nakrang-gun. They also indicated that there is the Great Wall at 30km north to the Norong-hyoun. These records are clear evidence that the Joseon-hyoun of Nakrang-gun was not located at the modern Pyoungyang region.

**Key Words** : Nakrang-gun, Joseon-hyoun, Vice-regal office of Joseon, Pyoungyang, Gija, Noryong-hyoun

『역사와 융합』 제 1집(2017. 12)

## 김현구가 보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황 순 중(고대사연구가)

- 차례 -

1. 서론
2. 가야 7국 평정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론은 허위다
3.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4. 백제에 의한 임나경영도 허위다
5. 백제와 일본의 관계
6. 결론

### 【국문초록】

김현구는 『일본서기』 진구왕후 49년(369)조에 기록된 임나 7국 평정을 사실로 인정하고 일관되게 이후의 임나경영에 관한 논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진구왕후가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진구 49년의 기록 자체가 부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평정의 주체인 여러 장군들 중에서 백제 장군 목라근자만 그 실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또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와 동일시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며 『일본서기』의 임나는 모든 면에서 『삼국사기』에 보인 한반도의 가야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임나와 인근하여 기록된 신라·백제·고구려도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열

도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었다. 임나는 가야와 비교할 때 그 기록된 위치, 건국 및 멸망시기, 속한 나라들 및 왕의 이름, 주변국과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가야와 다르므로 한반도에 있던 나라로 볼 수 없다.

김현구는 2백 년의 임나경영이 야마토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제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 역시 전연 불합리하다. 백제의 목씨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다는 내용이 『일본서기』를 해석할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한반도에 없던 임나를 백제가 다스렸다는 가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일체 그 근거가 없는 허구일 뿐이다.

(주제어) 임나와 가야, 임나일본부, 목씨의 임나경영, 야마토 정권, (왜 · 백제 간) 왕실외교

## 1. 서론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는 『야마토(大和) 정권의 대외관계』(1985), 『임나일본부의 실체』(1987), 『임나일본부 연구』(1993), 『고대 한일교섭사의 제문제』(2009),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2010) 등의 저술을 통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와 ‘임나일본부’에 대해 논해 왔다. 김현구의 논지는 ‘임나’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같은 나라인데, 이 임나를 백제가 평정하여 서기 4~6세기에 2백 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메이지시대 이후 지난 150년 동안 역시 임나를 가야로 보았는데, 한반도 남부의 이 임나를 야마토 왜 정권이 평정하여 다스렸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구는 임나를 ‘야마토 왜’가 다스렸다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대신 ‘백제’가 다스렸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인 사학자들의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한 것 같지만 그 내부 논리로 들어가 보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 더 심각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김현구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나 7국을 평정했다는 『일본서기』 진구(神功)왕후 49년(369)의 기사는 일본에서도 허구로 인정되고 있다. 진구왕후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진구왕후 때까지의 기록은 믿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가공의 인물에 의한 임나정벌 역시 가공의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진구왕후 때의 일을 토대로 임나 7국 성립을 논한다.

둘째, 임나라는 나라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 기록에 나오는 가야와는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허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현구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처럼 임나와 가야가 같은 나라라는 전제하에 모든 논리를 전개한다. 허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다.

셋째, 김현구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관계 기사에서 야마토 왜가 주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백제가 주체였던 것처럼 바꿨으나, 거의 모든 내용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허위에 불과하다. 『일본서기』만을 토대로 임나문제를 논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내용들을 허위로 해석한다는 것은 양심적인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 2. 가야 7국 평정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허위다

『일본서기』에는 주아이(仲哀)왕 9년(320), 진구왕후가 바다를 건너 신라를 정벌하니 신라왕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맹세했다고 한다. 이에 고구려와 백제의 왕도 스스로 진구왕후의 영외에 와서 야마토 왜의 서번(西藩)으로 칭하며 조공을 약속하니,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삼국을 야마토 왜의 직할령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49년 뒤(369) 진구왕후가 장군들에게 명해 신라를 격

파한 후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임나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김현구는 위 기록의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을 당연히 한반도의 삼국으로 보고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임나와 가야는 이름부터 다른데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두 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일본서기』는 이 임나 7국을 비자벌·남가라·녹국·안라·다라·탁순·가라라고 명시한 데 비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가야 6국을 금관가야·대가야·고령가야·아라가야·성산가야·소가야라고 명시해서 나라 수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은 『일본서기』의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이 임나와 인근한 것으로 나타나는 신라·백제·고구려도 일본열도에 있던 삼국의 분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임나와 가야가 다른 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이 임나를 포함한 4국이 한반도의 4국과는 별개이므로, 한반도의 임나를 백제가 평정하여 경영했다는 김현구의 설이나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남선(南鮮)경영론은 애초부터 성립의 여지가 없는 허구이며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임나는 학문적으로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김현구가 허위의 임나일본부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다른 여러 측면에서 위 『일본서기』 기사들의 허구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진구왕후가 320년 신라·고구려·백제를 정벌했다는 이른바 3한 직할령에 관한 기록은 김현구의 표현대로 “진구왕후의 3한 정벌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sup>2)</sup> 『삼국사기』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일체 없는 사실

에서도 이는 분명해진다. 더구나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게도 삼국을 속국으로 삼았다는 것이니 일제 패전 후에는 일본인 사학자들까지도 차마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왕후즉의 출병규모나 함선의 수, 장군의 이름, 신라와의 구체적 전투장면 하나 없이 삼국의 대왕들이 무릎을 꿇었다니 이것을 어찌 사실의 기술로 볼 수 있겠는가?

둘째, 진구왕후가 369년 신라를 격파하고 임나를 평정했다는 기록도 허황되고 모순되기는 마찬가지다. 49년 전에 이미 신라를 신속시켰는데 왜 또 신라를 쳐야했을까? 49년 전에 일본이 한반도의 삼국을 신속시킬 만큼 막강했는데 당시에는 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임나(가야)는 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때 와서 새삼 임나를 평정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했다는 것인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이유에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일본서기』에 이 때 출정한 장군들 여러 명의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 경과에 대해서는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비자벌·남가라·녹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고 한 것이 기록의 전부이다. 다른 나라와의 중요한 전쟁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사실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는가?

셋째, 『일본서기』의 신라와 임나 정벌이 한반도에 관한 것이라면 『일본서기』는 물론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320년이나 369년에 왜와 관련된 기록이 일체 없다. 그러므로 진구왕후의 3한 정벌이나 임나평정은 다른 사료적 근거가 없는 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 「신라본기」를 보면 왜와 관련된 기사로 312년( 흘해이사금 3년) “왜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인을 청하므로 왕은 아찬 급리의 딸을 보내 혼인시켰다.”고 했으며, 344년(흘해이사금 35년)에는 “왜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혼인을 청하였으나, 신라에서는 먼저 여자를 출가시킨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록했다. 「신라본기」의 기록은 특별히 조작한 기사로는 보이지 않는데, 『일본서기』와 비교해 보면 양국 간에 혼인관계를 맺은 후 8년 만에 진

1) 일본열도 내의 분국설을 주장한 학자로는 김석형,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63;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문정창, 『고대일본사: 한국사의 연장』, 인간사, 1989; 김인배·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고대사』, 고려원, 1995;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등이 있다.

2)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41쪽

구왕후가 신라를 정벌한 것이 되어 부자연스럽다. 또 진구왕후가 신라를 신속시켰다면 그후 24년에 신라가 왜의 혼인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본기』에는 혼인을 거절한 다음 해(345)에 “왜국왕에게 글을 보내 국교를 단절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왜병이 쳐들어 와 금성을 포위하였으나 이를 물리쳤다. 이후 364년(내물이사금 9년)에도 왜적이 크게 쳐들어 왔으나 대패하여 거의 다 죽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5년 후인 369년에 왜가 신라를 격파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앞선 두 번의 침입시에 패한 왜군의 전투력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의 관계는 양쪽의 기록을 면밀히 비교하여 고찰해야 함이 상식인데도 김현구나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서기』의 기사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논리를 전개하니 올바른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369년의 『일본서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벽중·포미지·반고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왕 부자와 아라타와케·목라근자 등이 함께 의류촌에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후한 예로써 맞이하였다. 오직 지쿠마 나가히코와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에 올라 회맹하였다. 다시 고사산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말했다. ‘만약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든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로 자리를 만든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로써 지금 이후 천추 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라 칭하고 봄 가을로 조공하겠다.’ 곧 지쿠마 나가히코를 데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하게 예를 더하고 구저 등을 함께 보냈다.<sup>3)</sup>

일본군이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니 백제왕 초고(근초고 대왕)와 왕자 귀수(태자 근구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서로 만났으며, 지쿠마 나가히코는 초고왕과 두 번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 초고왕이 왜의 신하(제후)로서 왜에 영원히 조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일언반구도 기록된 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초고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이라면 이는 조작된 기사다. 조작이 아니라면 『일본서기』의 이 기록은 일본열도 내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백제왕이나 태자의 이름을 한반도 백제의 왕이나 태자의 이름으로 쓴 것은 열도에서의 일을 한반도의 일로 조작하기 위한 『일본서기』 편자들의 붓장난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현구는 이러한 『일본서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단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때의 주체를 아마토 왜가 아니라 백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

우선 근초고대왕은 일본 식민사학자들도 인정한 백제의 중흥군주로서 이후 태자 근구수대왕 때까지 백제가 위세를 떨치던 전성기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근초고대왕은 『일본서기』에 진구왕후가 신라를 치고 임나를 평정했다는 369년에, 고구려 병사 2만의 침입에 태자를 보내 5천의 군사를 참획하는 큰 전공을 거두었다. 이런 백제의 근초고대왕이 『일본서기』에는 일본의 나가히코에게 신속을 맹세하는 한심한 군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 해에 과연 근초고대왕이 한가하게 한반도 최남단까지 태자와 같이 내려가 일본 군대를 만날 상황이었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근구수태자가 고구려 병을 물리친 것이 9월이었으며 대왕은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했다고 되어 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근초고대왕 부자가 일본을 상국(上國)으로 떠받들기로 두 번이나 맹세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대왕은 위 369년의 2년 후 고구려군의 침입을 물리치는 한편 여세를 몰아 태자와 함께 3만의

3) 『일본서기』, 진구왕후 49년 3월 조.

병력으로 고구려의 도읍 평양까지 진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위세를 떨쳤다. 또 근구수대왕은 377년에 3만의 병력으로 다시 평양을 치는 위용을 보였다. 중국과 대등하게 맞선 고구려를 치고 들어간 근초고 · 근구수대왕이 무슨 까닭으로 왜를 하늘같이 섬긴단 말인가? 김현구는 삼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일본서기』만 맹신하고 『삼국사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다. 그는 일본 유학 시 박사학위 논문을 『야마토 정권의 대외관계』라고 하여 한 · 일관계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으며, 최근 본인 스스로 법정에서 『삼국사기』는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넷째, 위에서 『일본서기』에서 진구왕후 때까지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공인된 정설이다. 이것은 필자의 과장이 아니며 김현구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거나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 일본에서도 그 사료비판 능력에 따라 학자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sup>4)</sup>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일본서기』를 사료로 활용할 경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삼국사기』 등 다른 사료를 통한 교차검증은 불가결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김현구의 위의 언급은 면피용 발언임을 아래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① 한반도남부 경영문제는 결국 『기(記)』(고사기古事記를 말함; 필자) · 『기(紀)』(일본서기를 말함; 필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sup>5)</sup>

② 6세기의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기본 사료로서는 한국측의 『삼국사기』와 일본측의 『일본서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가 6세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좋은 싫든 전적으로 『일본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게 다른 사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구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김현구는 친일 경도 사관만 일관될 뿐 앞뒤가 서로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위의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김현구 자신이 “좋은 싫든 전적으로 『일본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게 다른 사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구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삼국사기』 · 『삼국유사』는 배제하고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한반도 남부경영론) 등 6세기의 한일관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구 자신이 말한 대로 신빙성이 적은 『일본서기』는 원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임나는 물론 가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임나든 가야든 백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임나를 가야로 보더라도 임나에 관한 모든 기록은 허위로 보아야 옳다. 그러나 김현구는 이처럼 허위인 『일본서기』의 백제 · 임나관계를 유일한 사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구왕후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 학계의 정설이고, 김현구 자신도 이를 인정했다.

5) 김현구, 『임나일본부연구』, 1993, 7쪽.

6)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일지사, 2009, 21쪽.

4)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31쪽.

그러나 오늘날 시각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진구왕후의 3한정벌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는 학문적으로도 진구왕후의 3한정벌은 사이 메이(齊明)천황이 663년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4백여 척의 배에 2만 7천여 명의 군대를 백촌강 싸움에 파견한 사건을 모델로 하여 가공된 이야기라는 것이 통설이다.<sup>7)</sup>

진구왕후가 후대의 사이메이여왕을 모델로 한 가공의 인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본서기』 진구 조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sup>8)</sup> 김현구 자신도 지적했듯이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들도 이미 전전부터 임나 7국 평정 등의 기사를 부정해 왔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일본인들도 부정한 임나 평정 기사를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논하고 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임나 평정시 참여한 아라타와케·가가와케·목라근자·사사노케 등의 장군들 중 백제장군으로 기록된 목라근자만 실제의 인물이라며 나머지 장군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라 해석하여, 임나평정이 목라근자 즉 백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료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진구 조에 기록된 허구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4명의 장군 중 1명만 실제의 역사라는 논리는 다른 사료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 목라근자와 그 후 백제의 임나 경영이라는 김현구의 억측과 조작에 대해서는 마지막 4항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7)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39쪽.

8)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2쪽.

### 3.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임나에 관한 식민사학의 모든 논의는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와 같은 나라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의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임나일본부설’이든 스에마쓰처럼 ‘남선경영론’이든 김현구의 표현대로 ‘한반도 남부경영론’이든 모두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임나와 가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앞선 연구자들의 결론을 소개하겠다.

고려대 최재석 명예교수는 『고대한일관계사연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조작에 방해가 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조작으로 몰고, 가야와 미마나(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함이 없이 말로만 가야와 미마나는 동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와 미마나가 전혀 별개의 나라라는 증거는 있을지언정 같은 나라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다.<sup>9)</sup>

‘임나=가야’라는 것은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한편 고고학자 안춘배 교수 역시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에서 ‘가야=임나’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일본측에 의해서 정리된 고고자료만으로도 임나일본부설의 성립은 어려운 사실이고,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임나일본부설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한일 양국의 고고학자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 임나일본부설이란 과거의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 속에 심정적으로

9)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143쪽.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10)</sup>

문헌사료만이 아니라 고고학 사료를 살펴봐도 ‘임나=가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군국주의자들의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임나흥망사』에서 논한 임나관 자체가 문헌사료는 물론 고고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비학문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최재석 교수나 다른 학자들의 지적에 단 한 번도 논리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으니, 이는 자신의 주장이 학문이 아니라 일방적 정치선전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김현구는 나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설을 따랐다.”<sup>11)</sup> 고 했으며,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 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스에마쓰 야스카즈였다.”<sup>12)</sup> 고도 했다. 허구로 드러난 ‘임나=가야’라는 스에마쓰를 ‘고전적 정의’를 내린 사람으로 극찬하고, 또 스에마쓰의 지명 비정에 따라 임나 강역을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까지로 이해하고 있는 김현구는 과연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나가 가야와는 판이한 나라라는 증거는 오히려 너무 많아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만 간략히 논하겠다. 첫째, 임나의 위치에 대해 『일본서기』 스진(崇神) 조에는 “북쪽으로 바다에 막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고 했다. 신라를 뜻하는 계림의 서남쪽에 있으며 북쪽이 바다로 막힌 곳은 대마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에마쓰를 비롯한 식민사학에서는 임나가 ‘북쪽으로 바다에 막혔다’는 부분은 모른 척하고, ‘계림의 서남쪽’이라는 구절만 가지고 임나를 한반도 신라의 서남쪽에 있던 가야와 동일

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스에마쓰의 임나에 관한 위치 비정을 그대로 추종하여 임나가 가야라 하며, 그 영역이 경상도 일대만이 아니라 전라도 전역에 이르렀다는 설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와는 다른 실체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백제본기」·「고구려본기」에는 임나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스에마쓰나 김현구의 주장대로 임나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친 대국이었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신라본기」에는 임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야는 서기 77년부터 등장하여 532년에 신라에 병합되고, 562년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가 이사부와 사다함에게 진압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모두 15건의 기록이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신라와 임나와의 관계에 대해 529년에 와서야 처음 기록되었으며 그후 646년까지 집중적으로 15건이 보인다. 『삼국사기』의 신라·가야 관계 기사와 『일본서기』의 신라·임나 관계 기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기사도 단 하나도 없으며, 같은 해에 기록된 경우도 562년 1회를 빼고는 없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가야·신라는 『일본서기』의 임나·신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두 기록에 모두 나오는 562년의 기사를 보면, 『삼국사기』에는 가야가 모반하므로 이사부와 사다함에게 토평하게 하니 사다함이 5천의 기병으로 성을 함락시켜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서기』에는 신라가 긴 창과 강한 활로 임나를 공격해 백성을 살상했다고 한다. 이 두 사건이 다른 곳에서 벌어진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니, 신라에서 가야를 토평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작전임에 비해, 임나를 공격한 일은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한 비정규군 사이에서 발생한, 백성을 죽이는 노략질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임나는 가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상이며, 두 기록의 신라도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나라임을 알게 된다. 즉 『일본서기』의 임나와 신

10) 안춘배,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 『가라문화』 제8집, 1990, 58~59쪽.

11)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43쪽.

12) 위와 같음, 16쪽.

라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열도에 있던 마을 수준의 작은 나라들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백제와 가야와의 관계를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임나는 물론 가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다. 김현구의 논리대로 백제가 369년에 임나를 평정하고 2백 년 동안 경영했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임나에 관한 기록이 없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임나의 강역이 전라도 전역에 이르렀다면 백제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삼국사기』에서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까? 학문은 평범한 상식에서 출발한다. 임나는 한반도에 없었고 가야 또한 경상도 지역에만 있었기에 백제와는 충돌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백제·임나 관계 기사가 8회 보이는데, 이는 일본열도에 있던 임나와 인접한 백제를 말한 것이다.

넷째,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는 점은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명백해 진다. 가야와 임나는 각각에 속한 나라들의 숫자와 이름들이 다 다를 뿐 아니라 두 나라의 건국시기, 멸망시기, 왕들의 이름, 각각의 국세나 주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수록 가야와 임나는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더 이상 세부적인 검토는 생략하겠다. 황국사관에 병든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이나 그 설을 일부 변형한 김현구의 ‘임나ㅇ부설’은 『삼국사기』 등 다른 사료와 비교해보면 파탄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끝으로 임나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에마쓰 자신의 임나에 대한 위치 비정을 통해 알아보겠다. 『일본서기』에는 임나에 속한 나라 이름이나 그에 속한 읍 등 20여의 지명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가라·안라·다라·탁순·사이기·줄마·고차·결찬·임례 등 10여 개 나라 이름과 침미다례·포미지·반고·상차리·하차리·사타·모루 등의 현읍 이름이 그것이다.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이런 지명들의 위치를 비정하려면 먼저 일본열도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

상적일 것이다. 만약 그 중 일부가 한반도에서 찾아질 경우 신중한 방법으로 인정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제 패전 후에도 다시 우리를 점령하려는 스에마쓰같은 일본 극우파의 안중에 그런 합리적 자세가 있을 리가 없다. 스에마쓰는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가정 아래 그 술한 지명들을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삼국사기』 「지리지」를 구석구석 이 잡듯이 뒤졌지만 단 하나도 같은 지명을 찾지 못했다. 오사카를 한반도에서 찾으니 찾아질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스에마쓰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한반도에서 찾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발음이 일부 유사한 지명을 한반도에서 찾아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지명들이라고 비정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실증주의에 의한 ‘문헌고증’이다.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탁순(卓淳)’이나 ‘탁국(喙國)’이 모두 ‘달구화’(지금의 경북 대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둘 다 대구로 할 수 없으니까, ‘탁순’은 대구로 비정하는 대신 ‘탁국’은 그 남쪽 3리에 있었다는 ‘압독군(押督郡)’(지금의 경북 경산)으로 비정했다.<sup>13)</sup> 이처럼 자기 머릿속의 공상으로 위치 비정하는 것을 역사학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발음이라고 해도 ‘탁국’과 ‘압독’이 유사성이 인정되겠는가? 그리고 탁국을 대구 남쪽 3리의 경산으로 비정하려면 『일본서기』에 탁순 남쪽 3리에 탁국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러한 기록은 없다.

‘침미다례(枕彌多禮)’에 대한 위치비정도 마찬가지다. 침미다례는 일본어로 ‘도무다례’로 읽는다면 일본어 발음으로 위치 비정을 시도한다. 스에마쓰는 이를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주(武州)의 도무군(道武郡) 및 그 군의 속현의 하나인 동음현(冬音縣)이라면서 도무군에서 비롯된 전남 강진이 침미다례라고 주장했

1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昭和 24年(1949), 여기서는 昭和 52年(1977), 46쪽.

다.<sup>14)</sup> 한자로 위치를 찾기가 불가능하니까 일본어 발음으로 비슷한 곳을 찾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지배하겠다는 야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발상이다. ‘침미다레’에서 뒤의 두 글자는 어디 가고 앞의 두 글자만 가지고 논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침미다레’를 찾으려면 ‘침미(沈彌)’군을 찾아야지 일본식 발음으로 ‘도무(道武)’군을 찾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침미’를 일본어로 바꾸면 ‘시즈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무시하고 침미다레를 강진이라고 우기는 것인데, 김현구는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스에마쓰를 김현구는 임나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내린 대학자로 평가하고 있으니 그 정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없던 임나를 신라와 백제보다 큰 나라라고 설정한 스에마쓰의 임나관을 ‘고전적 정의’라고 칭찬하고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설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의 스에마쓰 추종경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4. 백제에 의한 임나경영도 허위다

임나일본부에 관한 김현구의 논리의 핵심은 왜가 임나를 경영했다는 스에마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백제가 경영했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삼국사기』등을 토대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일본서기』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더구나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록에 나오는 왜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백제로 바꾸려다 보니 억측에 억측을 거듭하고 심지어 사료의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우선 1항에서 본 대로 진구왕후의 임나 평정은 가공의 기록이다. 그런데도 이

14)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47~48쪽.

기록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장군들 중 백제 장군 목라근자만 실제 인물로 추정하고 그의 임나 평정을 역사적 사실로 취급한다. 관련 기록을 보자.

아라타와케(荒田別)·가가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사백개로를 보내 군사의 증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곧 목라근자(木羅斤資)·사사노궤(沙沙奴跪)(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레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벽중·포미지·반고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아라타와케·가가와케 등은 함께 의류촌에 모였다.<sup>15)</sup>

이 기록에서 정벌의 주체는 아라타와케·가가와케이며 목라근자·사사노궤는 지원군이다. 그러므로 백제왕 부자를 만났을 때도 아라타와케·가가와케 등만 언급하고 목라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 장군 목라근자가 지원군으로 참여한 것도 백제왕의 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왜왕의 명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에서 목라근자를 백제 장군이라 주석한 것은 그의 출신을 말한 것으로서 왜에 귀화한 인물이나 그의 조상의 출신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 『일본서기』 진구 49년 3월 조.

탁순에 집결하여 가야 7국을 평정하는 군대의 책임자는 신라를 치러왔다는 야마토정권의 아라타와께·카가와께가 아니라 증원군이라는 형태를 띠고 등장한 백제장군 목라근자였다고 생각한다.<sup>16)</sup>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려면 근거를 대야 하는데 김현구는 자신의 ‘생각’이 근거의 전부다. 또한 김현구는 “아라타와께·카가와께는 성과 씨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sup>17)</sup> 과연 아라타와께·카가와께는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일까? 아라타와께의 경우 『일본서기』 오진(應神) 15년(404) 조에 모야군(毛野君) 집안의 선조라고 명기하고 있는 인물이다.<sup>18)</sup> 다른 사료도 아닌 『일본서기』에 나오는 인물을 마음대로 가공의 인물로 몰 수는 없다. 가야 7국 정벌을 주도한 아라타와께가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의 인물로 몰고 세운 김현구의 모든 논리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설혹 목라근자가 백제장군이라는 김현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백제가 임나(즉 가야)를 평정했다면 후일 신라가 가야를 평정하고 군현으로 편입시켰듯이 백제도 군현으로 편입하고 지방관들을 파견해 다스렸을 것이다. 백제만큼 넓은 임나를 어렵게 평정해 놓고 ‘임나○○부’같은 이상한 조직을 두어 다스릴 필요가 없다. 또 목라근자에게 임나 경영을 맡기고 또 그 아들 목만치(木滿致)와 목씨 일가에게 대대로 전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백제왕과 대등한 임나왕을 따로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백제 왕실에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

를 백제와는 다른 특수 지역으로 만들려는 김현구의 창작일 뿐이다.

목라근자의 아들이라는 목만치에 대해서 오진(應神) 25년(414) 조에 이렇게 기록했다.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이에 아들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 어려 대왜(大倭)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천황은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 [『백제기』에서는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貴國)과 왕래하였다. 천조(天朝)의 명을 받아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 소환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일본서기』는 414년에 백제 직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다고 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그 해가 4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6년의 오차가 있다. 그리고 목만치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위 기록은 한반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왜열도의 백제·신라와 임나에 관한 것으로 보겠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기』는 왜에 살던 백제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 백제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당연히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목만치에 대해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편 그 아들 목만치는 『삼국사기』 475년 기록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문주왕을 따라 공주로 남천하는 백제에 실재했던 인물로 확인된다.<sup>20)</sup>

16)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47쪽.

17) 위의 같음, 47쪽.

18) 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巫別於百濟, 『日本書紀』, 應神 15年 8月조.

19) 『일본서기』 오진 25년 조.

20)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010, 48~49쪽.

목만치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실재 인물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소 『삼국사기』를 사료 취급도 하지 않는 김현구는 사료 조작이 필요할 때만 『삼국사기』에 기대다. 『삼국사기』에는 ‘목만치’는 없고 ‘목협만치(木協滿致)’라고 나온다. 그런데 위 『일본서기』 오진 25년의 기록대로라면 목라근자가 신라정벌 때(369) 신라부인에게 낳은 목만치는 475년에 105세가 넘는다. 105세가 넘는 노인이 문주왕(당시 개로왕의 태자)을 호위하여 남천하는 목협만치로 볼 수 있을까? 또 『일본서기』에는 414년에 목만치를 왜로 소환했다는 기사를 끝으로 목만치는 기사에서 사라졌다. 앞의 『일본서기』에 ‘대왜(大倭) 목만치’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목만치는 처음부터 왜인이었던 것이다. 목만치의 나이가 문제가 되자 김현구는 『삼국사기』 기록을 마음대로 추가한다.

『일본서기』에서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라고 써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목라근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369년부터 그 아들 목만치가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475년 사이에 백제가 신라와 싸운 것은 403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가 유일하다. 403년을 전후해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은 『광개토태왕비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백제기』의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신라 여자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목라근자가 목만치를 얻은 것은 403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일본서기』에 인용한 『백제기』에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신라 여인을 얻어 목만치를 낳았다고 함은, 『일본서기』 진구 49년(369)의 신라 정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403년 ‘신라 변경을 쳤다’에서 신라 변경을 친 장군이 목라근자라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왜 하필

목라근자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목만치의 출생을 늦추어 그의 나이를 475년에 70세 정도의 호위대장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 변경을 쳤다’는 이 짝막한 기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전해주지 않는 사소한 사건이다. 이를 목라근자가 했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사료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백 보를 양보해서 목만치가 475년에 70여세의 백제의 호위대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가 도일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현구는 이렇게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서기』와 『백제기』가 다 같이 그가 한반도에서 활약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음을 전하고 있고, 『일본서기』가 그 아버지 목라근자를 ‘백제장’이라고 명기하면서도 그를 ‘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목만치가 도일하여 왜인이 되었음을 잘 말해준다.<sup>22)</sup>

『일본서기』와 『백제기』에는 위에서 본 대로 414년에 그를 일본으로 소환했다고 했을 뿐, 김현구의 주장대로 475년 이후 그가 일본으로 왔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김현구는 마치 『일본서기』와 『백제기』에 목만치가 475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기술하고 있다. 또 목라근자를 ‘왜인’으로 인식한 것은 그가 이미 귀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아들 목만치도 대왜(大倭)라고 표기한 것처럼 소환되기 전부터 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지 475년 도일 이후 왜인이 된 것이 아니다. 또한 김현구의 주장대로 목만치가 ‘왜인’이 되었다면 목만치에 의한 임나지배는 왜에 의한 지배이지 백제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없다. 김현구의 백제에 의한 임나지배라는 것이 허설임이 스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현구는 목만치 이후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 관련 인물들도 모두 목씨의

21) 김현구, 위와 같음, 118~119쪽.

22) 위와 같음, 119~120쪽.

후에라면서 백제의 관리로 둔갑시키고 있다. 487년 임나에서 반란을 일으킨 키노 오히스쿠네를 목군(木君) 유비기(有非岐)라 하고,<sup>23)</sup> 529년 임나부흥회의를 주관한 오미노케나노미를 목군(木君) 윤귀(尹貴)<sup>24)</sup>, 그리고 562년 임나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키노오노마로 역시 목씨였다고 추정했다<sup>25)</sup>. 김현구는 목씨 앞에 군(君)자를 붙여 그들을 임나왕인 것처럼 인식되게 했지만 목군이란 말은 『일본서기』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유비기를 목씨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가 키노 오히스쿠네와 키노 오노마로를 목씨로 보는 근거는 이렇다.

그런데 키씨의 ‘키(紀)’(=키=키)는 『고사기』나 『일본서기』에는 ‘목(木)’(=키)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일본 음으로는 ‘기(紀)’나 ‘목(木)’은 같은 키(=키)음인 것이다. . . . 키씨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씨족이 맞다면 키씨의 한반도에서의 성씨는 목씨였으며 도입하기 전 한반도에서는 목씨 일족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김현구의 모든 논리는 가정의 연속이다. 키씨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씨족이 아니라면? 키씨의 한반도에서의 성씨가 목씨가 아니라면? 도입하기 전 한반도에서는 목씨 일족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가정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료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는 학문이지만 김현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김현구의 추정이 설사 맞다고 치더라도 『일본서기』는 목라근자나 목만치를 왜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그 후손들 역시 이미 왜인이자 백제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현구의 주장대로 그들이 행위 당시 백제인이었다면 임나와 관련된 후에는 왜 모두 왜로 귀화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인가? 이는

23) 위와 같음. 60쪽.

24) 위와 같음. 67쪽.

25) 위와 같음. 80쪽.

26) 위와 같음. 125쪽.

김현구의 희망사항이지 그러한 기록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기신(紀臣)에서 신(臣)자는 마음대로 없애 버리고 ‘기(紀)’자를 김현구 마음대로 ‘목(木)’자로 바꿀 수도 없다.

한편 임나 경영과 관련하여 김현구는 왜계(倭系) 백제관료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백제에서 활약한 왜계 백제관료들은 원래 한반도 출신인 일본 호족의 자제로 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백제의 지방장관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 . . 지방장관으로는 차리(영산강 동안)의 지방장관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 동방(충남 은진)의 영(領) 모노노베노 마가무노무라지, 임나 지역에서 활약하던 고세노오미·기비노오미 등이 있다. 이들은 백제 지방장관으로서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왜병들을 지휘하기도 했다.<sup>27)</sup>

김현구는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穗積臣押山) 등 4인의 지방장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을 왜계 백제관료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위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왜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왜계 백제관료라고 멋대로 국적을 바꿔버린 것이다. 훗날 주한미국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을 멋대로 한국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케이타이 6년조는 일왕 게이타이가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를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sup>28)</sup>고 전하고 있다. 왜인이란 뜻이다. 또한 그는 백제에 갔다가 차리 국수(國守)가 되어 있는데<sup>29)</sup>, 국수는 야마토왜의 관직명으로서 김현구가 이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백제의 지방장관이라고 변조시킨 것이다.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의 경우

27) 위와 같음. 192쪽.

28) 穗積臣押山使於百濟. 『日本書紀』「繼體 6年」4月조.

29) 哆唎國守穗積臣押山. 『日本書紀』「繼體 6年」12月조.

게이타이(繼體) 7년(513) 조에 ‘위(委: 왜)의 오시아마키미’라고 하여 왜인임을 밝히고 있지<sup>30)</sup> 백제계 운운하는 말은 없다. 더구나 게이타이 6년 12월에조에 호즈미노오미는 왜왕에게 임나 4현을 백제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는 그가 일왕으로부터 임나의 국수로 임명받은 신하로서 자국의 왕에게 건의했음을 알게 한다. 만약 그가 백제의 지방장관으로서 임나를 다스렸다면 이미 백제가 다스리는 4현을 백제에게 달라는 것이니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현구가 이런 사료 조작까지 하는 것은 누가 『일본서기』 원문을 대조해 보겠는가라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를 부정하고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본서기』마저도 번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학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허위 논리로 평생을 대학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호도하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를 지내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을 역임했으니 이 나라 역사학계가 지탄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물론 『일본서기』 전체가 허구는 아닐 것이다. 비록 『일본서기』의 진구왕후까지의 기록은 허구이고 그 후 오진(應神)부터도 개변·윤색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임나나 백제에 관한 그 수많은 내용을 몽땅 부정하는 것도 학구적 태도가 아닐 것이다. 필자의 좁은 견해로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세의 일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 기록들을 한반도에서의 일로 만들기 위해 『일본서기』의 기록을 변조해서 정치 선전으로 만든 것으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백제왕에 관한 기록인데, 열도의 백제에 관한 일을 한반도 백제왕의 이름으로 써서 혼동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임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본서기』의 백제 성명왕(『삼

국사기』의 성왕) 때의 일을 보겠다. 김현구는 임나 문제에 있어 야마토 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 . . 임나 문제에 대해 야마토 정권은 단순히 백제를 지원하는 위치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31)</sup>고 하면서, 그 예로 541~544년 사이 임나재건 문제로 일왕이 백제의 성명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성명왕이 임나 7국 대표들을 모아 대책을 세우고 일왕의 뜻을 받든다는 기사 4가지를 언급했다. 그 기사 중의 하나에는 일왕이 성명왕을 질책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爾)는 누차 표를 올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말은 그렇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임나는 네 나라의 동량이다. 만일 동량이 부러지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짐이 생각하는 바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빨리 세우라.<sup>32)</sup>

일왕이 성왕에게 ‘너’라고 부르며 꾸짖는 『일본서기』 기사를 김현구는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일왕은 황제로서 백제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백제왕은 제후로서 천황에게 상표를 올렸다는 이런 기사를 믿는다면 백제는 명백하게 일본의 속국이며 신하의 나라라는 뜻이 된다. 더구나 그 내용이 백제왕을 ‘너’라고 하대하면서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된다. 김현구는 왜가 백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예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제가 왜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541~544년 사이는 물론 성왕 재위 32년(523~554) 동안 단 한 건의 일본 관계 기사가 없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김현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그가 언급한 4가지 기사들

30) 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日本書紀』「繼體 7年」, 6月조. “호즈미노오미 오시아마키(위(委)의 의사이마키미이다). 위(委)는 왜(倭)와 통용되는 글자로서 노국왕인(奴國王印)에서도 왜(倭)를 위(委)로 썼다.

31) 위와 같음, 135~136쪽.

32) 『일본서기』「긴메이(欽明) 4년」, 11월 조.

은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그의 논리대로 임나를 예전에 백제가 지배했다면 왜 일왕이 임나의 재건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백제가 신라에 빼앗긴 임나를 되찾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일본은 백제를 도우면 끝날 일이다. 『일본서기』에서 일관되게 임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이 당초부터 야마토가 차지했던 땅이라는 전제하에 재건을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애초부터 임나를 차지한 것이 백제라고 무리한 가정을 하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모순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신라가 만약 임나 10국을 멸해 가졌는데 『일본서기』는 그 가운데 7국이나 되는 많은 대표들이 임나재건을 위해 백제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3)</sup> 신라는 눈 뜨고 반역하러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인가? 도무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또 신라는 임나 지역을 지방군현으로 재편했을 텐데 어떻게 옛 명칭의 대표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경상도의 가야 밖에 차지한 일이 없는데, 김현구나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의하면 전라도 땅까지 신라가 차지한 것이 되니 언제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나? 이와 같은 술한 모순을 가진 김현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으니, 이는 백제가 임나를 지배한 일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임나는 반도에 없었으니 지배할래야 지배할 수 없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까지 임나를 백제가 지배했다는 김현구의 가설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했다. 김현구의 백제에 의한 임나지배설은 일견 식민사학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왜에 의한 임나지배를 부정하고 백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해 준 자부할 만한 성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설은 일본인들의 왜에 의한 임나지배설보다 더 식민사관에 경도된 논리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백제 성왕과 일본 천황과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백제를 왜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결국 백제의 임나지배라는 것은

실제로는 왜의 임나지배는 물론 왜의 백제지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 5. 백제와 일본의 관계

김현구는 백제와 왜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표현할 때만 대등한 관계였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임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증거들을 거듭 보여준다. 그 증거들은 아래에서 논하듯이 거의 대부분 허위이거나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필자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리하다. 스에마쓰만은 한국 재침략의 환상을 가졌으나 다른 일본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치적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나지배설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백제를 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총론적 논리는 견지하고 있으나, 김현구처럼 백제의 왜에 대한 저자세 왕실외교 문제 같은 것은 논하지도 않았다. 일본인들도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데 김현구는 무슨 생각으로 집요하게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임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도 김현구가 늘 강조하는 사실 중 하나는 백제 전지대왕 · 동성대왕 · 무령대왕의 왕후가 일본 왕실의 여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8년만에 귀국한 직지왕의 부인 이름이 팔수부인(八須夫人)으로 써여 있다. 고대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에 ‘팔’이라는 글자가 흔히 들어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 이름에 ‘팔’자를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직지왕의 부인은 일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일본은 661년 백제 왕자 풍의 귀국에 즈음하여 그를 일본 여인과 혼인을 맺게 한 예가 있다. 이런 면에서도 야마토정권은 직지가 귀국하기에 앞서 그를 일본 여인과 혼인을 맺게 했을 가능

33) 『日本書紀』「欽明 2年」4月조.

성이 높다. 그렇다면 동성왕이나 무령왕의 부인도 일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도 일본에서 성장하여 혼기가 지나 귀국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백제의 왕자들을 정책적으로 혼인시켜 돌려보냈다면 그 상대는 황가의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왕자들이 혼인한 상대가 천황가의 여자들이었다면 백제왕가에도 일본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다.<sup>34)</sup>

이 길지도 않은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번이나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한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백제왕가에도 일본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라는 것이다. 김현구는 전지대왕(김현구는 『일본서기』대로 늘 직지왕이라 한다) · 동성대왕 · 무령대왕의 부인(김현구는 왕후 · 왕비라고 하지 않고 부인이라고만 한다)이 일본 여인일 것이라 추측하며, 왜 왕실에서 정책적으로 혼인시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백제 왕실의 의중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의 혼인은 전적으로 왜측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를 김현구가 백제는 왜의 속국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필자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겉으로는 백제와 왜가 대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종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위 세 대왕들의 왕후를 일본인이라고 보는 것 역시 김현구의 억측일 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전지대왕의 왕후 팔수부인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 전지왕 조에 나오는데<sup>35)</sup>, 김현구는 그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고 ‘팔’자 하나만을 근거로 일본여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국사기』 전지왕 조에 김현구의 추정이 허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다.

왕은 서제(庶弟) 여신, 그리고 해수 및 해구를 좌평으로 삼았는데 모두 왕의

친척이다.<sup>36)</sup>

전지대왕이 세 명을 좌평으로 삼았는데 왕의 동생 여신은 왕성인(부)여씨이며, 친척의 척(戚)은 왕후의 집안을 말하므로 해수 · 해구에서 보듯 왕후의 성 역시 해(解)씨로 백제인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왕후가 백제 8성 중 하나인 해씨라고 밝히고 있는데, 김현구가 일부러 모른 척 했든지 이를 모르고 일본 여인으로 억측한 것이다.

또 동성대왕과 무령대왕이 왕자 시절 일본에 있었다는 것도 『일본서기』에만 있지 『삼국사기』에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전지대왕이 태자 때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나온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없는 동성대왕 · 무령대왕의 일본 체재 사실을 『일본서기』의 기록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일본서기』의 기록대로 두 대왕의 일본 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지 태자의 경우에서 보듯 두 대왕이 일본 여인과 혼인했을 가능성은 김현구의 표현대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역대 백제왕들 중에 일본 여인을 왕후를 두었다는 기록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에마쓰같은 식민사학자도 이런 발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김현구가 강조하는 것은 백제에서 왕자와 왕녀들을 왜에 인질로 보내 왜왕을 섬기게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왜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질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직지왕(재위 405~419)이 그 누이동생 신제도원을 일본에 보낸 뒤 백제에서는 적계여랑 · 지진원 등 왕녀들을 잇달아 일본에 보낸다.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건너간 왕녀의 신분이었던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가는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천황이 ‘지진원을 취하

34) 김현구, 앞과 같음, 187쪽.

35)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즉위년조.

36)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3년 조.

려 했는데 이시카와노다테와 관계를 맺었으므로 화형에 처했다'(유랴쿠천황 2년(457) 7월 조)는 내용으로도 그들의 혼인 상대가 짐작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천황가에 백제왕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37)</sup>

김현구는 백제에서 왜로부터 군원을 얻기 위해 왕자와 왕녀들을 인질로 보냈다고 하면서 그 왕녀를 일왕이 불태워 죽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대등한 나라에서 보낸 왕녀를 다른 나라에서 불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김현구가 백제를 왜의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삼국사기』에는 없고 『일본서기』에만 있는 이런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 왕녀를 보낸 것에 대해 김현구는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일본서기』 상에는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 각 왕녀들의 도일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적계여랑은 일본천황의 요청에 의해서, 신제도원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진원은 채녀(采女)로서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의 도일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백제에서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 세 왕녀를 왜에 보낸 것은 '일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같은 책에서 이것이 당시의 관행이라고도 썼다.

그런데 웅략기 5년(461) 조에는 옛날에는 여(女)를 보냈는데 무례하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동생인 곤지 즉 남자를 보내서 천황(김현구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쓴다)을 섬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왕이 누이동생인 신제도원을 파견한 이래 461년 곤지를 파견할 때까지는 백제의 왕녀들이 왜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제도원·적계여랑·지진원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되는 것이다.<sup>39)</sup>

거듭 말하지만 위 내용들은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일본서기』에만 나오는데 문제는 『일본서기』를 따라도 김현구가 말한 왕녀 및 관행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우선 '신제도원은 일본천황을 섬기기 위해' 보냈다고 한 자체가 허위이다. 『일본서기』 오진(應神) 39년 2월 조에는 “백제의 직지왕이 그 누이 신제도원을 보내 임무를 맡겼다. 신제도원은 7명의 부녀자를 거느리고 왔다(百濟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以令任. 爰新齊都媛率七婦女而來歸焉).”고 했는데, 이것이 신제도원에 대한 기록의 전부이다. 여기서 '영임(令任)'이란 '임무를 맡겼다'는 뜻인데 김현구는 이를 '천황을 섬기기 위해'라고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다른 판본에 영사(令仕)라고도 나오는데, 이는 벼슬을 주었다는 뜻이다. 적계여랑과 지진원의 경우도 김현구는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조작했다. 『일본서기』 유랴쿠(雄略) 5년 조는 “(백제의 가수리군은) 지진원[적계여랑이다.]이 불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飛聞池津媛 [適稽女郎也.]之所燔殺)라고 하여 지진원이 곧 적계여랑이라고 주석했다.<sup>40)</sup> 김현구는 천황을 섬기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 같은 사람인 지진원과 적계여랑을 두 사람으로 늘린 것이다. 더구나 지진원은 왕녀도 아니다. 같은 『일본서기』 유랴쿠 5년 조는 지진원에 대해 “옛날에 여인을 채녀(采女)로써 바쳤는데 무례하여 아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채녀라고 설명하고 있다. 채녀는 궁녀다.

김현구도 앞에서 본 대로 지진원을 채녀라고 썼으므로 그녀가 왕녀가 아닌 줄

37) 김현구, 앞과 같음, 186쪽.

38) 김현구, 『고대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68~169쪽.

39) 위와 같음, 167~168쪽.

40) 『日本書紀』 雄略 5년 4월조.

알았을 것이고, 적계여랑과 지진원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제 왕실에서 왕녀들을 정기적으로 왜에 보내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일본서기』마저도 허위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임무를 수행하러 간 왕녀 신제도원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조작하고, 왕녀가 아닌 채녀 지진원(즉 적계여랑)을 왕녀로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그 숫자까지 늘려 조작했다. 이 어찌 학자의 소행이라 하겠는가?

김현구는 백제 왕녀들만이 아니라 남자 왕족들도 천황을 섬기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웅락기 5년(461) 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도일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량이나 마나군·시아군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도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량이나 마나군·시아군 등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sup>41)</sup>

김현구의 논리는 천황을 섬기기 위해 왕녀들이 파견되다가 지진원이 불타 죽은 후에는 남자 왕족들을 보내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왕녀들의 경우처럼 김현구가 대부분의 신분을 조작한 데 있다. 곤지는 백제왕의 동생이므로 왕족이지만 의다량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부레스(武烈) 3년(501) 11월 조에, “백제 의다량이 죽었다. 다카다 언덕에 장사지냈다.”<sup>42)</sup>고만 기록했다. 왕족이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도 김현구가 그렇게 허위로 만든 것이다. 마나군도

부레스 6년 조에 백제의 사신이라고만 했지 왕족이란 내용은 없다.<sup>43)</sup> 게다가 다음 해 부레스 7년 조에는 “지난 번에 조공한 사신 마나는 백제(百濟)국주(國主)의 골족(骨族)이 아니다.”<sup>44)</sup>라고 왕족(골족)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김현구는 그를 왕족으로 둔갑시켰다. 백제에서 왕족들도 주기적으로 보내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조작하기 위해서다.

위에서 본 대로 임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 김현구가 백제와 왜 사이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사료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원하는 답은 이제 자명해 진다고 하겠다. 즉 백제는 고대 야마토 왜의 속국이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한 마디로 임나를 지배한 백제를 야마토 왜가 지배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나를 왜가 지배했다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임나를 지배한 것은 백제인데, 그 백제를 지배한 것은 야마토 왜니, 결국 왜가 임나는 물론 백제까지 지배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직접적인 식민사학보다 더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 6. 결론

임나에 관한 김현구의 모든 주장과 논리체계는 비학문적·비논리적 방법에 입각한 허위의 체계이다. 임나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구왕후라는 가공 인물이 임나를 정벌한 일이 없었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으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임나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그 본래 모습인 일본 열도 내의 역사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찬 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일본인들에게

41) 김현구, 『고대한일교섭사의 제문제』, 2009, 169쪽.

42) 『日本書紀』 武烈 3년 11월조

43) 百濟國遣麻那君進調 『日本書紀』 武烈 5년 10월조

44) 『日本書紀』 武烈 7년 4월조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을 평생 해오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삼국사기』를 토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했다. 『일본서기』에서도 한반도 역사의 일부나마 진저 보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워낙 윤색, 가필, 번개가 심해 그 진위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서기』의 ‘윤색, 가필, 번개’의 목적은 고대 야마토가 고대 한국을 지배하거나 그 삼국이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일본서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서기』마저 많은 부분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비학자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사료조작의 원칙은 무엇인가? 한국사에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일부 기사는 모두 외우면서도 한국에 유리한 기사는 모두 부인한다. 임나가 설치되었다는 『일본서기』의 369년이나 371년, 372년의 기사는 『삼국사기』에 대비해보면 거짓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경우 김현구는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한다. 김현구는 겉으로는 백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지만 조금만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보다도 더 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시는 『삼국사기』·『삼국유사』같은 우리측 사료는 부정하면서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일본서기』까지도 번개, 조작하는 이런 행태가 역사학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활개쳐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백제본기」

『일본서기』

김석형,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63.

김인배·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고대사』, 고려원, 1995.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김현구, 『한일교섭사의 제문제』, 일지사, 2009.

문정창, 『고대일본사, 한국사의 연장』, 인간사, 1989.

안춘배, 「고고학상에서 본 임나일본부설」, 『가라문화』 제8집, 1990.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昭和 24年(1949).

[Abstract]

## A Recognition on the Ilbonseogi and Samguksagi by Kim Hyungu

Hwang, Soon-Jong

Hyungu Kim's position on Imna Prefectural Government during the 4th and 6th centur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Imna was the same country as Gaya which was the one of the four countries of the old Korea, namely Shilla, Baekje, Goguryo and Gaya. His position is the same as with all Japanese scholars and most of Korean scholars. Secondly, he insists that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Baekje, and with this respect he differs from the remaining all other scholars' position that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Wae(old Japan).

Hyungu Kim's position on these two points is not true. In my opinion, Imna and Gaya were different countries, namely Imna was a Japanese country and Gaya was a Korean one. So Imna was conquered and ruled by Wae, and Gaya, by Shilla(a Korean country). That means Korean Gaya was not ruled by Japanese Wae. But at the end of 19th century all Japanese scholars of the imperial Japan began to insist that Gaya was the same country as Imna and therefore, Wae conquered and ruled Gaya. But such conclusion was not based on the rational analysis of the related material of both Korean and Japanese, but was made cheatingly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Chosun a colony.

Hyungu Kim followed the theory of Suemasse Yaskaze and regarded Imna as Gaya, but insisted that Imna was ruled by Baekje and denied the theory of Suemasse Yaskaze which insisted the Japanese ruling of Imna. These two points

of Kim's hypothesis, however, are wrong,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mna cannot be Gaya, because both countries totally differ in their years of beginning and perishing, their locations, names of kings, relations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hilla, Baekje and Goguryo.

Second, Imna was not ruled by Baekje. According to 『Ilbonseogi』 Imna was perished by 4 Japanese generals including one Baekje's general named Moknagunja. With regard to this record, Kim insisted Moknagunja's single role and denied other 3 generals as the non-existing people. But the names of the 3 people can be found in New Record on the Family Names, and so Kim's insistence cannot be accepted.

Second, Kim regarded Baekje as a sub-country of Japan. He mentioned some records of Ilbonseogi in which the king of Wae ordered the king of Baekje to recover Imna. He also emphasized a usual custom of Baekje to send the princesses and princes to Wae to serve the kings of Wae. But there was no such custom at all. He explained about 3 princesses and 3 princes for some 40 years, but no one was found in the Ilbonseogi.

**Key Words** : Imna and Gaya, Imna Prefectural Government of Japan, Management of Imna by Mok families, Yamato Wae, Diplomacy between Wae and Baekje Dynasty.

『역사와 융합』 제 1집(2017. 12)

## 스에마쓰와 김현구의 임나 위치비정에 관한 소고

정 암(전 관동대)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임나 설치의 근거
3. 『일본서기』의 가야7국에 대한 위치비정 검토
4. 전라도가 임나지역이라는 논리 검토
5. 나가는 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스에마쓰의 『임나홍망사』에 서술된 임나 관련 장소를 검토했다. 거기서의 장소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에 나오는 가야7국, 남만 침미다례, 스스로 항복한 4읍, 백제왕과 야마토 왜 장군이 회맹한 산이다. 스에마쓰는 그 장소를 한반도에서 찾기 위해 『삼국사기』, 『광개토대왕비』, 『삼국지』 등의 사료와 지명의 음운학적 접근을 시도해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 전라도 전역과 충청남도 일부에 비정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의 발음이 서로 비슷하면 무리하게 꿰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비정한 임나 지명 분포를 지리적 관계에서 살폈을 때 신공 49년조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김현구의 전제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에마쓰 야스카즈, 김현구, 일본서기, 임나일본부, 가야7국, 4읍

## 1. 들어가는 말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3세기부터 7세기 전반까지 거의 500년간 약 17회에 걸쳐 야마토 정권이 신라를 정벌했다는 기사와 미마나(任那) 미야케(官家屯倉)와 관계된 기사가 실려 있다.<sup>1)</sup> 일본인 학자들은 이 미마나 미야케를 일본 고대의 야마토 조정이 소유한 임나직할령이라 해석하고 경상남도 가야(伽倻) 땅에 비정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일까? 임나일본부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정한론에서는 그때 이미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의 가야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메이지 시대의 반 노부토모(伴信友)와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간 마사토모(菅政友)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저술은 군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일본서기』에 근거해 쓰였다.<sup>2)</sup>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임나=가야’라는 등식을 재생산하면서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남부설을 지속시켰다. 전후에 이들의 연구는 1949년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에 의해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로 정리되었다.

이들 연구에 대해 김석형은 1963년에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들에 대

1) 김석형, 『조선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171쪽.

2) 황순중,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만권당, 2016, 15-16쪽.

하여”라는 논문에서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남부설을 비판했다.<sup>3)</sup> 이 논문은 당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sup>4)</sup> 논문의 요지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삼국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그곳에 식민지를 가졌다는 설이다. 소위 말하는 분국설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문정창<sup>5)</sup>을 비롯하여 이병선<sup>6)</sup>, 김인배·김문배,<sup>7)</sup> 최재석,<sup>8)</sup> 윤내현<sup>9)</sup> 등이 분국설을 제기하면서 대마도설과 규슈설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최근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한반도 남부설을 주장하면서 임나는 백제가 지배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sup>10)</sup> 그는 또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스에마쓰 야스카즈였다”<sup>11)</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스에마쓰 설의 핵심은 바로 임나의 위치 문제인데, 김현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은 스에마쓰 설을 따랐다”<sup>12)</sup>라고 했다.

그래서 김현구는 최재석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sup>13)</sup> 그 비판의 근원은 스에마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에마쓰는 임나지역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쳐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와 논리가 다방면에 걸쳐 검토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

3) 김석형,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63.

4) 『任那日本府』, <https://ja.wikipedia.org>

5) 문정창, 『임나론』, 『일본상고사』, 백문당, 1970, 587-631쪽.

6)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7) 김인배·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 고대사』, 고려원, 1995.

8)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9) 윤내현, 『가야의 왜열도 진출』, 『한국열국사연구』, 만권당, 2016, 552-605쪽.

10)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11) 위의 책, 16쪽.

12) 위의 책, 43쪽.

13) 비판의 핵심은 스에마쓰의 견해를 수용하여 임나는 남한에 있는 전북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점, 임나는 가라제국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라가 임나라고도 말하니 임나=가라=가야라는 등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로 본다는 점이다(최재석, 『제2장 한일고대사관계연구: 김현구와 최재석의 비교』,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47쪽.)

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 기사에 나오는 지명의 위치비정과 그 지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임나 설치의 근거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일본서기』에 기록된 한반도 남부경 영의 주요 내용은 모두 369년 목라근자의 소위 ‘가야7국 평정’ 내용을 전제로 해서만 그 사실이 성립될 수 있다”<sup>14)</sup>고 했다. 이 말은 임나가 369년에 설치되었으며, 그의 논리가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조의 기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스에마쓰의 출발점과 같은 것이다.

A-1

“己巳(369年) 황전별(荒田別)·녹아별(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백제의 사자와 함께 군사를 갖추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 탁순국(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정벌하려고 했으나 군사의 무리가 많지 않음을 알고, 다시 군사(軍使)를 일본에 보내어 병력을 늘려줄 것을 청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목라근자(木羅斤資) 등을 보냈다.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쳐부렸다. 이로써 비자발(比自伐) 이하 7국을 평정했다. 이어 군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남만(南蠻) 침미다례(沈彌多禮)를 무찌르고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 백제왕 부자(尙古王·貴須)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이하 4읍은 스스로 항복했다. 백제왕 부자 및 황전별·목라근자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 천웅장언(千熊長彦)은 백제왕과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세를 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맹세를 했다.”<sup>15)</sup>

를 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맹세를 했다.”<sup>15)</sup>

A-2

“49년 봄 3월에 황전별(荒田別: 아라타와케)·녹아별(鹿我別: 카가와케)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구제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개로(沙白蓋盧: 사하쿠 코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즉 목라근자(木羅斤資), 사사노궤(沙沙奴跪)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比自伐),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7국을 평정했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海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沈彌多禮)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지(布彌支), 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녹아별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지금은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한다). 서로 보고 기뻐하며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천웅장언(千熊長彦: 지쿠마나가히코)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약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서 함께 반석(磐石) 위에 앉았다. 그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 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 칭하며 해마다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천웅장언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14) 김현구, 앞의 책, 55쪽.

15)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 56-57쪽.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딸려서 보냈다.”<sup>16)</sup>

위 인용문에서 A-1은 스에마쓰가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기사를 요약해서 자신의 책 『임나홍망사』에 실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축약되어 있어 내용이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A-2이다. 스에마쓰는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김현구는 황전별과 녹아별 등은 가공의 인물로 여기면서도 목라근자는 백제장군으로 보고 있다.<sup>17)</sup>

### 3. 『일본서기』의 가야7국에 대한 위치비정 검토

#### 3.1 스에마쓰의 가야7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의 신공 49년조를 사실로 믿고 아마토 왜가 정벌했다는 가야7국을 경상도 일대에 비정했다(지도1참조). 스에마쓰는 자신의 책 영문초록에서 “1893년에 출간된 간 마사토모의 임나고(任那考)는 임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선구적 역할을 했다. 과거 50년 동안 여러 중요한 서지학적 연구와 고고학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 『일본서기』에 기록된 한국 지명 연구를 수록한 1937년의 아유카이의 잡고(雜攷)가 임나 역사 연구에 새로운 견

16) 연민수 · 김은숙 · 이근우 · 정효윤 · 나행주 · 서보경 · 박재용, 앞의 책, 『역주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2014, 500-504쪽. 신공 49년조는 왜의 3차 신라출병에 관한 기사이다. 김석형(1988, 177-8)은 이 출병의 원인을 <공물>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마토 왕정에 3차 신라정벌이 단행되기 2년 전인 367년에 백제 사신이 공물을 바쳤고, 동시에 신라 사신도 공물을 바쳤다. 그런데 아마토로 가는 도중에 신라가 백제의 공물을 빼앗아 자기의 <공물>로 삼아 바쳤다는 것을 아마토 왕정이 알게 되었다. 아마토에서는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이를 책망했다는 기록이 있는 다음, 곧 49년(369) 봄에 습격했다는 것이다.”

17) 김현구, 앞의 책, 47쪽.

해를 더했다. 필자는 본 연구가 아유카이의 연구 덕분임을 알린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646년 이전 한일관계에 관한 모든 관련 주제 대해 임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이 방법은 본래 간 마사토모를 이은 것…”이라고 술회했다.



지도1. 스에마쓰(왼쪽)와 김현구(오른쪽)의 임나 위치비정(두 지도가 닮았음에 주목할 것)

간 마사토모의 『임나고』는 『일본서기』를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체계화한 글이다. 또 아유카이 후사노신의 「잡고」는 『일본서기 조선지명고』<sup>18)</sup>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지명을 음운학적으로 조사해서 일본서기의 가야7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의 경상도 일대에 비정하고 있다. 위에서 스에마쓰가 “본 연구가 아유카이의 연구 덕분”이라고 한 말은 사실이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대로 가져다 썼다. 따라서 이하에서 다루게 될 가야7국의 위치비정은 아유카이의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아무튼 본고는 『임나홍망사』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이라고 해두고 살펴보자.

그는 369년 아마토 왜가 군사를 보내 정벌한 곳이 가야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18) 鮎貝房之進, 『日本書紀 朝鮮地名攷』, 國書刊行會, 1937. 아유카이는 언어학자, 역사학자, 가인(歌人)으로 알려져 있다. 가인이란 좋게 말하면 한량이고 제대로 말하면 야쿠자란 뜻이다. 이 야쿠자는 명성황후 시해 계획에도 가담했고, 러일전쟁에도 적극 가담해 훈6등을 받은 극우 파시스트였다(황순중,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만권당, 2016, 49쪽)

그의 말이다.

“기사년(369년, 괄호는 필자)의 기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해에 평정했다고 기록된 지역의 넓이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신라를 공격해서 평정했다는 7국에 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낙동강 중류 이남의 태반에 걸쳐 있었던 지역이다.”<sup>19)</sup>

스에마쓰는 369년에 야마토 왜가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해서 7국을 평정했는데, 그 지역이 낙동강 중류 이남의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가야6국과 『일본서기』의 가야7국은 나라 숫자도 다르고, 나라 이름도 모두 다르다. 즉 『일본서기』는 이 임나7국을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삼국유사』는 가야6국을 금관가야·대가야·고령가야·아라가야·성산가야·소가야라고 기록하고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같은 국명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스에마쓰는 가야7국이 경상도 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따라 가보자.

먼저 비자발이다.

“(1)비자발(比自伐)은 서기(書紀: 일본서기를 말함)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 삼국사기의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군(比斯伐郡)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며,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이다.”<sup>20)</sup>

『삼국사기』 「지리지」에 비자화 또는 비사벌은 두 곳에 나온다. 하나는 완산(完山), 곧 전주의 옛 지명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창녕에 나온다. 같은 지명이 『신

19) 末松保和, 앞의 책, 46쪽.

20) 위의 책, 46쪽.

증동국여지승람』 창녕현 진치연혁에도 나온다. 스에마쓰는 창녕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김현구도 창녕으로 비정했다.<sup>21)</sup> 두 글자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두 글자가 같으니 그렇다고 해두자.

다음은 남가라이다.

“(2)남가라(南加羅)는 아래의 (7)가라(加羅)에 대한 지명이라고 생각되고,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남가야(南加耶)’로 비정된다,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이다.”<sup>22)</sup>

『일본서기』의 남가라(南加羅)와 『삼국사기』의 남가야(南加耶)는 다르다. 남가라에 대해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삼국사기』의 남가야라고 볼 수는 없다. 김현구도 스에마쓰 설에 따라 김해로 비정했다.<sup>23)</sup>

다음은 탁국이다.

“(3)탁국(喙國)은 삼국사기의 달구화현(達句火縣; 達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쉽지만, 아래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달구화는 (6)탁순(卓淳)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국은 달구화 남쪽 3리 남짓 떨어진 압독군(押督郡)이다. 압독의 독(督)이 탁(喙)과 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조선어 발음 ap)은 남쪽이나 앞[前]을 의미하는 조선어 ap, arp를 나타내는 것으로, 달구화의 지리적 관계로부터 생각해 보면 어울리는 이름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군이다.”<sup>24)</sup>

21) 김현구, 앞의 책, 43쪽.

22) 末松保和, 앞의 책, 46쪽.

23) 김현구, 앞의 책, 43쪽.

24) 末松保和, 앞의 책, 46-47쪽.

탁국은 『삼국사기』의 달구화, 즉 대구에 해당하지만 대구는 탁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국은 압독군, 즉 경상북도 경산군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산현 건치연혁에 압독은 경산의 옛 이름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탁국과 압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근거라고는 탁국의 ‘탁’이 압독의 ‘독’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탁국에서는 앞의 ‘탁’을 떼고, 압독에서는 뒤의 ‘독’을 떼서 비교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게다가 압독을 ‘앞’이란 뜻으로 읽어서 대구의 앞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박약하다. ‘앞’은 국어사전에서 “향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앞’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 자체에 방위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은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으며,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북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산의 실제 방위는 지도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구의 정남쪽이 아니라 오히려 동쪽에 더 가깝다. 김현구는 탁국을 녹국으로 읽으면서 스에마쓰 설에 따라 경산으로 비정했다.<sup>25)</sup>

다음은 안라이다.

“(4)안라(安羅)는 위지(魏志) 한전(韓傳)의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삼국사기의 아시랑국(阿尸良國)과 아나가야(阿那伽耶)이다. 호태왕비에는 그대로 안라로 보인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이다.”<sup>26)</sup>

스에마쓰는 세 곳의 자료를 들어 안라의 위치를 비정했다. 이들 자료보다 훨씬 후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함안군 건치연혁에도 “본래 아시랑국(‘아나가야’라 하기도 한다)인데,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다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안라를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스에마쓰가 자의로 안라를 변진구야국, 아시랑국 등으로 비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함안이라고 비정한 것이다. 김현구도 스에마쓰 설에 따라 함안으로 비정했다.<sup>27)</sup>

위 인용문의 “호태왕비에는 그대로 안라로 보인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자. 실제 『광개토대왕비』에는 ‘안라’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스에마쓰는 자신의 책에서 “일본 역사에서 임나문제의 기원은 전설적 기사에서 시작하고 있고, 역사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게다가 임나의 기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도 없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임나문제는 사실 기록을 문헌상 언제부터라고 보아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sup>28)</sup>고 말한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비』의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이라는 문장을 거론하면서 임나 기원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실용사례라고 지적한다.<sup>29)</sup> ○○○ 중에서 셋째 자리에 한자의 오른쪽 부분, 즉 근(斤) 같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신(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의 두 동그라미는 당연히 임나(任那) 또는 가라(加羅)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고는 동그라미 전체에 임나신(任那新)을 넣어 “신묘년에 백제·임나·신라에 걸친 넓은 지역에 군사를 보내 이들 국가와 고구려와의 종속 관계를 타파하고 새롭게 왜에 신속(臣屬)시켰다”<sup>30)</sup>는 의미로 해석해버렸다.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김진명에 의하면 『광개토대왕비』의 중국 측 권위자인 왕건군(王建群)의 저서 말미에 『광개토대왕비』의 저본이 필름 형태로 실려 있는데, 그것은 비석에 사람의 손이 가해지기 이전의 글자를 초균덕(初均德)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첫째 동그라미에 동(東)자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27) 김현구, 앞의 책, 43쪽.

28) 末松保和, 앞의 책, 37쪽.

29) 위의 책, 37쪽.

30) 위의 책, 37-38쪽.

25) 김현구, 앞의 책, 43쪽.

26) 末松保和, 앞의 책, 47쪽.

김진명은 동그라미 전체에 동정신(東征新, 또는 東伐新, 東侵新)을 넣어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임나·신라를 쳐부순 것”이 아니라 “백제가 동으로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명이 저본 자료를 들고 일본의 『광개토대왕비』 연구의 일인자인 도쿄대학의 동양사 교수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는 오랫동안 저본을 살펴 신뢰성을 확인한 뒤 “사실 그 자리에 임나(任那)를 집어넣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내 책에서 임나일본부를 빼고 다른 저자들에게도 권하겠습니다.”<sup>31)</sup>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에마쓰의 ‘호태왕비에도 안라로 그대로 보인다’라는 말은 근거를 잃게 된다.<sup>32)</sup>

다음은 다라이다.

“5)다라(多羅)는 삼국사기의 대량주(大良州) 또 대야주(大耶州)로서 다벌(多伐)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sup>33)</sup>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합천군 건치연혁에 “본래 신라의 대량주: 양(良)을 어떤 때는 야(耶)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지만 『일본서기』에 나오

는 다라와 ‘대량주’나 ‘다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양자의 관련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에마쓰는 다라를 경상남도 합천이라고 굳이 비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김현구는 무조건 스에마쓰를 따라 합천이라고 비정했다.<sup>34)</sup> 이에 대해 아유카이는 다다라(多多羅, tatla)를 다대포(多大浦, tatay kag)라고 하는 것 같이 방언에도 이렇게 서로 통하는 음이 매우 많다고 한다.<sup>35)</sup> ‘다다’와 ‘다대’가 어떻게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지명은 일본의 쓰시마<sup>36)</sup>나 규슈<sup>37)</sup>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탁순이다.

“(6)탁순(卓淳)은 첫째 탁순(喙淳)에서 만들었다(흥명천황기).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일본군의 집결지이자 아래 기술하는 것처럼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신의 도래지라는 점으로 볼 때, 앞서 말한 달구화(達句火)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대구이다.”<sup>38)</sup>

앞서 탁국(喙國)을 대구로 비정해야 하는데 탁순이 대구이기 때문에 탁국을 경상에 비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탁순을 대구에 비정하는 논리가 재미있다. 『일본서기』 신공 46년조에는 백제에서 사신을 탁순에 보내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길을 묻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에마쓰나 김현구가 말하는 백제는 한반도의 백제인데, 해양에 능한 백제가 왜 바다를 통해 바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내륙인 대구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겠는가? 논리가 매우 불합리한

31) 김진명, 『광개토대왕비의 사라진 세 글자』, 『김진명의 한국사 x 파일』, 새움, 2017, 38-71쪽을 참조할 것.

32) 김석형도 광개토대왕비의 이 신묘년 391년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해석을 비판한 적이 있다. 요컨대 그는 <“왜가 신묘년 이래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읽는 것이 대체로 일본 사람들에게 공통하는 독법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왜를 나라현 정권의 왜로 보는 것도 대체로 그들에게는 공통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왜가 나라현의 왜가 아니라 북규수의 왜이며, 읽는 것도 주어를 왜로 볼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왜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비문(碑文)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글이지 왜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왜가 실사 바다로 건너와 백제를 격파하고 그를 신민으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광개토대왕비에 기록할 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한다.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또는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하고 ○○○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이 견해는 왜가 바다 건너의 왜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지만, 한편 광개토대왕비를 대면할 때 누가 비문을 썼는지의 맥락을 알고 읽어야 한다는 점, 즉 고구려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한다는 관점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김석형, 앞의 책, 22쪽).

33) 末松保和, 앞의 책, 47쪽.

34) 김현구, 앞의 책, 43쪽.

35) 鮎貝房之進, 앞의 책, 302쪽.

36) 이병선, 앞의 책, 245-248쪽.

37) 김인배·김문배, 앞의 책, 341-345쪽.

38) 末松保和, 앞의 책, 47쪽.

데도 김현구는 스에마쓰 설을 그대로 따랐다.<sup>39)</sup>

다음은 가라이다.

“(7)가라(加羅)는 (2)의 남가라에 상대하는 지명으로 생각되며,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대가야(大伽耶), 즉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다.”<sup>40)</sup>

앞에서 남가라를 김해로 비정했는데, 남(南)자가 빠진 가라이므로 경상북도 고령의 대가야로 비정하겠다는 논리다. 김현구도 그렇게 했다.<sup>41)</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스에마쓰는 당시의 야마토 군대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물리쳤다고 전제하면서 그 일대의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꿩맞춘 것에 불과했다. 김석형이 『초기조일관계사』(하)에서 “일본인 학자들의 비정이 억지를 면치 못한다”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이 7국은 조작하여 늘어놓은 지명이므로 어디에다 비정할 가치도 없지만 비슷한 지명을 조선에서 찾기보다 기비지방에서 찾는 편이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42)</sup>

### 3.2 신라7국이라는 말의 모순

위에서 『일본서기』의 가야7국과 『삼국사기』의 가야6국은 이름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보았다. 지명에 같은 글자가 있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무리하게 서로를 대응시켜 비정하는 불합리를 드러냈다. 이는 필시 앞서 자신이 도

움을 받았다고 한 간 마사모토와 아유카이 후사노신의 그릇된 논리를 받아들여 거기에 한반도 남부의 지명을 꿩맞추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명을 일일이 비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치 비정한 지명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서로 간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일시에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곁들여야 각각의 지명을 비정한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스에마쓰는 이 점을 간과했다. 이하에서 이 말이 분명해진다.

A-2에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比自狹)·남가라(南加羅)·탁국(喙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 지명 비정에서 스에마쓰가 탁순을 대구라고 했으니까 탁순을 중심으로 따져보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해 깨뜨렸다고 했는데 곧이어 다시 탁순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탁순)와 경산(탁국)은 신라 영토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또 다시 탁순과 탁국을 평정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 문장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할 말이 더 있을 수 없다. 또한 전투를 해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기록할 때는 보통 정복군이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그래서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에 따라 지도 위에 표시해보았더니 복잡하게 얽힌 지그재그로 나타나서 어떤 방향성도 찾을 수 없었다.

스에마쓰는 앞서 탁국을 위치 비정할 때 “탁국은 삼국사기의 달구화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쉽지만, 아래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달구화는 탁순(卓淳)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국은 달구화 남쪽 3리 남짓 떨어진 압동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순은 ……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일본군의 집결지이자 아래서 기술하는 것처럼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신의 도래지라는 점으로 볼 때, 앞서 말한 달구화(達句火)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라

39) 김현구, 앞의 책, 43쪽.

40) 末松保和, 앞의 책, 47쪽.

41) 김현구, 앞의 책, 41쪽, 43쪽.

42) 김석형, 앞의 책, 181쪽

고 해서 탁순을 대구에 비정했다. 이 내용도 참으로 이상하다. 스에마쓰의 말대로라면 야마토 왜가 거점으로 삼은 곳이 경산이면 안 되고 꼭 대구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46년조 문장에 ‘대구’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스에마쓰의 서술 중에서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신의 도래지라는 점으로 볼 때”라는 발언은 성립할 수 없다. 아래 신공 46년조 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봄 3월 1일에 사마숙네를 탁순국에 파견했다. 이때 탁순왕 말금한기가 사나숙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갑자년 7월중에 백제인 구저, 미주류, 막고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왕은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귀국에 조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 그때 왕이 구저 등에게 <본디 동쪽에 귀국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지만, 아직 왕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다만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거칠어서 큰 배를 타고서야 겨우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길이 있다고 어찌 능히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구저 등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건너갈 수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선박을 준비한 다음에 왕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귀국의 사신이 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알려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이내 돌아갔다.”<sup>43)</sup>

위 내용에서는 야마토 왜가 신라7국을 정벌하기 3년 전에 백제의 사신을 탁순국에 파견했고, 사신이 탁순에 이르러 탁순인에게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거칠어서 큰 배를 타고서야 겨우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구저 등이 <지금 당장은 건너갈 수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선박을 준비한 다음에 왕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전부다. 거기에는 탁순이 대구라는 어떤

관련 정보도 없다. 그럼에도 스에마쓰는 신공 46년조 운운하면서 대구에 탁순을 비정했다. 논리를 왜 그렇게 이끌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해양에 능한 백제가 왜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었을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없었던 일을 지명에서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위치비정을 하다보니까 내륙의 지명이 선정되었고 지리적으로 맥락 없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탁순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쓰다도 내륙설을 부정했다. 그는 “신공 46년조에 따르면 백제인이 처음으로 일본에 입조하려고 할 때 탁순에 와서 통로를 찾았다. 이에 따르면 탁순은 바닷가에 있고 일본으로 통하는 좋은 항구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얼마간의 전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곳을 다른 방면으로부터 관찰해서 그 위치를 생각해야만 한다”<sup>44)</sup>라고 하면서 신공 46년조의 문헌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탁순의 위치가 내륙이 아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은 이 대목에서도 완전히 무너졌다.

앞서 스에마쓰가 다룬 『일본서기』 기사는 신공 49년조인데, 이 기사는 야마토 왜의 신라정벌기이다. 그런데 야마토 왜가 정벌한 7국에 스에마쓰가 위치 비정한 것을 보면 대구와 경산을 제외하면 5국은 가야 땅에 있다. 이를 두고 어찌 신라7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김인배·김문배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신공 49년조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신라7국이 아니라 가야소국이 된다. 말하자면 신라를 격파함으로써 7국을 평정했다고 했는데, 이때의 7국을 한국 땅에 비정하면 신라7국이 아니라 가야계의 소국이 되어버린다. 요컨대 『일본서기』의 위 기사를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

43) 연민수·김은숙·이근우·정효윤·나행주·서보경·박재용, 앞의 책, 494-496쪽.

44) 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第1卷, 朝鮮鐵道株式會社, 1913(여기서는 『津田左右吉全集』第11卷, 1964, 104쪽).

면 당시 이들 7국이 신라의 영토가 아니었는데 신라7국을 평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함안·김해·창녕·고령이 신라에 점령된 것은 514년(지증왕 15)이고, 금관가야가 멸망한 것은 532년(법흥왕 19), 창녕에 하주를 설치한 것은 555년(진흥왕 16), 대가야가 멸망한 한 것은 562년(진흥왕 23)이기 때문에 야마토 왜가 점령한 곳이 신라 강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5)</sup>

한 가지 덧붙이면 『삼국사기』 근초고왕 24년(369)조에 “가을 7월에 우리 군사가 신라와 더불어 구양에서 싸우다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500여 명이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A-2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공 49년(369) 봄 3월에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가야지역까지 평정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 지난 가을 8월에 신라는 백제와 싸웠다. 그리고 백제 군사 500여 명을 죽였다. 이는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의 내용이 한반도 남부의 상황이 아님을 말해준다.

야마토 왜와 백제의 연합군에게 봄에 무너진 신라가 회복하여 그 해 가을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신공 49년 조 기사와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이 사실이라면 신라와 백제가 전투를 벌이고 있던 시간에 야마토 승전군과 초고왕은 뒤에 살펴보게 될 강진(침미다례)에 있었거나 고사산에서 초고왕과 회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에 서로 다른 사건이 겹치고 있는 것이다. 이 황당한 상황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4. 전라도가 임나지역이라는 논리 검토

### 4.1 남만 침미다례

나아가 스에마쓰는 임나지역을 전라도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가

임나지역을 전라도까지 확장시키는 내용을 살펴보고 논리의 부당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의 저서 『임나홍망사』에 나오는 ‘침미다례’와 ‘강진’에 관한 기사이다.

“이어 둘째로 서쪽의 정복지로는 먼저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彌多禮)가 있다. 이것을 하나의 지명으로 본다면 중심은 침미(枕彌)에 있다. 침미에 관한 첫 번째 후보지로 여겨지는 곳은 삼국사기 지리지 무주(武州)의 도무군(道武郡) 및 그 군의 속현 중 하나인 동음현(冬音縣)이다. 도무(道武)와 동음(冬音)은 각각 군과 현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지역이지만, 원래 도무라는 지역에서 분화된 것으로 그 지방 일대가 도무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단에 가까운 강진(康津) 지방이다.”<sup>46)</sup>(A-2참조)

위 기사는 야마토 왜가 가야7국을 평정한 이후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례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주었다는 내용이다. 위치비정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없었다. 그래서 ‘침미다례(枕彌多禮)’의 한국어 어원을 분석했더니 ‘토무타례’로 발음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토무타례를 찾았다. 그런데 토무타례는 나오지 않고 대신 무진주에 속한 군현 중에 도무군이 있었다. 이 도무군을 토무타례와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대응시켰고, 도무군의 속현 중 하나인 동음현이 전라남도 옛 강진에 있었으니까 『일본서기』의 침미다례를 전라남도 강진에 비정한 것이다. 사실 이 논리는 아유카이가 만들어놓은 것인데 스에마쓰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김현구도 강진으로 비정했다.<sup>47)</sup>

다시 A-1로 돌아가서 인용문을 보면 “이어 군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남만(南

45) 김인배·김문배, 앞의 책, 304쪽.

46) 末松保和, 앞의 책, 47-48쪽.

47) 김현구, 앞의 책, 44쪽.

蠻) 침미다례(枕彌多禮)를 무찌르고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사에 언급이 없어 가야7국을 평정한 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루트를 따라 그곳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야마토 왜가 강진(침미다례)을 무찌러 백제에게 주었고, 백제왕 부자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만났다는 내용은 확연하다. 이 말에도 모순은 있다. 백제왕을 만나서 땅을 주어야 할 터인데 땅을 주고 난 뒤에 만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침미다례가 강진이라면, 강진은 백제 땅이다. 그런데 왜 야마토 왜는 백제 땅 강진을 빼앗아 백제에게 주었다고 하며, 백제왕은 왜 그것을 받았을까?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서기전 18년에 건국했다고 했는데 이 기사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신공 49년조 기사는 서기 369년의 사건이다. 당시의 강진이 백제 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는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sup>48)</sup> 이는 신공황후 49년조 기사가 한반도의 상황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 4.2 스스로 항복한 4읍

이어서 보면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는 침미다례를 백제에게 주었는데, 백제의 초고왕과 왕자 귀수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고 한다. 이때 비리(比利) ·

48) 사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정한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1894년 나카 미치요가 처음 주장했고, 이후 쓰다 소우키치에 의해 이른바 ‘문헌고증학적 방법론’이란 미명하에 확증되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서기』의 상당 부분이 조작되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유독 ‘신공황후 삼한정벌’ 기사나 ‘임나일본부’ 기사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국주의 침략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백제 역사에서는 근초고왕(재위 346-375) 이전의 350년 이상이나 되는 『삼국사기』 기사는 모두 부인했다. 김현구는 스에마쓰의 논리를 검토한다는 명목하에 『일본서기』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사학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병기, 『일본인들은 왜 삼국사기를 가짜로 몰았는가?』, 『이투데이』, 2016년 8월 12일자). 『삼국사기』 불신론의 진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최재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만권당, 2016.

벽중(辟中) · 포미지(布彌支) · 반고(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는 것이다. 스에마쓰는 “그 당시 스스로 항복한 4읍을 생각해 본다”라면서 다음처럼 비정했다(지도1참조).

“(1)비리(比利)는, 먼저 위지(魏志) 한전(韓傳)에서 찾아보면, 마한 조(條)에 모비리국(某卑離國) · 모모비리국(某某卑離國)이라는 여덟 개의 나라가 있고, 그 중에 단순히 비리국(卑離國)이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비리(比利)=비리(卑離)라고 해도 지장은 없다. 또한 호태왕비 말미에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 중에 새로운 한예(韓穢)의 하나로 ‘비리성간연팔가(比利城看烟八家)’가 보인다. 이어지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웅주(熊州) · 전주(全州) · 무주(武州) 지역에 모모부리(某某夫里)라고 불리는 군(郡) 또는 현(縣)이 모두 9군데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촌(村) · 성(城)’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명으로서의 비리(比利)=비리(卑離)는, 비자화(比自火)의 비자(比自), 비사벌(比斯伐)의 비사(比斯)와 같이,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이던지, 혹은 발라군(發羅(par-ra)郡)에 비정해서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이던지, 둘 중 하나이다.”<sup>49)</sup>

스에마쓰의 논리는 『삼국지』 「위지」 한(韓)조에 비리(卑離) 또는 ‘모비리(某卑離)’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광개토대왕비』에도 ‘비리(比利)’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일본서기』의 ‘비리(比利)’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에마쓰가 『삼국지』의 ‘비리(卑離)’나 『광개토대왕비』의 ‘비리(比利)’를 어디에 근거해서 전라북도로 비정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점은 논리 전개에 있어서 큰 약점인 것이다. 이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찾은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부리(夫里)’라는 지명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비리(卑離)와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리(比利), 『삼국사기』의

49) 末松保和, 앞의 책, 49-50쪽.

부리(夫里)는 언뜻 같아 보이지만, 이들 지명과 『일본서기』의 비리(比利)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만일 이들 지명을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고는 비리가 전주나 나주 둘 중의 하나라고 써놓았다. 김현구는 스에마쓰의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 이던지”라는 부분을 따서 비리를 전주에 비정했다.<sup>50)</sup>

다음은 벽중이다.

“(2)벽중(辟中)은 위지(魏志) 한전(韓傳)에서 마한의 한 나라인 벽비리(壁卑離), 삼국사기의 벽성(辟城) 또 벽골(碧骨), (일본)서기의 피성(避城)에 해당하여,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로 비정된다.”<sup>51)</sup>

이 역시 벽(辟)자 하나 가지고 꿰맞춘 결론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전라북도 김제라고 비정했는데, 김현구도 김제라고 했다.<sup>52)</sup> 스에마쓰에게 있어서 임나지역이 전라북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런 식의 지명비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포미지이다.

“(3)포미지(布彌支)는 아우카이(鮎貝)가 삼국사기 지리지의 벌음지현(伐音支縣; 淸音縣·伐音村·富林縣)에 비정한 것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벌(伐)의 조선표음은 por, 음(音)은 um이 되고, 지명에서도 종음(終聲) m에 차용되기 때문에, 포미지=벌음지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벌음지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리(維鳩里)의 북쪽에 해당한다.”<sup>53)</sup>

50) 김현구, 앞의 책, 44쪽.

51) 末松保和, 앞의 책, 50쪽.

52) 김현구, 앞의 책, 44쪽.

53) 末松保和, 앞의 책, 50쪽.

스에마쓰는 포미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우카이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 유구리 북쪽으로 비정했다. 김현구는 ‘미정’으로 남겨 두었다.<sup>54)</sup>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에마쓰는 임나지역을 전라도도 모자라 충청도까지 확장시켜버렸다.

다음은 반고이다.

“(4)반고(半古)는 아우카이(鮎貝)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말하는 반나부리(半奈夫里)의 반나(半奈)에 비정했지만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나부리(半奈夫里)는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군 반남(潘南)이다.”<sup>55)</sup>

반고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자 아우카이는 『삼국사기』 「지리지」 반남군에 속한 반나부리(半奈夫里)현에 비정했다. 반고(半古)와 반나부리(半奈夫里)는 물론 다르지만 반(半)자 하나는 같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현구도 이에 따라 반고를 전라남도 나주 반남에 비정했다.<sup>56)</sup>

이상 백제왕 부자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왜군과 합류하자 스스로 항복했다는 4읍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헌학적으로나 음운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음을 보았으며, 이는 스에마쓰에게 있어서 임나 땅이 전라북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황당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지도1참조). 지리적인 맥락에서 보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확연해진다.

A-2에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침미다례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도 이상하다. 아마도 왜가 강진 땅을 빼앗

54) 김현구, 앞의 책, 44쪽.

55) 末松保和, 앞의 책, 50쪽.

56) 김현구, 앞의 책, 44쪽.

아 백제에게 주는 것도 이상한데 그 국면에서 느닷없이 백제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는 말은 전라도 지역에서는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369년 당시는 4국이 분립하고 있었고, 나주(반노) · 전주(비리) · 김제(벽중) · 포미지(공주)는 이미 백제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신공 49년조 기사가 한반도의 상황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 4.3 백제왕과 야마토 왜 장군이 회맹한 산

계속해서 백제왕 부자와 왜군이 만났다는 의류촌(意流村)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에마쓰는 이렇게 말했다.

“(1)다음 넷째로 백제왕 부자가 황전별(荒田別) 장군 등과 만났다는 의류촌(意流村)에 관해 살펴보니 원주(原注)에 ‘지금의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한다’고 했으나, 그 주(注)는 본문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문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의류(ui-riu)는 당시 백제의 왕도 위례성(慰禮城: 漢城)의 위례의 대역(對譯)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분주(分注)에 있는 주류(州流)는 『일본서기』의 『천지(天智)기』의 주유(州柔) · 소류(疏留), 『삼국사기』의 주류성(周留城) · 두솔성(豆率城)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 현재의 땅으로서 아유카이(鮎貝)는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산성(茂朱山城)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고, 이마니시(今西) 박사는 전라북도 고부군(高阜郡)의 우금암산성(遇金岩山城)으로 비정했다.”<sup>57)</sup>

논리의 횡설수설로 말이 복잡해졌다. 문장을 분석해보면 의류촌(意流村)에 대해서 『일본서기』에서는 그 책을 편찬하던 당시에는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했

57) 末松保和, 앞의 책, 51쪽.

다는 말이다. 그래서 스에마쓰는 그 주(註)의 내용이 본문과 시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별도의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스에마쓰는 그것을 위례성이라고 해석했다. 말을 어렵게 만든 것은 그 뒷 문장이다. 자신의 해석에 탄 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비슷한 발음의 지명을 들고 있지만, 자신이 없으니 까 아유카이와 이마니시를 끌어들이 전라북도 무주산성 아니면 고부군 우금산성으로 보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스에마쓰가 의류촌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위례성과 아유카이의 무주산성, 이마니시의 우금산성 사이에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현구도 그 위치를 비정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한다’는 『일본서기』의 주석만 괄호 안에 넣어 놓았다.<sup>58)</sup>

다음은 벽지산이다.

“(2)다섯째로 천웅장언(千熊長彦)과 백제왕이 두 번 회맹한 산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 벽지산(辟支山)의 벽지는 앞서 말한 벽중(碧中) · 벽골(碧骨)의 벽에 해당한다. 벽은 조선어 piok이다. 골(骨)은 조선말음 kor를 써서 촌락의 발음은 kor로 표기된다. 산의 옛 훈을 ‘무례’라고 하는 것도 한어(韓語)에서 후대에 산을 moi라고 말하는(『訓蒙字會』) 것은 그것이 전화(轉化)된 것일 게다.”<sup>59)</sup>

이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기서의 벽지산은 앞서 전라북도 김제에 비정한 벽중(辟中)에 있다는 말이다. 김현구도 벽지산을 김제에 비정했다.<sup>60)</sup>

58) 김현구, 앞의 책, 44쪽.

59) 末松保和, 앞의 책, 51쪽.

60) 김현구, 앞의 책, 44쪽.

마지막으로 고사산이다. 스에마쓰는 이렇게 말했다.

“(3)고사산(古沙山)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전주 고부군의 옛 이름(古名)=고사부리(古沙夫里)에 해당한다.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의 땅이다.”<sup>61)</sup>

스에마쓰는 고사산을 전북 고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현구도 그렇게 말했다.<sup>62)</sup> 그런데 이 산들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긴다. 천웅장언과 백제왕이 백제국에 가서 먼저 오른 산은 벽지산이다. 그 산은 김제에 있다고 했다. 산을 특정하지 못하고 지명의 음가에 따라 넓은 지역에 비정해놓았는데, 김제에는 큰 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바닷가의 허허벌판이었을 것이다. 전승한 장군과 동맹국 국왕이 만나 맹약을 하는데 그 상징에 어울리는 산이 그곳에 있었을까?! 그들은 또 다시 고부에 있다는 고사산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고부군은 김제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30km가 넘는 곳에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투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남쪽의 강진에서 북쪽으로 진행했으면서 순서대로 고부에 먼저 들러 고사산에 오르지 않고 그보다 더 북쪽인 김제로 가서 산에 올랐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사산에 올랐을까?! A-2에서 이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그리고는 천웅장언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팔려서 보냈다.” 고사산에서 또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한강변의 도읍(스에마쓰가 언급한 위례성)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이는 아마도 왜의 승전장군과 백제왕이 회맹을 위해 남북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뜻인데, 이쯤 되면 그 이유가 『일본서기』에 서술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명을 이곳에 비정한 작자의 부연설명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필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

61) 末松保和, 앞의 책, 51-52쪽.

62) 김현구, 앞의 책, 44쪽.

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석형이 이를 두고 “유치한 작문”<sup>63)</sup>이라고 일축해버린 이유가 헤아려진다.

## 5. 나가는 말

스에마쓰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임나 관련 지명을 한반도에서 찾기 위해 『삼국사기』, 『광개토대왕비』, 『삼국지』 등의 사료와 지명의 음운학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지금의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일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부에 걸친 넓은 지역에 비정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었다. 발음이 비슷한 지명이 있으면 무리하게 대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비정한 지명의 지역 분포를 지리적 관계에서 살폈을 때 그것들은 신공 49년조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에마쓰의 위치비정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김현구의 전제도 수정이 요구되었다.

김현구와 관련해서 일본의 위키백과 「임나일본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고려대 교수로 일본 고대 사학자인 김현구는, 『일본서기』에는 왜가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면서 백제·고구려·신라의 문화를 반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백제·고구려·신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국제관계는 설명하지 않고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이 일본에 문화를 전파한 얘기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백제·고구려·신라의 문화를 일본에 전했다는 이야기는 12세기에 편찬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일본서기』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이 『일본서기』를 인용해서 아마도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 한국 학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

63) 김석형, 앞의 책, 180쪽.

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이러한 이중 잣대 때문에 일본 학계가 한국 학계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sup>64)</sup> 그의 발언은 『일본서기』를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스에마쓰에 대해서도 덧붙이면 그는 본래 한국어에 대한 음운학적 지식이 없다. 그가 아우카이의 『일본서기 조선지명고』에 기대어 위치를 비정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우카이는 명성황후 시해 계획에 가담했던 야쿠자 출신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의 역사관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언어학자 이병선<sup>65)</sup>은 아우카이의 위치비정에 대해 “지명이란 원래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로 굳어진 것이므로, 같은 계통의 지명이 한국 땅은 물론 대마도나 규슈에도 넓게 분포하는 것인데, 이에는 상관없이 어형(語形)과 차자(借字)가 비슷하면 함부로 비정하여 한국 고대사를 마음대로 조작했다”고 혹평했다. 본고에서도 그 말의 정당성이 확인된 셈이다.

## 참고문헌

- 김병기, 『일본인들은 왜 삼국사기를 가짜로 물었는가?』, 『이투데이』, 2016년 8월 12일자  
 김석형, 『조선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김석형, 『삼한 ·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63.  
 김인배 · 김문배, 『임나신론: 역설의 한일 고대사』, 고려원, 1995.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문정창, 『임나론』, 『일본상고사』, 백문당, 1970.  
 윤내현, 『가야의 왜열도 진출』, 『한국열국사연구』, 만권당, 2016.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 아세아문화사, 1987.  
 최재석, 『제2장 한일고대사관계연구: 김현구와 최재석의 비교』,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최재석,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최재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만권당, 2016.  
 황순중,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만권당, 2016.  
 연민수 외 6인, 『역주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2014.  
 김진명, 『광개토대왕비의 사라진 세 글자』, 『김진명의 한국사 ×파일』, 새움, 2017.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  
 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 1913, 朝鮮鐵道株式會社(『津田左右吉全集』 第11卷, 1964).  
 『任那日本府』, <https://ja.wikipedia.org>

64) 鄭大均, 『日本のイメージ: 韓國人の日本觀』, 1998, 中央公論社, 177쪽 (『任那日本府』, <http://ja.wikipedia.org>에서 재인용)

65) 이병선, 앞의 책, 5쪽.

[Abstract]

『역사와 융합』 제 1집(2017. 12)

## A Comparison of Suematsu Yasukazu and Kim Hyungu Regarding Imna

Jung, Ah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sites listed as Seven Countries of Imna and other place names which were appeared in the Yasukazu Suematsu' work The Rise and Fall of Mimana(任那興亡史). The place names are 15 under article 49 of the Singong empress(神功王后) that is in Nihonshoki(日本書紀), which is written in ancient times. Suematsu claimed that they were in Gyeongsangnam-do and the whole Jeolla-do province in the southern part of ancient the Korean peninsula. If there were place names to be similar in pronunciation by comparing with ones in Nihonshoki, he was forcibly connected both sides. In actuality, however, was shown to these methods are not convincing. In particular, when the writer considered his sites in a geographical context, No context is fully explain historical event under article 49 of the Singong empress in Nihonshoki in A.D. 369 which proves it. Therefore, Hyun-Gu Kim' one that was to uncritically follow Suematsu' view are also will have to be rectified.

**Key Words** : Yasukazu Suematsu, Nihonshoki, Hyun-Gu Kim, Imnailbonbu(vice-regard office of Imna), Seven Countries of Imna, Four Towns

## 이병도의 행적과 그의 역사관<sup>1)</sup>

김 삼 응(전 독립기념관)

- 차례 -

1. 금제의 성역 우상화된 역사학자
2. 총독부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
3. 해방 후 한때 '문제제기'됐으나 승승장구
4. 국정농단의 김창룡 비문 쓰다
5. 이완용 관뚜껑 소각한 실증사학자
6. 사육신 명단 바꿔치기
7. '민족'과는 먼 식민지 역사관

### 【국문초록】

이병도는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일종의 성역이 되었다. 이병도가 성역이 된 것은 그의 역사관이나 행적이 존경할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 각계에 포진한 그의 제자들이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역사관과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과연 한국 사회에 한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

1) 이병도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고대사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그가 고조선의 강역 및 한사군의 위치를 비롯해서 그가 정립한 대부분의 고대사가 주로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는 주로 현대사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병도의 고대사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제18집, 2014.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 제98호, 2014. 두 논문은 이병도의 고대사관이 사료적 근거가 없는 비실증적 논리라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병도는 조선 후기 노론의 대표적 가문인 우봉 이씨로 태어나서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들어갔다. 처음 서양사를 전공하려다가 요시다 도오고(吉田東伍)와 쓰다소우기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후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의 관점에 맞춰 한국사 전체를 왜곡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이병도는 이런 친일전력 때문에 해방 후 진단학회에서 제명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반공정책을 추진하고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를 뒤덮으면서 기사회생회 학계의 원로로서 승승장구했다. 이병도는 반공을 명목으로 수많은 민주 인사까지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의 묘갈명을 썼다. 이 묘갈명에서 이병도는 “간첩오열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다.”라고 2만5천명의 사람을 죽인 것을 큰 업적인 것처럼 칭송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으로 붕괴되었지만 그 전리품은 보수정치인들이 차지하면서 이병도는 허정 과도정권에서 4개월간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이때 그는 학생들이 정치민주화와 친일파 청산으로 나가는 것을 극력 저지했고, 교원노조 활동을 극력 방해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이병도는 『최고회의보』창간호에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기고하여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1977년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사주를 받아 사육신 유응부를 김문기로 대체하려 했고, 자신의 집안 친척인 이완용의 관 뚜껑을 불살라 버리는 반 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20년 가까이 학술원 원장을 역임했고, 1980년부터는 8년 동안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평생을 친일, 친독재로 일관한 이병도가 현재도 국사학계의 태두로 추앙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국사학계가 왜 외국과 달리 국민들의 배척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이병도, 진단학회, 김창룡 비문, 이완용 관뚜껑, 사육신

## 1. 금제의 성역 우상화된 역사학자

한국사회에 하나의 오래된 성역이 존재한다. 워낙 성채가 견고하고 수비병들이 많아서 함부로 접근이 어렵다. 민주화의 진척으로 독재자들의 성채가 하나씩 무너지거나 뚫린데 비해 이 성채만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덤비는 병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고한 성채가 유지된 것은 그만큼 현재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형이상학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의 다수는 거대한 성채의 카르텔에 편입되었다.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그 세계에서 입지(立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두계 이병도 박사’라는 고유명사는 지난 30년 동안(1976년 9월 현재 - 필자 주) 한국사학의 ‘대명사’요 국사정책 나아가서 국학의 총수라는 ‘무관의 제왕’으로 통달한 ‘이름씨’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박사의 민족사관(二 사학)과 혼도로 성장한 문학생들은 노박사의 사학관과 학문권위를 비호하는 침병마냥 기라성처럼 한국사학계의 저변에 깔려 돌아간다.<sup>2)</sup>

임승국의 이 글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라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친일파 인명사전』을 발행하면서 그의 친일행적이 어느 정도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한국사학의 거봉으로 태두로 우상화한다.

그의 아호를 따서 제정된 ‘두계학술상’은 제1회 이성무로부터 허홍식·홍승기·박용운(공동수상)·민현구·이수건·정두희·권영민·김리나·권용덕 등 사학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쪽으로까지 확대되어 시상한다.

2) 임승국,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를 논박한다』, 『자유』, 통권 제54호, 1976.

한국사학계에서 이병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추종을 불허한다. 진단학회가 펴낸 『역사가의 유향』에 보면, 사학계를 주름잡는 40여 명의 학자들이 그와의 관계(친분)와 학문을 칭송하고 추앙한다. 서문의 한 대목 - “이 추모문집은 우리 현대사학의 개척자요, 일세(一世)의 석학이요, 만인의 사장(師丈)이던 두계선생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두계선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값진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민현구.”<sup>3)</sup>

서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의 친일행적이나 김창룡 비문 쓴 일이나 이완용 관 뚜껑 소각사건 그리고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미화 사실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관과 많은 저서를 한껏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는 1896년 9월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선시대 서인과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인 우봉이씨 이봉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9년 3월 한성 보광학교에서 수학한 후 1910년 3월 사립 중동학교를 졸업했다. 1912년 3월 일본인이 세운 불교고등학교 예비과를 수료했고, 다음 달 보성전문학교 법률학과에 입학해 1915년 3월 졸업했다. 졸업하던 해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다음 해 7월까지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예과 문과를 수료했고, 두 달 후인 9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급사회학과(史學及社會學科)에 들어가 1919년 7월 졸업했다.

처음에는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했으나, 당시 일본사의 권위자였던 요시다 도오고(吉田東伍)와 쓰다소우기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귀국해 1919년 10월부터 1925년 8월까지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원을 지냈다. 1920년 7월 김억·나혜석·염상섭 등과 잡지 『폐허』를 창간한 후 동인으로 활동했고, 1922년 12월에는 염상섭·오상순 등과 ‘문인회(文

人會)’를 발기해 창립했다.

이병도는 대학 3학년 때 만난 와세다대학 강사 쓰다 소우키지와 동경대 조선사 교수 이케우치 히로시로부터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 그는 두 사람을 통해 실증사학을 익힐 수 있었고, 이케우치를 통해 실록을 처음 접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일본 역사학계의 임나일본부설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연구자들이었다. 이처럼 이병도는 일본인 학자의 자극과 영향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학부 졸업논문으로 『고구려 대청·당 항쟁사연구』를 제출했다.<sup>4)</sup>

이병도가 일본유학 시절에 실증사학과 임나일본부설을 연구하는 일인 교수로부터 받은 학문적 수혜는 그의 연구생애에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 2. 총독부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

일제는 1919년 3·1항쟁이라는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을 겪고 형식적으로나마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 정신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조선사편찬위원회(조편위)’의 설치를 서둘렀다. 1922년 12월 훈령 제64호를 통해 설치 규정을 재정하고 곧이어 ‘조편위’가 구성되었다.

사이토는 ‘조편위’의 설치에 앞서 교육시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①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역사·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혼·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②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

3) 진단학회 편, 『역사가의 유향 - 두계 이병도선생 추념문집』, 서문, 일조각, 1991.

4) 김일수, 『이병도와 김석형』,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185쪽.

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③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 서적·일본 인물·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사 편찬 작업이 바로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제의 조선사 왜곡과 날조는 결코 일부 사학자들만의 작업은 아니었다. 그들이 조선사 편찬 작업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 열성적으로 임했는지는 ‘조편위’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정무총감이 조편위 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총독부 주요 인물과 일본의 명성있는 사학자들을 위원으로 끌어들이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총독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출범한 ‘조편위’는 1923년 1월부터 총독과 정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조선사를 왜곡하는 ‘위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어용사학자들도 지도고문으로 추가되었다. 조선사의 말살·왜곡 작업은 애초 총독부 취조국에서 관장했던 것인데, 이를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여 편찬과를 설치하고 『조선반도사』의 편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병도는 귀국 후 중앙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케우치의 주선으로(이완용 추천설도 있다) ‘조편위’의 촉탁으로 들어갔다. ‘조편위’에는 이나바 이와키치가 수석 수사관(修史官)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경성제대의 이마니시류 교수가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이나바는 1909년부터 7년간 만철(滿鐵)의 역사지리조사실에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고,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조선문화사연구』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다. 그는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한 만선사관의 대표 인물이었다. 또 이마니시

는 단군조선을 신화로 격하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제의 정치적인 요구와 학문적인 관심으로 한국과 만주에 걸친 역사지리 조사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사의 타율성론과 만선사관, 정체성론을 앞세워 한국사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sup>5)</sup>

이병도는 일본인 역사학자가 주도하고 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마니시의 수사관보가 되어 『조선사』 제1, 2편(통일신라시대), 3편(고려시대) 편집 등에 참여했다.

이병도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왜곡을 위해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것을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국사에 뜻을 둔 이는 이능화·최남선·이중화·안자산·문일평·황의돈·권덕규 등 제씨였다. 나는 이들과의 교류에서 자극을 받기도 했으나 내게 직접 간접으로 큰 격려와 영향을 준 것은 일본 와세다대학의 츠다 박사와 동경제대의 이계우찌 박사였다. 이분들은 일본 사학계의 권위로서 특히 츠다 박사는 내 은사의 한 분이요 사학뿐 아니라 중국사상사의 대가이기도 해서 재학시절부터 지도를 받은 바 많았다.

이계우찌 박사에게는 직접 강의를 받지 않았지만 당시 한국사연구에 최첨단을 걷던 분이였다. 이 두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들의 역작이 실린 『만선지리사보고(滿鮮地理史報告)』와 『동방학보(東方學報)』등을 보내 주어서 거기서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또 때마침 중추원 안에 조선사편수회가 설립되었는데, 나는 이계우찌 박사의

5) 앞의 책, 186쪽.

추천으로 몇해동안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sup>6)</sup>

이병도는 '조편회'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몇 해 동안 촉탁으로 근무”했다고 딱한 줄로 서술했지만, 이 기관은 한국병탄 초기 일제가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조선사를 뿌리에서부터 왜곡한 총독부의 최우선 사업이었다.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상당 부문 이때 편찬된 『조선반도사』에 의존한다.

일제의 조선병합 목적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지워버리기 위해 뺏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처럼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신사를 150군데나 지어놓고 참배시켰다. 그래서 한일병합 이후 가장 먼저 모든 고서를 압수해 불태워버렸다. 단군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천황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완용의 조카인 이병도는 그의 도움을 받아 1925년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고조선 2000년사'를 말살하는 작업에 20년간 종사했다.<sup>7)</sup>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훈령으로 되어 있던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로 고치고 일왕의 칙령으로 설치 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조선인 사학자들도 끌어들이었다. 1925년 6월에는 일왕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제정·공포하여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편수회의 고문에 이완용·권중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박영효(후작)와 이윤용(남작) 등 친일 거물들을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일본인 거물들과 어용학자 다수를 참여시켰다.

편수회의 총책임은 정무총감이 맡아 지휘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었다. 일제가 조선사 왜곡에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제가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단군에 관한 기록을 없애고, 한·일 두 나라가 같은 조상이라는 동조동근론의 구축, 그리고 조선인의 열등성과 일본인의 우수성을 역설하여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병도는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에 임명되었다. 1927년 5월 수사관보를 그만두고 촉탁을 맡아 1938년 6월경까지 활동했다(일제강점기 때 그의 집안에서 세운 부친 비문에는 수사관(修史官)으로 나오니 촉탁에 불과했다는 이 주장은 의혹이 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5년 6월 '조선 사료의 수집, 편찬 및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기 위해 조선사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선총독부직속기구로, 『조선사(朝鮮史)』편찬 등을 통해 식민사학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이마니시와 함께 『조선사』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의 편찬을 담당했다. 수사관보로 재직하던 1926년 1월 조선사편수회 소속 학자들의 공동 연구기관인 조선사학동고회(朝鮮史學同攷會)의 편찬원을 맡았다.<sup>8)</sup>

일제강점기 이병도의 학계활동과 친일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30년 8월부터 1939년 10월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 위원을 지냈다.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 연구를 표방하며 조직한 학술연구단체로, 최남선·이능화·신석호 등이 참여했으며, 『청구학총

6) 이병도, 「나의 30대」, 『풀뭇간의 쇠망치』, 휘문출판사, 1972, 35-36쪽.

7) 박성수,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한겨레』, 2015년 9월 18일.

8) 『친일인명사전 2』, 876쪽.

(靑丘學叢)을 발간했다.

1933년 4월부터 1943년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를 강의했다. 1934년 5월 진단학회(震檀學會)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학회 창립과 함께 상무위원에 선임되었고, 학회지 『진단학보(震檀學報)』의 편집위원(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36년 6월에는 진단학회 위원을 맡았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하여 총후봉공(統後奉公)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1941년 4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맡아 1943년까지 사학강좌(史學講座)를 담당했다.<sup>9)</sup>

해방 후 역사학계 일각 특히 이병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진단학보』가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사관을 지켜온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조선사가 완간된 1936년 일본인들은 청구학회(靑丘學會)를 조직하고 이병도는 그에 맞장구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식민지 조선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름만 진단학회지 고조선사를 연구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진단학회는 해방 후 다시 살아나 한국사연구의 총본산이 되었으니 이병도는 이중삼중으로 배신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사는 일제식민사학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일본사의 틀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일제의 조선병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즉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역사가 광복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병도의 『국사대관』이 나온 것은 광복 후의 일이지만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를 표절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sup>10)</sup>

9) 앞의 책, 876-877쪽.

10) 박성수, 「이병도와 일제식민사학」, 『광복70주년기념 일제 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년 9월 16일, 29쪽.

### 3. 해방 후 한때 ‘문제제기’ 됐으나 승승장구

해방 후 이병도는 승승장구했다. 해방 직후에 창설된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학부장을 맡는데 이어 진단학회를 부활시켜 상임위원을 맡고,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선사 교수, 1946년 학제 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로 발령받아 196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해방 직후 이병도는 민족사학 쪽으로 얼른 말을 갈아탔다. 개천절의 의의에 대해 1946년 10월 27일자에 개천절을 맞아서 이병도는 “또 지금으로부터 4천2백79년전 단군이 강탄하시었다는 의미로 개천한 날”<sup>11)</sup>이라며 단군 사회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방 직후 민족주의 기운이 사회 전반에 흐르자 친일에서 민족주의자로 재빨리 전향하려 한 것이다.

그의 행로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딱 한번 ‘사건’이 있었다. 1948년 8월 진단학회에서 친일파 제명론이 제기되었으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진단학회와 그 중심인물이던 이병도의 처지는 그렇게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진단학회에서의 친일파 제명운동 사건이었다. 일제말기부터 손진태와 더불어 소위 ‘신민족주의사관’을 모색해오던 조윤제가 해방 후 친일파 제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병도는 새로 재건된 진단학회의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송석하와 조윤제가 위원장과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송석하가 곧 타계하자 이상백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sup>12)</sup>

1950년 6·25한국전쟁은 친일파들에게는 일종의 행운으로 작용했다. 과거 친

11) 「국경(國慶)! 오늘은 개천절/고대부터 지키든 제전 서울대학 이병도 교수 담(談)」, 『동아일보』 1946년 10월 27일.

12) 한영우,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비평사, 1994, 257쪽.

일행위보다 반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병도 역시 이런 기류에서 순탄하게 출세의 길을 걷는다.

해방 후 잠시 위축되었던 이병도는 6·25전란 중에 민족주의자와 좌익인사들이 대거 월북하거나 납북되고, 극심한 반공주의 정책 하에서 친일파문제가 조용해지면서 학계의 최고 원로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54년에 그는 진단학회의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1989년에 타계할 때까지 35년간 실질적으로 진단학회를 이끌어갔다.

6·25 이후 이병도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져서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1954)을, 학회에서는 학술원 부원장(1954)을 맡았으며, 1960년의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許政) 과도정권이 들어서자 4개월간 문교부장관에 취임하기도 하였다.(1960. 4). 이때 그는 학생들이 친일파 청산 등의 운동으로 나서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 이병도는 1960년 5월 1일 문교부 장관으로서 “학원 등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sup>13)</sup>라고 발언해서 이른바 학원 등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정치민주화와 친일파 청산 등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는 학생들이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집을 파괴하고 가구 일체를 소각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친일청산 요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병도 같은 인물을 문교부 장관으로 임용한 것 자체가 허정 과도 내각이 4·19정신을 짓밟은 것인데, 이병도는 친일파답게 “교원 노조”에 대해 적극 저지하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피력했다.<sup>14)</sup> 이병도는 심지어 “교원노조 해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sup>15)</sup>했다. 이병도는 “교원노조는 계속 불허”하고 “영화 검열은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sup>16)</sup>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경남 김해 교원 500여 명이 ‘이병도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sup>17)</sup> 울산에서도 700여 교원들이 이병도 규탄대회를 개최해<sup>18)</sup> 이병도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성토했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허정 과도내각의 문교부장관 이병도는 4·19혁명정신과 정반대의 태도를 견지했음에도 이해 학술원 원장에 올라 20여 년간 학술원을 이끌었다.

그가 일시적이지만 관계로 나간 것은 허정과의 보성전문 동창관계가 인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병도는 1960년 7월 장면 정부의 수립으로 과도정부의 문교부장관을 마치고(같은 기간 국사편찬위원장 겸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서울대학교대학원 원장, 12월에는 중앙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61년 4월부터 국민대학교 학장을 맡았다. 이때 박정희가 주동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4·19혁명정신을 부정하는 행태를 여러 번 보였던 이병도는 재빠르게 쿠데타 지지에 나섰다. 군사정부의 기관지 『최고회의보』 창간호에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기고하여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4월혁명의 뒤를 이어 민족사의 새로운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민주당 정권은 너무도 무력하고 무정견하고 또 전 정권시대 관료층의 독선과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사회의 궁핍과 혼란은 한층 더 하여가고 국가의 위신은 실추되며 공산괴뢰의 간접침략은 치열하여 이 나라 이 겨레의 앞길이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지난 5월 16일 국군

13) 『동아일보』 1960년 5월 1일자.

14) 「교원노조 불필요, 학원분규는 스스로 해결토록」, 『동아일보』, 1960년 5월 20일; 「교원노조 불요(不要)」, 『동아일보』, 6월 17일자.

15) 「교원노조 해체하라」 『동아일보』, 1960년 6월 23일.

16) 「「교원노조 계속 불인, 영화검열은 당분간 지속」 이병도 문교장관 담(談)」, 『동아일보』, 1960년 7월 1일.

17) 『동아일보』 1960년 7월 4일.

18) 『동아일보』, 1960년 7월 5일.

19) 앞과 같음.

장병들에 의하여 수행된 군사혁명은, 이러한 조국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길만이 4월혁명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요, 또한 공산침략하에서 귀중한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의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sup>20)</sup>

이병도는 이같은 공으로인지 1962년 8월 군사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비롯해 5·16민족상과 학술원상, 인촌문화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고, 1966년부터 5·16민족상 심사위원회 고문이사, 1970년에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이사(1982년 부터는 이사장), 국토통일원 고문(1970년), 1980년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8년간 국정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 4. 국정농단의 김창룡 비문 쓰다

이병도의 행적중에는 역사학자, 그것도 '실증사학자'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않다. 하나는 「고 김창룡 중장 묘갈」을 쓴 것이다. 김창룡은 이승만 정권기 국정과 군대일(군정)을 농단하다 군인들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반역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탈출하여 월남, 조선경비대에 들어갔다.

군부내의 남로당 조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워 이승만의 신임을 받아 육군특무대장으로 영전한 그는 '뉴텔리밀담설', '동해안 반란사건' 등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군통수계통을 무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다가 1956년 허태영 대령 등에 의해 암살당했다.

#### 〈고 김창룡 중장 묘갈〉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은 4289년(1956년 - 필자 주) 1월 30일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입어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 아니 놀래고 슬퍼 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함이 이구동성의 외침이었다. 그는 본시 영흥 출생으로 80년(1947년)에 육사를 마치고 그 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장에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오를 부여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다. 84년(1951년) 육군특무부대장에 부임하여서는 더욱 헌신적 노력과 탁월한 지휘로써 국가 및 군사 안전 보장에 기여하였다. 그 중요한 적발만으로도 85년(1952년) 대통령 암살 음모의 김시현 사건 87년(1954년) 남도부 등의 대남 유격대 사건 88년(1955년) 대통령 암살 음모자 김재호 일당을 미연에 일망타진한 그것이다.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됨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또 불타는 조국애와 책임감은 공사를 엄별하여 직무에 진수하더니 급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은 기리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그의 생년은 단기 4253년 11월 23일. 향년은 37세. 순직과 동시에 육군 중장에 승진되었다.

단기 4289년 2월 3일 입.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일권.<sup>21)</sup>

20) 이병도,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 『최고회의보(창간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14-15쪽.

21) 정지환,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인물과사상사, 2004, 31쪽.

## 5. 이완용 관뚜껑 소각한 실증사학자

또 하나 ‘실증학자의 비실증적인’ 사건은 이완용의 관뚜껑 소각사건이다. 이완용은 새삼 소개가 필요없는 매국노 제1호로 찍힌 인물이다. 이병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병도는 실증학자의 대부로 알려진 역사학자다. 실증(實證)할 수 없다면 정사(正史)로 기록하지 말라는 사관(史觀)을 견지했다. 물론 그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실증사학을 강조했던 그가 정작 ‘가문의 수치’를 우려해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뻘인 이완용의 관뚜껑이라는 역사 유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이 아닌가.<sup>22)</sup>

한 언론인은 이병도의 이완용 관뚜껑 소각사건을 추적한 바 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권세와 민족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지난 1979년 이완용의 증손 이석형 씨는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묻혀 있던 이완용과 이항구 부부의 묘를 직접 파헤쳐 화장시켜 버렸다.

이완용의 관뚜껑에는 붉은 페인트로 일본 정부가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 李公之柩)”라 써어 있었다. 이완용 부자의 관뚜껑은 주민이 가져갔다가 원광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22) 앞의 책, 38쪽.

그러나 원광대에는 이 관뚜껑이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원광대 박물관장이었던 박순호 교수는 “소장 직후 이완용의 친척 되는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내려와 총장님을 설득해 관뚜껑을 가져가 태워버렸다”고 밝혔다.<sup>23)</sup> (이항구 부부는 이완용 아들·며느리다. 필자)

## 6. 사육신 명단 바꿔치기

이병도의 또 한 가지 ‘일탈’된 행적은 ‘상왕복위 기도사건’의 사육신에서 유응부 대신 김문기로 대체하려한 일이다.<sup>24)</sup> 유신 말기인 1977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사육신 유응부를 김문기로 바꾸기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sup>25)</sup>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이선근·이병도·신석호·백낙준·유홍렬·조기준·한우근·전해중·김철준·고병익·최영희·김도연·이기백·이광린·김원룡이다.<sup>26)</sup>

이들은 해방 후 한국 사학계와 동양사학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런 인물들이 만장일치로 “사육신은 유응부가 아니라 김문기다.”라는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금녕 김씨였는데, 그가 이병도를 만나 유응부 대신 자신의 선조인 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23) 『시사저널』, 1992년 8월 27일치.

24) 이 행적에 대해서는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의 「1부 사육신, 유응부인가 김문기인가」, 15-82쪽에 자세히 다룬다. 역사의 아침, 2008.

25)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 역사의 아침, 2008, 16-17쪽.

26)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 역사의 아침, 2008, 16쪽 주석.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이자 고등문헌 비판의 대가(?)였던 이병도는 유신 중 양정보부장에게 “제가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육신 바뀌치기 공작에 들어갔다. 일본인 스승들에게 배웠던 역사 바뀌치기 수법이 그대로 동원되었다.<sup>27)</sup>

## 7. ‘민족’과는 먼 식민지 역사관

이병도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 쪽에는 담을 쌓고 살았다. 수십 편의 논문을『사학잡지』,『청구학총』,『진단학보』등에 발표했으나 ‘민족문제’ 보다는 무난한 고대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일제 때부터 식민사관을 주장하던 일인 학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민족사회와 민족저항에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일본인 학자와 학술경쟁을 하면서 학문에만 정진해온 이병도...”<sup>28)</sup>

이병도는 조선사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일본관학자들의 황국사관 논리와 판박이다.

근조선(近朝鮮)의 모든 기구와 조직이 중앙집권적인 양반중심적인 점은 고려 조보다도 더 심한 편이었고, 특히 불교 중심의 문화가 유교 중심으로 변한 것은 근조선의 성격을 가장 크게 특징지운 것이라고 하겠다. ...유교사상에는 물론 취할 점도 있지만...비난할 점도 적지 않다. 너무도 명분적인, 봉건적인, 사대적인, 상고적(尙古的)인, 허례형식적(虛禮形式的)인, 중농적(重農的)인 주의(主義)와, 숭문천무(崇文賤武)·남존여비·관준민비의 사상, 기타 차별·편

27)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11쪽.

28) 김이수, 앞의 책, 196쪽.

파·배타적인 점이 많다. 유교의 이러한 점이 원래 정체적이지요, 인습적이지요, 또 편파적인 반도(半島) 국민에게 일층의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sup>29)</sup>

이병도는 저서 『성기집(成己集)』에서 “역사왜곡은 인생을 왜곡하는 일”이라 적시하였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나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역사왜곡의 사례로 꼽히는 대목은 한사군의 위치 비정(比定)이다. 이와 관련 따져온 질책이 따른다.

이박사는 한사군의 강역을 비정함에 있어 치명적인 선입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반민족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입관이란 한국의 기본적 역사강역을 현 한반도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애창하는 “3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말 속에는 조국강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뜻한 감정이 서려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 3천리 반도는 조국사의 위축을 표상하는 거금 1,000년 이래에 형성된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조국 강역에 대한 대명사인 것이다.<sup>30)</sup>

이병도의 원전(原典) 해독 능력과 관련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있었다.

이병도 박사의 원전 해독 능력도 어로불변(魚魯不辨: 魚자와 魯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이론자들보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과거(1956)에 우리나라 고전인『삼국유사』를 역주(譯註)하면서 오역(誤譯)을 무려 4백 곳이나 낸 일이 있으니, 이 정도의 실력과 노쇠한 정력으로써 어찌 필자가 인증한『조선왕조 실록』의 방대한 사료(史料)를 세밀히 고증 검토할 수가 있

29) 이병도, 『국사와 지도이념』, 일조각, 1956, 40-41쪽.

30) 임승국, 『사림(士林①)』, 한국정사학회, 1986, 7-8쪽.

겠는가. 게다가 그는 자신의 낡은 권위주의 때문에 사육신 오관 왜곡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식비수과(飾非遂過: 자신의 잘못을 감싸고 나쁜 일을 해 나감)의 중대한 과오를 다시 범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감행한 장본인이란 세인(世人)의 비평을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다.<sup>31)</sup>

이처럼 학문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추종했으며, 정치적으로는 평생을 친일, 친독재로 일관한 이병도가 현재도 국사학계의 태두로 추앙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국사학계가 왜 외국과 달리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 김일수, 『이병도와 김석형』,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 박성수, 『이병도와 일제식민사학』, 『광복70주년기념 일제 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년 9월 16일.
-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 제98호, 2014.
- 이병도,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 『최고회의보(창간호)』, 14~15쪽,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 이병도, 『나의 30대』, 『풀뭇간의 쇠망치』, 휘문출판사, 1972.
- 이병도, 『국사와 지도이념』, 일조각, 1956.
- 이재호, 『조선사 3대논쟁』, 역사의 아침, 2008.
- 이재호, 『한국사의 비정(批正)』, 우석, 1985.
- 임승국,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를 논박한다』, 『자유』, 통권 제54호, 1976.
- 임승국, 『사람(史林①)』, 한국정사학회, 1986.
-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제18집, 2014.
- 정지환,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31쪽, 인물과사상사, 2004.
- 진단학회 편, 『역사가의 유향 - 두계 이병도선생 추념문집』, 서문, 일조각, 1991.
- 한영우,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비평사, 1994.
- 박성수,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한겨레』, 2015년 9월 18일.
- 『교원노조 해체하라』 『동아일보』, 1960년 6월 23일.
- 『교원노조 불필요, 학원분규는 스스로 해결토록』, 『동아일보』, 1960년 5월 20일.
- 『교원노조 불요(不要)』, 『동아일보』, 6월 17일.
- 『교원노조 계속 불인, 영화검열은 당분간 지속』 이병도 문교장관 담(談), 『동아일보』, 1960년 7월 1일.
- 『시사저널』, 1992년 8월 27일.
- 『국경(國慶)! 오늘은 개천절/고대부터 지키든 제전 서울대학 이병도 교수 담(談)』, 『동아일보』, 1946년 10월 27일.

31) 이재호, 『한국사의 비정(批正)』, 우석, 1985, 398쪽.

[Abstract]

## Lee Byungdo's Personal Record and Historical Plight

Kim, Sam-Woong

Lee Byung-do is treated as a sacred scholar in the Korean academe of history not by his scholastic achievements but by the idolization conducted by his academic descendents who formed a major influential lineup in diverse areas of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Lee Byung-do's personal records and view of histo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deserved for a sacred scholar.

Lee was born as a scion of well known Woobong clan which was a representative family of Noron(老論), the central political force in late Joseon dynasty. He went on literature department of Waseda university. Although he intended to major in western history, he studied Joseon history due to influences from Yosida Dogo(吉田東伍) and Theuda Shogichi(津田左右吉). After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he became a member of the Redaction Committee for History of Joseon which wa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Japanese vice-regal office, and participant in the projet to distort the history of Joseon in line with the guidelines made by the office.

Lee was expelled from the Jindan Academic Association due to his pro-Japanese records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in 1945. However, he revived almost from death and made a long march flushed with senior scholar. His revival was attributable to overwhelmed anti-communism movement based on the policy of Lee Seung-man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war broken

out in 1950. He admired Kim Chang-ryong who was the chief of counter intelligence corps of Korean army by writing epitaph for him. Kim was known to accuse many democratic figures of communists and massacred them. On the epitaph Lee praised Kim by stating that Kim eradicated 25,000 communists through arresting or killing suspects.

Lee took the position of minister of education for four months in the Heo Jung's interim government after the collapse of Lee Suung-man administration due to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During his tenure he blocked student movements toward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winding up pro-Japanese force, and interrupted activities of teacher's union with an all-out effort. Lee contributed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d'tat in 1961 by writing an article under the title of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y military revolution' on the first issue of 『Supreme Military Council Report』. He did not hesitate to conduct subversive activities contrary to historical facts: he attempted to replace Yoo Yeung-bu who is the one of four historic loyal subjects condemned to death with Kim Mun-gi, and burned the lid of his relative Lee Wan-yong's coffin. He had been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Korean Academy for over twenty years, and a member of the Consultation Committee for State Affairs for eight years since Jeon Du-whan's administration. The fact that Lee is treated as a luminary in Korean academic world of history in spite of his lifetime records of pro-Japanese and pro-dictatorship explains the reason why Korean people reject academic world of history contrary to foreign countries.

**Key Words** : Lee Byung-do, Jindan Academic Association, Epitaph of Kim Chang-ryong, Lid of the Lee Wan-yong's Coffin, Six martyred historical loyal subjects,

『역사와융합』제1집(2017.12)

【서평】

## 한국 고대사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윤내현, 『한국 고대사 신문』, 만권당, 2017.-

이 도 상(전 원광대)

교육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념교육으로 대치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은 근본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담론을 통해 우리 교육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왜 인성교육 과정에서 역사교육이 강조돼야 하는가, 그리고 윤내현 교수가 쓴 『한국 고대사 신문』을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자신은 근본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한국 고대사는 사실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가? 이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아인식을 위해 역사학계가 피해서는 안 되는 과제일 것이다. 셋째, 우리의 역사교육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이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교육계의 절실한 부분일 것이다.

윤내현 교수의 『한국 고대사 신문』은 위 세 가지 담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담

론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한국 고대사가 바르게 밝혀지지 못했고, 오류가 산재함이 지적돼 왔음을 전제로 “한국 고대사에 존재하는 오류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의 영향 아래서 범해졌고, 그것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다면 한국의 역사학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책하면서 한국 고대사 체계가 완전히 수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난해한 한국 고대사 체계를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망설여지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령 있게 접근하면 의외로 이해가 쉽다. 먼저 한국 고대사 체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패수 위치와 고대사 강역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이다. 두 번째 논란은 한사군의 위치, 특히 그 중에서도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시각차이다. 세 번째 논란은 기자와 위만과 그들의 뒤를 이은 한사군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역사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국수주의적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립될 경우 한국 고대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학계의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편으로 완강히 갈려 있어 거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나는 한국 고대사의 강역을 지금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여 한국 고대 문명은 중국에서 갈라진 종속문명이며 만주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외면한다. 더욱이 고조선(고대조선)은 신화일 뿐 실재한 역사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한국 고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지지한다 해서 주류 또는 강단사학이라 부르며 통설이라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문명은 중국 문명과 다른 독자적인 문명이었으며 그 속에서 성립한 고조선은 실재한 역사이자 지금의 만주 대

륙에서 전개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단사학 쪽에서는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소장 학자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민족사학이라 불리는 이 견해에 대해 ‘재야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라 부르며 과격한 국수주의적 환상에 빠진 기괴한 소비니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소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일부 재야사학자들은 고대에 우리 민족이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달콤하고 유혹적일지 모르나 식민사학의 기반인 지리적 결정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의 이면에는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받아서 복속한 우리는 영토가 협소하고 인민이 적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항해 독립국을 형성할 실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가 전제돼 있으며 이를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광복 7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해석이 이처럼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엇갈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어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옳고 그름의 입장을 떠나서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필요하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저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 2절의 ‘한반도 북부설의 비판’을 보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고조선의 위치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역으로 그것들이 고조선의 위치가 평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이어진 한국 고대사의 주요 논지는 고조선이 평양에 있었는데 위만조선이 그 뒤를 이었던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는 당연히 고조선이 있었던 지금의 평양으로 비정되며 한국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유적으로 낙랑대운장(樂浪大尹章)이 찍힌 봉니(封泥), 화천(貨泉)이라는 화폐, 대진원강(大晉元康)이 새겨진 기와, 점제평산군신사비(粘制平山君神祠碑), 나무 도장과 부조예군(夫祖歲君)의 은 도장, 효문묘동중(孝

文廟同種) 등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위 사례들의 제작 시기와 서체의 형태, 관직의 명칭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고조선·위만조선·한사군 위치가 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있을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도 젊은 역사학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유적들은 한사군이 평양에 위치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들이며 한사군 낙랑군이 무려 420여 년 동안 평양 일대에서 식민통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궤변이라고 말한다. 확실한 것은 평양지역의 유적들은 대부분 동한시대 이후의 유적들이며 서한시대 유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지는 2장 ‘고조선의 도읍 천이고’, 3장 ‘고조선의 사회 성격’ 4장 ‘기자신고’, 5장 ‘위만조선의 재인식’, 6장 ‘한사군의 낙랑군과 평양의 낙랑’ 등은 판단의 어려움 속에서 번민해 온 독자들이 한국 고대사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풀고 역사적 진실로 다가가는 길로 안내하고 있다. 즉, 고대에 기자-위만-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곳을 흐르던 강이 패수이다. 따라서 패수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한국 고대사체계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현재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상의 세 가지 논란을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 바로 패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독자들을 패수로 안내하면서 패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독자들의 한국 고대사체계 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패수 주변에서 전개되었던 역사 이야기를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우리 고대사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무슨 사료를 찾아 어디서부터 읽어내야 할지 해맬 수밖에 없는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정리해 주고 있는 이 책이 고맙고 소중하다는 말 외에 달리 적당한 표현이 없겠다.

특히 역사를 전공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맨 먼저 숙독해야 할 지침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란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번뇌하면서 미래를 엮어나가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확한 사실의 인식에 기초해야 올바른 역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이익과 결부시킨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역사왜곡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학계, 방관하고 있는 정부, 무관심한 국민의 미흡한 대응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본질 인식과 논리적 대응을 위해서도 한국 고대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이 책이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싶다.

#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바른역사학술원(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 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 학제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데 있다.

###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회 기관지 『역사와 융합』 발간
2.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 교류
4.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4. 일반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연구활동 지원
5.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 출판
6.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제4조 (회원의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생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 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박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를 1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를 수령할 수 있다.
4. 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4.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5. 회원은 이 학회의 행사 및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자격 제한)

이 학회의 회원 가운데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학술이사 2인, 홍보이사 2인, 학술정보이사 2인, 편집이사(편집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해외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이 학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 학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출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6. 홍보이사는 회원의 확대, 학회 유지 및 활동자금 확보 등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이사는 이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학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통솔 아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9.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과 학술지

에 게재 및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감독하고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0. 감사는 이 학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1. 자문위원은 이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문한다.

### 제12조 (총회)

이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기타 사업계획의 승인
  - ④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 (이사회)

이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의결권은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기관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 (위원회)

이 학회의 기관지인 『역사와 융합』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회비의 액수 및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이전년도 총회로부터 이번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제16조 (행정)

이 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 제17조 (해산)

이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회칙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과반 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20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8항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영문명: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편집·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단이 위촉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정회원 중 학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6인 이상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여, 투고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세부사항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 및 2차 심사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역사와 융합』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

## 『역사와 융합』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투고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내용)

『역사와 융합』에 실리는 글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미발표된 논문·비평논문·서평·번역·연구 동향 등을 포함하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비평논문과 서평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발행 회수 및 시기)

『역사와 융합』은 연 2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 (투고 자격 및 제한)

『역사와 융합』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며, 학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 제5조 (원고 제출 및 투고신청)

투고자는 원고를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 형태의 원고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이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 제6조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

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의 영문 제목 및 필자의 영문 이름을 영문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마지막 쪽에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5. 투고 원고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① 원고 제목 ② 저자 이름 ③ 한국어 초록 ④ 한국어 주제어 ⑤ 참고문헌
  - ⑥ 영어 제목 ⑦ 투고자 영문명 ⑧ 영문 초록(abstract) ⑨ 영어 주제어

**제7조 (원고 작성 요령)**

**1.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 3. 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어 표기 후 원어를 병기할 경우 ( )를 사용한다. 『』나 『』와 병용할 경우는 기호 안쪽에 기재한다.

보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 저자 이름**

저자 이름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필자를 앞에, 공동 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3. 본문**

- ① 본문의 장절 표기는 1, 1.1, 1.1.1' 순서로 한다.
- ②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 ③ 본문에 인용된 문헌의 출처는 미주가 아닌 각주 달음으로 표기하며, 달음 양식은 다음과 같다.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보기)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24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쪽수.

보기) 김병기, 『의열단원 우산 남정각의 독립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제11집, 2010,

271-300쪽.

〈서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이탈릭),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이탈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ex)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101-102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쪽수.

ex) Evelyn Pluhar, “Animal Right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 Academic Press, 1998, 165쪽.

**4. 원고 형식**

-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판짜기를 한다.
  - 용지 크기 : 사용자정의 - 폭 152, 길이 224
  - 용지 방향 : 좁게
  - 용지 여백 : 위 10, 아래 10, 왼쪽 10, 오른쪽 10, 머리말 10, 꼬리말 5
- ② 논문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제목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논문 제목		14	신명 태명조	170%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및 소속		11	신명 태명조	165%	하지 않음	오른쪽
장 제목 : I		12	신명 태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절 제목 : 1		11	신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소 제목 : 1)		10	신명조	175%		
세부 제목 : (1)						
미세 제목 : ①						
본문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인용문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인용문헌	제목	8.5	산돌 고딕	175%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표 / 그림	제목	9	산돌 고딕	140%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	산돌 명조	145%	하지 않음	양쪽 정렬
각주		8.5	산돌 명조	14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제목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초록 : 산돌명조, 10pt, 175%	제목	15	산돌 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10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오른쪽
	내용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공통	자간 : 한글-2%/영문-3%					

〈기타〉

-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줄고나 줄저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 신문과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 연. 월. 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표는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도면이나 지도, 사진 등도 위의 〈 〉 표시를 따른다.

제8조 (심사)

1. 심사 내용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3. 심사위원 제한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심사 절차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하

고,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밀로 한다.

5. 심사 기준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 적합성 정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등 각 항목에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의 성적을 〈별지 1〉과 같은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 ②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별지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7. 심사료

투고자는 투고와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추가 소요비용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 매수가 120매가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나, 최대 17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 내역은 분량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편집)

『역사와 융합』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별쇄본)

『역사와 융합』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해당호 3부와 별쇄본 10부를 우송한다.

**제12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효력)**

이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연구 윤리 규정****제 1 장 총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9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의 준수와 부정행위 금지****제2조 (투고)****1. 논문의 독창성**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게재될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저자는 같은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2. 표절 금지**

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연구 내용(아이디어나 가설, 주장, 이론,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 변형,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저자 표시의 정당성**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꾸로 학술적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

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제3조 (심사)

#### 1.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 사실과 내용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위반 사실 통보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4조 (편집)

####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3.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 및 수합된 결과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4. 연구윤리 문제 발생 시 대응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신속히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대응한다.

##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의 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 또는 보고받았을 때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1. 사안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보고된 사안을 조사한다. 이 경우, 제보자·해당 저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 중 해당 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2. 소명의 기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제소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저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심의 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4. 사안의 처리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위반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보자 및 보고자와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저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를 비밀로 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재심의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조치)

1. 게재 취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역사와 융합』에 게재를 취소한다.

2. 위반 사실 공지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와 『역사와 융합』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5년간 투고 금지

해당 저자는 향후 5년간 『역사와 융합』에 투고할 수 없다.

4. 기관 통지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지한다.

제 4 장 부 칙

제9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바른역사학술원					
<b>『역사와 융합』 논문 심사 신청서</b>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소속		전공		직위	
논문명 및 분야					
현주소	(집)				
	(학교)				
전화	(직장)		(주택)		(이동)
E-mail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술대회발표 (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_____ 해당사항없음 _____ (     )년 (     )차 (준계/추계) 학술대회				
1.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동화과번역』 제30호에 투고합니다. 2. 본인은 투고한 논문이 『역사와융합』에 수록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귀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름 :					
2017년    월    일					
<b>바른역사학술원</b> 원장 귀하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논문제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탁월	우수	보통	결함
학술지 성격 정합 정도	-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제간 대화와 소통에 힘쓰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한다는 학술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논문의 독창성	-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과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언어 표현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충분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대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 논문의 구성 형식이 학술지의 편집 기준에 맞는가?				
<b>총 합 평 가</b>					
게 재 여 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b>총 평</b>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 쓰셔도 좋습니다.)					

심 사 자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사일 :

년

월

일



## 알 림

### ■ 『역사와 융합』 제2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바른역사학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자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출 판 일 : 2018년 6월 30일

2) 원고 마감 : 2018년 4월 30일

3) 원고 내용 :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

4) 투고 방법 :

가. 보내실 곳 : hgr1379@naver.com

나. 반드시 학술원에서 정한 투고 형식을 지켜주십시오.(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이지 '학술이야기 - 한국바른역사이야기'의 자료 참조 <http://historyin.org>)

다. '논문 심사 신청서'를 같이 보내주십시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5) 심 사 료 : 6만 원(우리은행 1002-947-402494 이덕일)

6) 원고 분량 : 200자 원고 120매 내외

※ 투고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홈페이지 심사 규정 참조)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 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 저희 학술원은 외국어 논문의 투고를 적극 장려합니다.

### ■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 <http://historyin.org>

## 역사와 융합 제1호

2017년 12월 25일 인쇄

2017년 12월 30일 발행

**지은이** 바른역사학술원

**발행인** 이덕일

**펴낸곳**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92 진영빌딩 405호  
Tel. 02-711-1379 Fax. 02-704-1390

**인쇄** 모든인쇄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50번길 58(삼성동)  
Tel. 042-62-0308 Fax. 042-632-0309

『역사와 융합』은 모든인쇄의 기부로 발간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historyin.org>